

# 건축사 건축 532

 **KIRA** 2013 08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66년 창간

에 세 이 전주한옥마을의 이력서  
공간(空間), 시간(時間), 인간(人間)

특 집 한국건축산업대전 2013  
제5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 블랙의 마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흑연의 비밀  
신개념 비드법 2중 단열재 **에너지포르**



## 흑연 테크놀로지

에너지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 슬림 이노베이션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웰빙 신소재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블랙EPS 에너지포르 단면

##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지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 에너지포르

www.kkpc.com

# 저탄소 녹색성장 공법

건축주의 고민 공사비 절감!

**SLAF<sup>®</sup>** 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10% 감소
- 소음·진동·보온·단열·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 완벽한 시공을 위한 현장시공 기술자문 책임수행

건설 V.E. 공법의 NEW 패러다임



[ 기존 건물 ]

[ SLAF 건물 ]

Super Light-weight Air-balled Flat plate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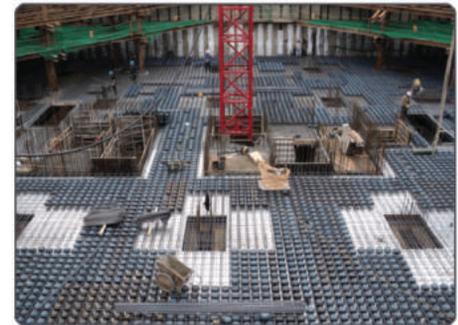
SLAF 공법과 동일한 김포공항청사의 벌집구조



SLAF 공법 적용 후 전경 사진 (무량판 구조 : NO BEAM)



지상층 SLAF 시공 현장사진



지하층 SLAF 시공 현장사진



(주)신화엔지니어링  
SHINWA ENGINEERING CO., LT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 삼광빌딩 2층 T. 02.3481.3885 M. 010.3745.3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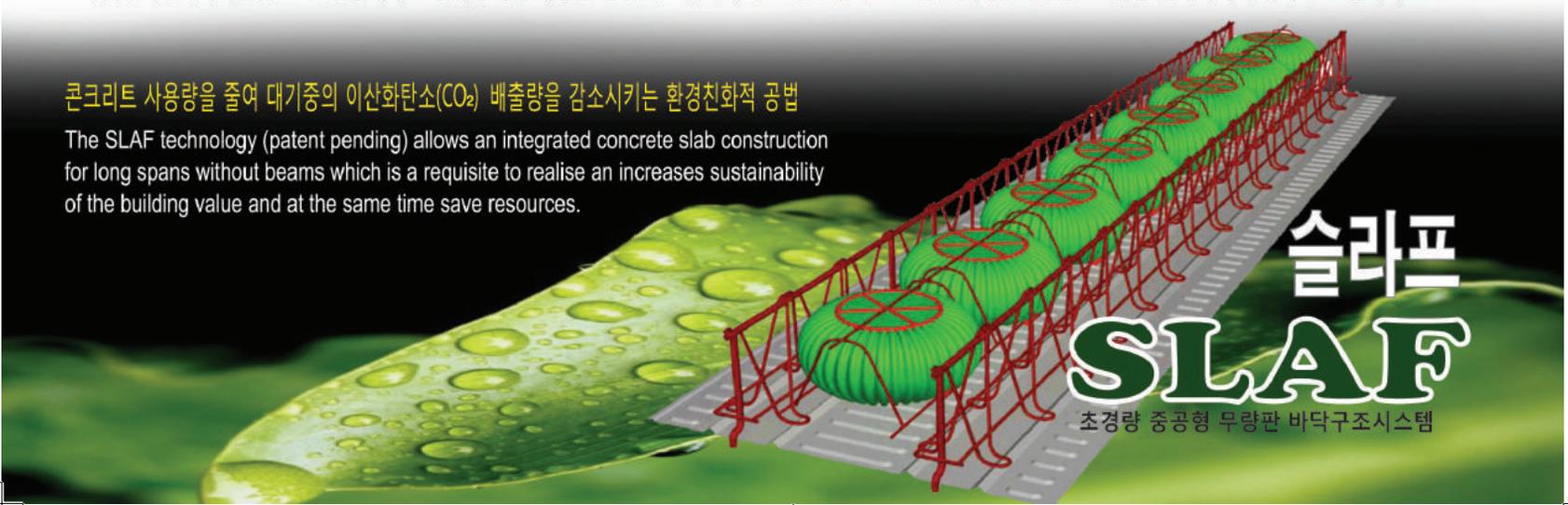
<http://www.sh911.co.kr>

건축구조기술사/공학박사/대표이사 조상규

(주)신화엔지니어링은 40년 전통의 구조설계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여 구조계산서, 구조도면작성(세움터 인증 포함)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드립니다.

콘크리트 사용량을 줄여 대기중의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환경친화적 공법

The SLAF technology (patent pending) allows an integrated concrete slab construction for long spans without beams which is a requisite to realise an increases sustainability of the building value and at the same time save resources.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 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추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3길 8, 다동 TEL : 02)333-4448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172번지 TEL : 054)973-1900
- E-mail : sky23487@hanmail.net
- FAX : 054)973-0067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방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건축물 외장재 신개념 PANEL

# EURO-ZINC PANEL

## 다양한 외관창출과 징크패널의 업그레이드 제품 신소재 준 불연 단열재 프로폴보드의 시스템패널

기존 패널의 단조로운 색상과 형상에서 벗어난 샌드위치패널의 최종 집대성 된 패널입니다. 준 불연 단열재 프로폴보드를 사용하여 현존하는 샌드위치 패널의 장점만을 극대화 한 21세기형 최첨단 친환경 패널입니다. 지붕과 벽을 혼용할 수 있는 파형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연출할수 있습니다.

### [유로징크 특징/장점]

- 1.저렴한 비용으로 고품격 디자인 창출
- 2.비용 절감.공사기간 단축
- 3.줄눈의 색상 및 간격 조절이 자유로워 깔끔한 외관 창출
- 4.중.형 시공에 의한 깔끔한 마감 처리시공
- 5.다양한 맞춤형 코너 마감으로 건축물의 완성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한 제품

특허출원번호-2011-0053998

디자인등록 제30-0658085호



# FREE-METAL PANEL

서진공영의 프리메탈패널은 **준불연재**이며 고품격 디자인을 바탕으로 **비용절감**과 코너마감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시공상의 우수성과 강도로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으로 서진공영만의 프리메탈패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FREE-METAL PANEL POINT]

1. 난연성이 우수하여 화재사고에 안전하며 유독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2.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3. 단열성이 뛰어나 에너지소비를 절감하며 경제적입니다.
4. 방수,방습성이 우수하여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단열성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5.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하여 취급이 간편합니다.
6. 발포폴리스티렌(EPS)이 적용될수 있는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발포폴리스티렌(EPS)의 간편한 시공법과 동일하게 시공됩니다.

특허증 특허 제10-1219639 샌드위치 패널용 외판 제조방법



서진공영주식회사  
Sejin Gongyoung Co.,Ltd.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03-1번지  
TEL. 032-563-0020 FAX. 032-563-8813  
www.i-seojin.co.kr / www.i-seojin.kr

공장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32-1번지

## 편견을 버리면 새로워집니다.

변화의 새로움을 바라다가 시작합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가로 출력시스템으로 더욱 빠르고 향상된 품질의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최대 20/18ipm  
(흑백/컬러의  
초고속 인쇄)
- 

초대용량  
잉크카트리지로  
유저비 절감
- 

클라우드서비스  
지원
- 

유무선 네트워크
- 

자동상면인쇄
- 

3.7" 슬라이드 터치  
LCD 디스플레이

### MFC-J2510 InkBenefit

인쇄 속도	고속 모드: 최대 흑백 35ppm, 컬러 27ppm 레이저 대비: 최대 흑백 20ppm, 컬러 18ppm
복사 속도	흑백 12ppm, 컬러 9ppm
팩스 모델 속도	33.6kbps
스캔 해상도	최대 2,400 x 2,400dpi(광학), 18,200x18,200dpi(확장)



MFC-J2510 InkBenefit

**if** 디자인 어워드 2013 금상 수상기념!

# 1+5 FREE

브라더 가로출력 복합기 1대 사면  
산돌팬시폰트 5개가 무료!



## MFC-J2510 InkBenefit 정품잉크 EVENT

MFC-J2510 InkBenefit + 정품잉크 + 산돌 유료 서체 이용권 + 무상A/S 1년 추가 연장

### 산돌 서체 EVENT



산돌서체 6개월 무료



산돌서체 3개월 무료  
(첫번째 구매)



산돌서체 3개월 추가(무료)  
(두번째 구매)



총 1년 산돌서체 이용권  
(6개월 + 3개월 + 3개월)

### 무상 A/S 추가 EVENT



A/S추가 1년  
(4개월 + 4개월 + 4개월)



무상 A/S 4개월 추가  
(다섯번째 구매)



무상 A/S 4개월 추가  
(네번째 구매)



무상 A/S 4개월 추가  
(세번째 구매)

## ▶ MPT 강봉보강공법 개요

MPT(Metro Post Tension) 강봉보강공법은 보의 부족한 휨모멘트 및 전단력을 동시에 보강할 수 있는 공법으로, 보의 단부 상단 고정판과 중앙 하부 고정판을 정착하고 고강도 특수강제의 강봉을 유압 시스템으로 인장하여 구조물의 보 또는 슬라브를 보강하는 공법이다.

기존의 수동적 보강방법인 강판과 탄소섬유로 부착하여 보강 할 경우, 보강 부재가 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때 기존부재는 보강 후 적재로 인한 추가 변형으로 인해 구조체의 변형이 증가하게 됨으로 균열의 확대 또는 파손의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강판보강이나 탄소섬유보강공법의 경우 상부의 하중을 제거하거나 구조체의 변형을 강제로 회복시킨 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MPT(Metro Post Tension) 강봉보강공법은 기존부재의 변형을 회복시키면서 추가 하중을 구조체와 함께 지지하게 됨으로 구조물의 내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능동적 보강공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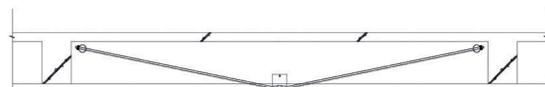


## ▶ 보강공법의 특징

- 1. 구조적 안정성**  
고강도의 특수강봉을 유압시스템으로 정확한 인장력 계측이 가능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높다.
- 2. 내화성능**  
일반보강공법에 비교하여 에폭시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불연재인 강봉을 사용함으로 내화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 3. 친환경적**  
미장제거에 따른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지 않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다.
- 4. 경제적**  
건축물의 천정마감재를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비용이 절감된다.
- 5. 공기단축**  
기존 보강공법에 비해 공정을 단순화시켜 공사기간이 약50% 이상 단축된다.
- 6. 시공성**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면 완료됨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주변의 각종 설비 시설등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하다.
- 7. 품질관리, 내구성**  
고강도 특수강봉을 공장에서 가공함으로 품질 관리 및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내구성이 높다.



〈그림 1.4.5c〉 강봉 배치형태(슬라브 V형)



〈그림 1.4.5b〉 강봉 배치형태(보 V형)

#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조립식 패널 전문 설계팀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난 신개념 메탈패널

## CUBE METAL

큐브 메탈패널은 서로 다른특징을 가진 4종의 타입이  
기능적인 조인트 설계로 상호 조합되어 건물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 줄눈디자인  
다양한 너비와 깊이  
독특한 경사형 디자인  
자유로운 세로줄눈 간격

- 기능성  
타입별, 두께별 상호결합  
다양한 단열재  
누수방지 결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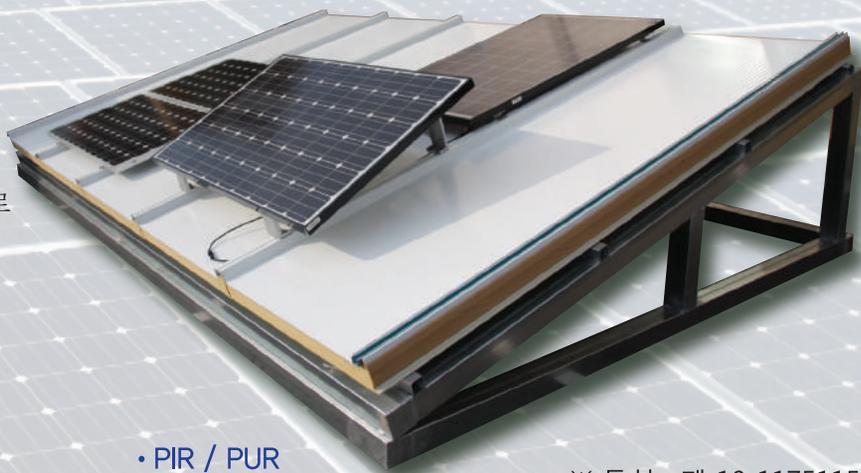
※ 특허 : 제 10-2011-0139926 호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발전용 패널

## SOLAR Roof

솔라루프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패널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어 부자재가 필요  
없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발전용 패널입니다.

- 누수방지  
볼트리스타입으로 모세관현상 방지 및  
깔끔한 외관
- 시공성  
기존 태양광 모듈 설치의 중복공사 감소로  
인한 자재비 절감효과
- 경제성  
뛰어난 단열 및 전력생산의 경제적 효과
- 확장성  
일반지붕형 외에 경사형, 외벽형의  
다양한 설치 시스템



• PIR / PUR

※ 특허 : 제 10-1175115 호



**에스와이패널(주)**

설계영업부(기술지원) TEL. 031) 226-4226 / FAX. 031) 226-2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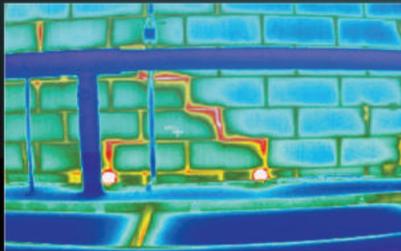
본 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21-4 리치타워 7층 Tel. 031) 222-4028~9 / Fax. 031) 221-5458  
인주공장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갈매리 1037 Tel. 041) 534-8484~5 / Fax. 041) 534-8487  
논산공장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226-3 Tel. 041) 742-8486~7 / Fax. 041) 742-8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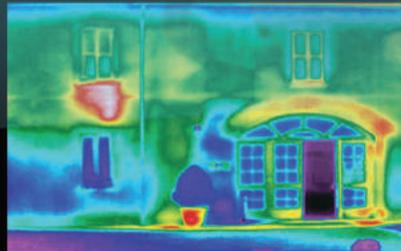
FLIR T640bx / FLIR T620bx  
 건물/에너지 진단을 위한 전문가용  
 열화상 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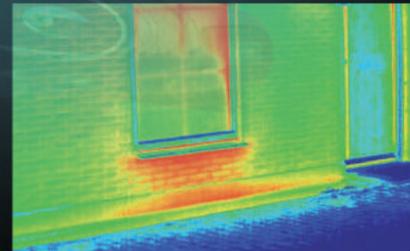
최고의 이미지 해상도  
 640 x 480 픽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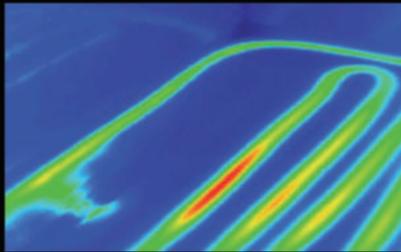
건물 구조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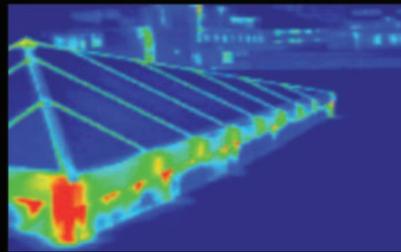
에너지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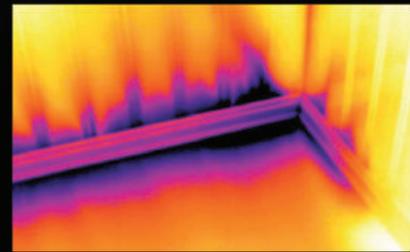
절연 손실



난방 배관 누수 탐지



외기 유입



습기 침투



[www.flir.com](http://www.flir.com)

(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6층 (삼성동, 구구빌딩) 전화: (02) 565-2714~7 팩스: (02) 565-2718 이메일: flir@flirkorea.com

Images/contents are for illustration purpose only.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의 에너지효율 및 내열성능 시험결과

시공사례모음



내열성능 시험결과

시료명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열에 의해 변형이 된 길이 (200mm 기준)	0.1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5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흘러내림길이(mm)
결과 이미지		
시험방법	가로와 세로길이가 각각 200mm가 되는 시편을 80도에 일정시간이 지난 후 열변화에 따른 길이변화와 겹모양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시험기준	KS F4917: 2007	
시험기관	한국 전자재시험 연구원	



방수층 개요도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공법 · 신뢰받는 회사 -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TOTAL & HIGH-TECH WATERPROOFING CO., LTD.



스마트폰으로 QRcode를 스캔해보세요

www.ipalg.co.kr  
이파엘지.kr



CMR 기술연구원(주)  
Construction Maintenance Repair & Reinforcement  
www.cmr.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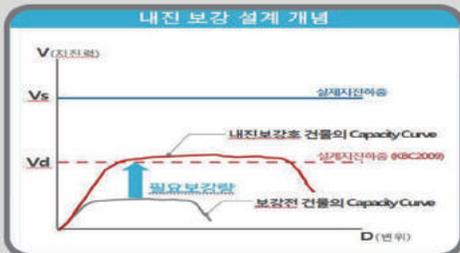
#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전문가 그룹

## 비선형정밀해석 을 통한 최적의 건축공간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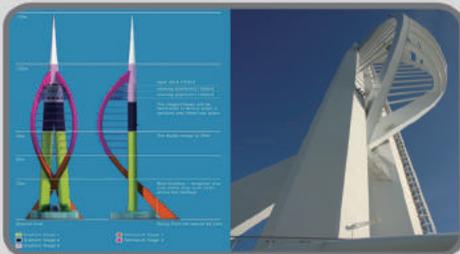
**내진성능평가국내최다실적! 댐퍼시스템설계기술확보!**  
**내진보강설계국내최다실적!**  
**비선형해석 통한 최적 구조 시스템 제안!**

### [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설계 ]



- ▶ 중·저층학교건물    ➡ 교과부기준
- ▶ 청사및관공서      ➡ 건교부기준

### [ 비선형정밀해석/최적구조설계 ]



- ▶ PUSHOVER해석    ➡ FEMA356/MIDAS
- ▶ TIME HISTORY   ➡ PERFORM3D, CANNY  
ANALYSIS            OPENSEES...

### ◎ 사업분야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설계<br/>· 국내최신기준고려 · 비선형성고려한설계</li> <li>③ 내진/제진/면진장치연구개발<br/>· 내진기술연구개발 · 내진설계기술개발</li> <li>⑤ 구조물안전진단<br/>· 정기/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li> <li>⑦ 시공현장지원<br/>· 건설현장구조지원 · 구조감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구조설계<br/>· 신축구조설계 · 구조도면작성</li> <li>④ 구조관련컨설팅<br/>· VE설계 · 최적시스템제안</li> <li>⑥ 비선형정밀해석<br/>· 비선형정적해석<br/>· 비선형시간이력해석</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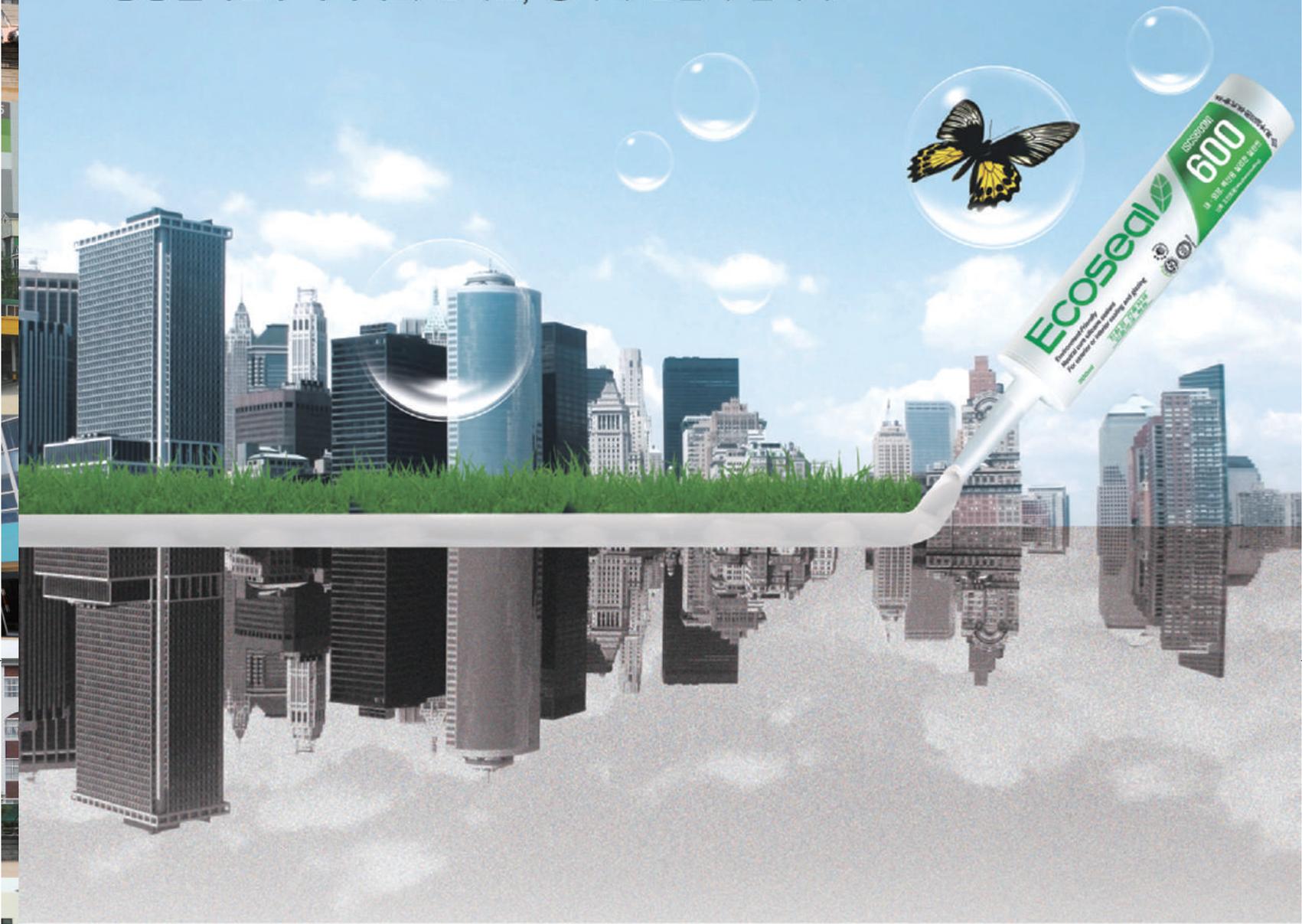
CMR기술연구원(주)  
www.cmr.or.kr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33-16 영풍오피스텔 2층  
Tel 02-402-3378 Fax 02-402-4378



# Technology for tomorrow

동양실리콘주식회사와 만나면,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 동양실리콘주식회사와 함께하는 생활공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동양실리콘주식회사는 고객의 변함없는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친환경 건축용 산업용 실리콘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수준의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및 품질관리로  
세계 1등 품질의 건축용 산업용 실리콘을 생산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양실리콘주식회사와 함께 하십시오.



KG  東洋실리콘株式會社



KCL

# 전주한옥마을의 이력서

The chronicle of Han-ok town, Chunju



최상철 | Chol, Sang-cheol, KIRA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 전주한옥마을의 공간구조

근대화의 여명이 동티 오르기 시작하던 19세기 말, 전주에서도 성(城) 안팎의 온도차는 상당하였다. 당시 전주부성(全州府城) 자체가 이른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경계로 작용한 탓이다. 그래서 근교상권을 막 장악해 나가던 중소상인들이나 호남평야 너른 들에서 쌀농사로 부를 축적한 신흥 부농(富農)과 대지주들조차 대부분 남문(南門) 밖에 거주하게 되었고, 또 을사조약체결 이후 떼거리로 몰려든 일본인들까지 처음에는 서문(西門) 밖에 모여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1907년, 일제에 의하여 그 유서 깊은 전주성곽이 송두리째 철거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오랜 세월동안 성곽이 버티고 서있던 자리에는 낯선 도로가 하나둘 들어서고, 낡은 건축물이 과감히 교체되면서 다들 성내(城內)로 다급히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도 이미 조성되어 있던 대지와 건축물, 담장과 골목길 등 내부가구(內部街區)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온 당시의 원형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전주한옥마을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태동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어쨌든 전주한옥마을의 가장 큰 매력은, 도시생활에 적합하도록 골목길을 따라 한옥들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군락을 이루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시끌벅적하니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차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골목길로 접어들 때마다 주민들의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고, 또 잔뜩 부풀어 오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어느 집이라도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한때 소원했던 옛날 동무와 다시 만나는 것 같다. 그 때문일까? 전주한옥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이미 사라진 우리 고향땅, 우리 고향마을에 도착한 것 같은 착각에 그만 빠져들고 만다.

## 한옥마을 보존과 주민들의 갈등

전주한옥마을도 처음 자리를 잡을 때는, 한바탕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1999년, 전주한옥마을이 ‘전통생활문화특구’로 지정되고 그 기본사업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주민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전주한옥마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북대학교 채병선 교수는 한동안 주민들의 시비와 협박에 시달리느라,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실토할 정도다.

땀은 그럴 만도 했다. 당시 고층아파트를 찾아 다들 신시가지로 이동하는 바람에 이곳 주민들은 더욱 허탈해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발표된 구도심(舊都心) 활성화대책이라는 것이 다시 또 한옥마을 재생이라니, 주민들은 격분했다. 지금까지의 인내와 희생을 보상하라며 너도나도 들고 일어선 것이다.

사실 전주한옥마을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약 3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7년 전주시에서 풍남동과 교동 등 지금의 한옥마을 일대를 이른바 ‘한옥보존지구’로 지정하면 서부터였는데, 그때만 해도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나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 그저 한옥을 보존하겠다는 일념아래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로만 일관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개정된 건축조례에서 다시 이 지역을 ‘제4종 미관지구’로 변경지정하며 일부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재산권행사의 제한 등 불편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의 집단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게다가 이미 다른 도시에서는 한옥보존을 포기했다는 비보까지 속속 날아들었다. 이에 전주시에서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지 1997년, 그동안 이 일대의 한옥군(韓屋群)을 근근이 보존 관리해오던 것을

필자는 전북대학교 건축학과와 같은 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전주에서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건축사로 활동하고 있다. 설계작품으로는 「애일당」, 「주남헌」, 「아중제」, 「마중헌」 등이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내 마음을 두드린 우리 건축」, 「내가 살던 집 그곳에서 만난 사랑」 등이 있다.

이제 우리 전주한옥마을은 또 한 차례 큰 변화의 용트림을 해야만 한다.  
앞으로 더 나갈 것이냐,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또 순수혈통을 보존할 것이냐,  
시대변화에 순응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항복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지금 전주한옥마을에 드문드문 남아있는 불쌍사나운 몰골은 바로 그때의 흔적들이다. 지금이야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 양옥의 출현을 질타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어쩌면 그게 최선의 방어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시대상황을 모르고서는 도시를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고 하는가 보다. 사실 그게 모두 다 우리네 삶의 흔적이자, 도시진화의 한 과정인 것을 어쩌랴?

### 한옥마을 속의 다른 풍경

전주한옥마을에는 정말 한옥만 있을까? 아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간혹 2층짜리 벽돌집이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도 섞여있고, 또 더러는 일본집도 군데군데 눈에 띈다.

한옥이라고 하면 다들 조건반사적으로 아주 저 먼 옛날, 아니 적어도 조선시대 말쯤의 어느 건축물이려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주한옥마을은 근대화의 산물이다. 국운이 급격하게 기울어 가던 20세기 초반, 거의 모든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전주부(全州府) 인근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성벽마저 강제로 철거되게 되자, 성내의 도시구조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된다.

다가동이나 고사동, 중앙동 등의 시내 곳곳에 일본식 건물이 버젓이 등장하게 되고, 다소곳하던 한옥도 이상야릇한 사족(蛇足)을 달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전주한옥마을의 중심도로인 은행로 실개천을 따라 걷다보면, 풍남동 일부지역에는 일본 적산가옥(敵産家屋)이 그동안의 구태를 훨훨 털고 그럴듯한 카페나 가게로 거듭나 있는 풍경을 목도하게 된다.

그래서 전주한옥마을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한옥만 보지 말고, 일본집도 찾아보고, 또 벽돌집이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앞에서도 사진 한두 장 찍어두는 여유를 부릴 줄 알아야 한다.

### 한옥마을의 변화와 미래

지금 각 지역마다 한옥열풍이 불고 있긴 하지만, 정작 그 진원지와 방향은 다소 애매모호하다. 게다가 고조선시대 어느 한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이른바 초기 한옥이, 중국문물을 대거 걸머지고 들어온 낙랑(樂浪)의 수혈을 받아 좀 더 발전의 보폭을 빨리 했다가, 그 후 약 천여 년이 훨씬 넘는 긴 세월동안 그저 약간의 디테일에서만 변화를 보였을 뿐 당대의 주거공간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던, 바로 그 한옥의 정형이 어느 새부턴가 동서양의 문물이 혼재된 모습으로 지금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전주한옥마을은 또 한 차례 큰 변화의 용트림을 해야만 한다. 앞으로 더 나갈 것이냐,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또 순수혈통을 보존할 것이냐, 시대변화에 순응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여기저기에서 공청회 자리도 마련되고, 때로는 이해관계에 얽힌 주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수긍하고 만족하는 대안은 쉽사리 찾아낼 수 없을 것 같다.

하긴, 순수한 주거기능을 더 보장하자는 얘기도 일리가 있고, 상업시설의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어볼만 하다. 또 행정 편의주의를 질타하는 고함은 물론, 아예 주말에는 차량을 전면통제하자는 주장에도 박수를 보낸다. 그게 다 우리 삶을 담아내는 주거공간이 변화 발전해나가는 일련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圖



전주 한옥마을



한국건축산업대전 2012 개막식



# 한국건축산업대전 2013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2013. 10. 23(수)~26(토) Coex 1층 A홀

## 건축전문전시회! B2B전시회! B2G전시회!



전시장 전경



전시장 전경



각종 세미나



우수건축자재추천제 심사

## 행사의 목적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우리협회)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 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 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 지원을 통해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이하 KAFF)은 이러한 협회 설립 목적에 맞는 건축 설계를 건축사들이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축을 짓는다는 건설의 개념에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건축하면 건축사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건설 회사를 먼저 떠올린다.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면 건설 과정에서 절차 없이 자재가 뒤바뀌어 생각지 못한 건물이 태어나기도 한다. 건축사들이 디테일하게 설계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도면에 표기해 많은 변수를 둔 책임도 있다. 구체적으로 재료와 색상, 물성을 지정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현실적으로 자재선택권을 시공사나 건축주가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설계자가 자기 설계에 들어가는 자재의 성질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KAFF는 건축자재에 대해 건축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재 생산자 및 공급자에게 적은 경비로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건축은 공급 위주의 정책 속에서 질이 높아지기가 쉽지 않았다. 건축 설계도 이와 같은 현실에서 경쟁하다보니 건축 자재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모델하우스와 목업, 샘플에 의존하여 설계가 형태에 국한된 경우도 많았다.

우리는 건축은 예술이라고 한다. 예술은 의식주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재다. 공공재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빈부귀천을 떠나 모두가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다. 즉 건축은 소유자는 있으나 사용자를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재인 것이다. 바로 KAFF가 이런 우리 사회의 건축에 대한 공공재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전문가 단체가 개최하는 KAFF에 많은 이들이 와서 그들이 시행하려는 건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취한다면 KAFF의 행사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최근의 추세는 작은 공간의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과 공간의 평수가 회자되는 시기가 있었다. 집은 커지고 식구 수는 줄어드는 사회현상 속에 인테리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 건축자재의 정보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건축사가 자기 설계에 대한 작은 부분까지도 완성도를 높이려면 자재에 대한 정보 취득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KAFF는 건축사들의 건축에 대한 성취동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 행사 개최성과

시대는 항상 변하고 있다. 시기마다 여러 사회적인 요소와 더불어 트렌드 또한 변한다. 지금은 친환경과 녹색건축이 화두이다. KAFF의 개최 목적이 정보 전달이듯, 건축 자재 트렌드도 그동안 사양기반에서 최근 성능 기반으로 뚜렷이 변해왔다. 우리협회의 성능 인정 기준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KAFF를 통해 2회째 '우수건축자재추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서히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 정보 제공의 한 목적을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 건축, 건축사, 협회 홍보효과 및 자재 정보 제공

올해로 8회째를 맞는 KAFF는 전국건축사대회와 함께 가장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석하는 대외적으로 위상이 높은 행사이다. 매년 100여개의 자재업체가 참가하고 3만여명의 방문객들에게 건축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열린마당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전시회를 통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협회의 홍보와 추천자재 총람집인 KAFF 카탈로그를 통해 회원의 정보 제공 및 자질 향상에도 기여하



업무협력 추진식



건축자재전시 사업설명회

고 있다. 특히 우수건축자재추천제는 관련업계의 홍보와 시장개척, 신기술 등 정보교류에 앞장서서 건축자재 DB구축의 초석이 되고자 한다.

**교류 확대, 전시 효과 극대화 및 대외적 위상 강화**

우리협회는 KAFF를 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의 MOU 체결을 통한 건축 관련 분야와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성격이 비슷한 전시회를 통합 개최하여 전시회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올해는 국토교통부와 ‘녹색건축 한마당’을 동시개최, 전시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건축 문화대상, 한국승강기안전엑스포, 스마트그린빌딩엑스포 등 ‘Green City Week’로 전시회를 공동 개최하여 교류의 확대도 가져왔다.

또한 건축사 교육과 미술전, 체험 이벤트 등을 포함하는 전시회를 통해 교육 기회의 제공과 회원 간의 교류의 장도 확대하였다. KAFF

를 통해 건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정부포상제도인 ‘한국건축산업대전대상’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정부, 공공기관, 자재 회사, 건설 관련업체 등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전문전시회로 도약하고 있는 바, 대외적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있다.

**자립적 운영, 우리협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외행사**

KAFF는 우리협회 대외행사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특별회계로 전시회 참가업체의 참가비와 광고비로 자립적으로 운영되어 회원들의 회비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개최되는 바, 회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인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가업체와 전시품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람한다면 입소문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업체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행사규모도 커지고 수익도 발생하여 회원들에게 풍족한 볼거리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년도별 개최결과 Review(2006~2012년)**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주 제	함께하는 건축	건축의 진화, 건축 속의 사람	건축, 삶의 터를 디자인 하다	제로혁명; 친환경건축을 디자인한다	친환경건축의 미래 (Co2 zero, Energy zero, Waste zero)	친환경 건축재료의 발견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 GREEN NETWORK
전시일정	2006.9.13~17	2007.10.2~6	2008.10.7~11	2009.10.7~11	2010.10.20~24	2011.10.27~30	2012.10.23~26
전시장소	코엑스 C홀	코엑스 B홀	코엑스 A홀	코엑스 C홀	킨텍스 3홀	코엑스 A홀	코엑스 C홀
참가업체	89개사	99개사	101개사	98개사	84개사	73개사	75개사
전시규모	237부스	348부스	431부스	282부스	368부스	209부스	240부스
참 관 객	30,400명	37,400명	39,600명	35,921명	28,371명	30,224명	20,183명

### 우수건축자재추천제의 활성화를 통한 건축전문전시회

지금까지 2회에 걸친 추천제로 약50개의 우수 자재가 추천되었다. KAFF는 국내 유일한 법정건축전문단체가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추천제를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자재 정보 구축과 건축사의 자재선택권 확립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또한 추천된 자재가 현장 및 설계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자재업체와의 밀도 있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건축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금년도 행사개요

올해로 제8회인 KAFF 2013은 오는 10월 23일(수)부터 26일(토)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개최된다. 더불어 다양한 동시행사와 건축사교육이 함께 한다.

이번 전시회는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 GREEN FESTIVAL'을 주제로 우리협회가 주최하여 사업위원회와 전시사업팀이 담당하고 코엑스가 공동주관한다. 후원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함께 한다.

동시행사로는 국가건축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녹색건축 한마당'과 '녹색건축대전', '그린리모델링공모전'과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녹색건축박람회, 밸브·파이프·펌프기술산업전이 통합적으로 개최되어 많은 건축건설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방문과 네트워킹이 예상된다.

더불어, 한국건축산업대전대상, 우수건축자재추천심사, 대한민국신인건축사대상, 건축사실무교육 및 건축계,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캐나다우드, 마이다사이티의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다.

KAFF만의 차별화된 강점이자 우리협회만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우수건축자재추천제'는 우수 제품과 기업을 발굴하여 회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전시기간동안 행사에 방문한 건축사 모두가 제품평가에 참여하여 건축사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올바른 자재선택의 길잡이로 새로운 건축트렌드를 만들고자 한다. 2012년부터 제작된 자재총람집 『KAFF CATALOG』가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중이다.

현재 전시회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은 8월 30일까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kaff.biz)에서 확인바란다.

문의는 전시사업팀(T.02-3415-6866/6867)으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www.kaff.biz



조성원 단장, 서용주 이사, 장현수 위원장, 사업위원회 위원\_고순만, 권영주, 김은철, 김성진, 김현미, 서광우, 이규환, 조정만, 주상표

### 위원장 한마디

KAFF 2013이 8회째를 맞이함에 따라 건축사들의 위상과 업무영역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건축사들의 축제 및 교류의 한마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행사는 전국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개최 목적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

건축사들의 권리와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협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관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게 결집된 힘과 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KAFF 2013은 이와 같은 효과를 내기위한 좋은 한마당이 될 것으로 여긴다.

또한 정부행사인 녹색건축한마당이 동참함에 따라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 및 에너지 등 국가정책에 기여하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문가들로서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행사 주제인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 GREEN FESTIVAL'에 맞추어 우리협회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KAFF 2013이 되도록 하자!!!

## 서울국제건축영화제, 5년

건축사가 만드는 영화제!

# 건축을 주제로 세상과 소통하다

### 집·행·위·원·회(가나다순)

윤재선 건축사 / 팀일오삼 건축사사무소(주)\_위원장

김규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좋은 집

김성호 영화감독

김창길 건축사 / 삼정환경 건축사사무소

박혜은 영화평론가

유현준 홍익대학교 교수

최상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개막식 전경



포토타임(유영식감독-양미라-이정호감독)

‘건축, 영화와 만나다’를 명제로 시작된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올해로 5회를 맞는다. 건축영화제는 그간 건축과 영화의 접점을 찾고 이를 통해 국내의 다른 영화제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고유의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 건축사의 브랜드 전략 - 서울국제건축영화제(SIAFF)

사실 건축영화제는 건축사의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려운 건축경기와 예산여건 하에서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한 건축문화이벤트다. 현재 국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화제들이 비교적 큰 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지고 있는데, 건축영화제는 ‘건축사가 중심이 되어 ‘건축’이라는 특정 영역을 테마로 꾸려내는 영화제라는 점에서 비교적 탄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전국영화제 형식이라는 점을 내세울 수 있는데, 대한건축사협회 16개 시도건축사회를 통한 지역 건축문화행사내 건축영화상영 지원으로 전국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건축영화를 통한 GV, HAF 등 교육과 소통의 영화제 형식이라는 점에서 SNS를 즐기는 학생 등 젊은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4년간 1만 여명 관객관람,  
색깔있는 영화제로 오히려 영화계에서 인지도 높아**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4년(2009년~2012년)동안 서울시민과 대중 등 1만 여명의 관객이 건축영화를 관람했고, 평균 관객점유율 60%, 매년 5개국 이상의 총 43편의 건축영화가 상영됐다. 세계 유일의 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국제건축영화제로서 아직 작고 미미하지만 건축영화 수급을 통한 해외건축 네트워크의 고리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건축영화와 더불어 영화제는 건축사들이 관객들 앞에서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대중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HAF(호스트 아키텍트 포럼), 영화인과 건축인들의 상영작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고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GV(관객과의 대화) 등이 매년 마련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것은 곧 영화제 흥행과도 연결되고 있다. 입소문을 타면서 건축영화제는 영화계와 영화인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을 정도.

여기에 건축을 아끼고 사랑하는 셀러브리티들의 네트워크로 건축영화제를 홍보하는 Festival Architect가 선정되어왔다. 제1회 배우 지진희와 박시은, 제2회 배우 변정수, 제3회 배우 박상민과 황우슬혜, 제4회 배우 양미라가 위촉돼 활동하며 영화제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올해 환경영화제와 함께 더 다양한 건축영화 상영예정,  
국토교통부 예산지원 확정**

특히 올해는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서울환경영화제와 함께 이전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건축영화를 선보이며,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테마를 펼쳐 보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를 통한 예산확충으로 외형확대를 이룰 수 있게 됐다.

**경쟁부문 신설, 장기비전 갖고 시행**

이전까지는 영화상영, HAF·GV로만 영화제 내용이 구성됐다. 미래의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건축콘텐츠 생산, 국제교류를 겨냥한 건축필름 경쟁부문 신설 비전을 갖고 준비중이다. 이른바 국제건축영화경선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충이 선결돼야 해서 정부 및 서울시의 영화제 예산지원, 고정 기업스폰서 개척 등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건축필름 경쟁부문은 장편 및 단편대상, 심사위원 특별상 등을 제정해서 최근 2~3년 사이 제작된 국내의 영화제 작품작 가운데 건축관련부문 영화로서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한국건축영화경선이라는 경쟁부문도 도입하여 본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한국작품 가운데 국제건축영화경선의 출품조건을 만족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우수건축영화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건축의 숨결로 영화를 가다듬고  
영화의 빛으로 건축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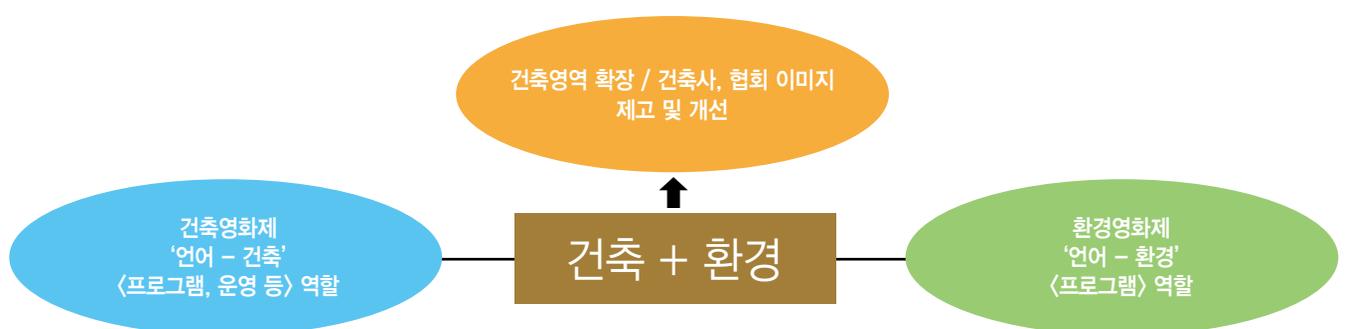
건축영화제는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얼마든지 성장, 발전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대중의 큰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영화에서 건축은 무시 못할 스펙터클로 견고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어 다른 어떤 영화제보다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유일무이한, 한국 건축을 보다 넓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축영화제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올해 영화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 이화여대 ECC내 아트하우스 모모 2개관에서 6일간 열리게 된다. 자세한 일정은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웹사이트(www.siaff.or.kr\_곧 업데이트 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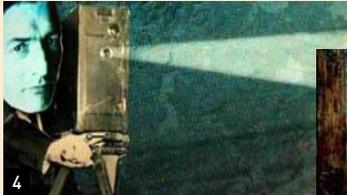
**건축영화제 장기비전**



**향후 영화제 운영구성도**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상영작 Review(총 43편)

구분	1회	2회
주제	건축사(The Architects)	링크(Link) 건축과 사람, 건축과 역사, 건축사와 사회의 연결고리와 관계를 탐색
상영작	<p>1. 마천루 2. 프랭크 게리의 스케치 3. 마이 아키텍트 4. 램 콜하스 : 도전과 혁신 5. 노먼 포스터와 거킨 빌딩 6. 취화선</p> <p>6편</p>      	<p>1. 비주얼 어쿠스틱스 2. 건축사의 배 3. 성가신 이웃 4. 프라하의 눈 5. 시티즌 아키텍트 6. 나의 놀이터 7. 콜하스 하우스 라이프 8. 기무 9. YTN스페셜 : 한국건축문화 60년</p> <p>9편</p>         

전 세계 건축과 디자인분야 영화제 들여다보기(정기개최 영화제)

● Winnipeg, Canada

캐나다 위니펙에서 열리는 '건축+디자인영화제'는 일상에서 건축과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초점을 맞춰 호평을 받은 영화를 선정해 상영한다. 영화는 건축과 도시디자인에서부터 그래픽과 상품디자인까지 디자인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범위를 아우른다. 2012년에 시작된 영화제는 매년 5월 개최 예정이다.

● Aix on Provence, France

'Le festival Image de Ville'은 매년 11월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지역에서 열리는 영화제다. 도시개발과 토론, 프랑스 영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영화제는 토론대회와 다소 섞인 형태다.

● Antwerp, Belgium

AFFFA는 매년 11월 벨기에 안트워프에서 열리는 작은 영화제다. Klappei cinema가 관장한다.

● Auckland, New Zealand

Resene 건축과 디자인 영화제는 2012년 5월에 처음 개최됐다.

● Budapest, Hungary

매년 3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건축영화의 날이 진행된다. "로테르담건축영화제에서 영감을 받아 2007년 KÉK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영화의 날'의 목적은 영화에서 영감을 얻은 건축적 작업과 건축과 도시로부터 주제를 빌려온 영화의 대화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 Denver,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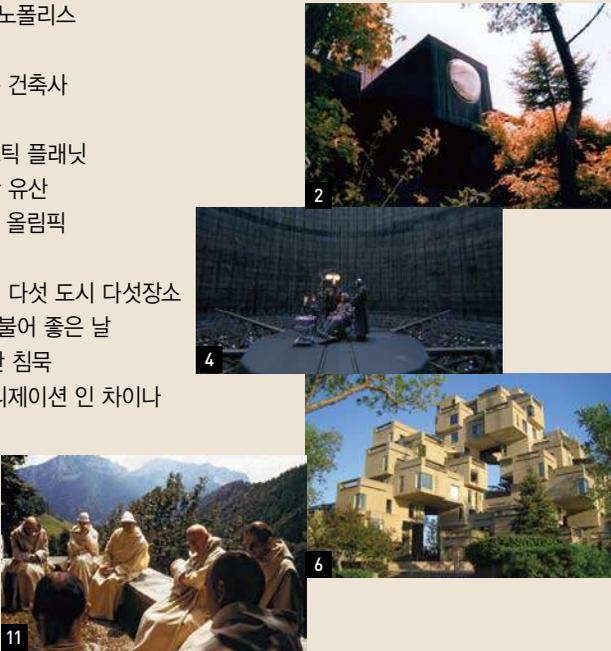
미국 덴버에서 열리는 '건축+디자인 영화시리즈'는 Design on Screen가 기획한 건축과 디자인분야를 다루는 최고의 영화를 선정한다. "영화제는 다이내믹한 영화제작자들과 건축사 및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활발한 토론을 포함해 9개의 특별한 영상이벤트를 진행한다."

● Dublin, Ireland

2011년 5월 1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첫 번째 건축영화제가 열렸다. 아일랜드 건축재단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The Fourth Wall은 영화제작의 기본구조 안에서 주인공과 적극적인 참여자가 건축을 드러낸다. 이것은 영화의 몰입도와 서사능력을 연결한다. 순수한 다큐멘터리 도구로서 눈으로 보는 수단보다는, 규정하기 힘들더라도 영화가 본질적인 건물의 수준과 환경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고려하도록 자극시킨다. 건축적 장소와 공간의 풍요로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 시리즈는 세속적 그리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또한 기억과 허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건축물에 거주하는지에 대한 전 개념에 질문하고 도전한다. 이 시리즈의 많은 영화들은 아일랜드에서 상영된 적이 없는 것들이다."

● Eindhoven, the Netherlands

매년 9월 디자인위크 동안 '영화+디자인 페스티벌'이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서 열린다. "페스티벌은 네덜란드 디자인위크 동안 개최될 것이다. 2010년 대규모의 성공적인 첫 개최 이후 수백만의 방문객과 강력하고 흥미로운 디자인 영화, 에인트호벤에서 터

3회	4회
<p><b>비트윈</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프루이트 아이고</li> <li>2. 인사이드 피아노</li> <li>3. 죽은 자의 정원 : 카를로 스카르파</li> <li>4. 유토피아 런던</li> <li>5. 빌딩 173</li> <li>6. 메구니카</li> <li>7. 192-399 더블어 사는 집 이야기</li> <li>8. 요른 웃존의 시드니오페라하우스</li> <li>9. 100명의 여성 건축사 : 라이트 스튜디오</li> <li>10. 증오</li> <li>11. 도시</li> <li>12. 일주일</li> <li>13. 일렉트릭 하우스</li> <li>14. 폭풍의 밤</li> <li>15. 로베르토 : 재미 건축사</li> <li>16. 픽셀</li> </ol> <p>16편</p> 	<p><b>도시</b> 삶이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도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에쿠메노폴리스</li> <li>2. 코추</li> <li>3. 말하는 건축사</li> <li>4. 브라질</li> <li>5. 판타스틱 플래닛</li> <li>6. 위대한 유산</li> <li>7. 상계동 올림픽</li> <li>8. 모래</li> <li>9. 하루에 다섯 도시 다섯장소</li> <li>10. 바람 불어 좋은 날</li> <li>11. 위대한 침묵</li> <li>12. 어바니제이션 인 차이나</li> </ol> <p>12편</p> 

치다운한 페스티벌은 올해 몇몇 지역에서, ‘영화+디자인 페스티벌’은 동시대 디자이너들의 작업과 삶에 대한 영화를 상영한다.”

● Florence, Italy

BEYOND MEDIA는 현대건축의 전 세계적으로 공헌한 가장 최근의 시각에서의 주요 행사이자 건축과 미디어 사이에 존재하는 강력한 관계들의 결과물 중 하나다. “BEYOND MEDIA는 건축과 관련된 영상물을 상영하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행사다. 이것은 건축의 최신 시각 및 프로젝트와 미디어 관계의 논쟁에 공헌한다. 페스티벌은 1997년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처음 개최됐다. 건축(경제적 시나리오와 혁신 과정에서 문화적 구조를 구축하는 참가자)과 현장조정, 기술, 건축 연구영역의 시리즈를 차례차례 발전시키는 미디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탐험한다.

● Rotterdam, the Netherlands

로테르담건축영화제는 2년마다 홀수년도 10월에 개최된다. 단편과 다큐멘터리 100여 편에 이르는 영화가 상영되며, 영화제 4일 동안 국내외 5000여 명의 관객이 모여들어 토론과 토크쇼, 투어 등이 진행된다.

● Istanbul, Turkey

이스탄불국제건축도시영화제는 매년 10월 개최된다. 건축문화 개발과 역사적 유산보호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 Lund, Sweden

룬드건축영화제는 스웨덴 Lund에서 매년 10월 개최된다. 圖

윤재선 집행위원장 인터뷰

● 현재 건축영화제 진행상황에 대해

올해 영화제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람들에게 “아!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꼭 필요하고, 유익하구나”라고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건축과 영화에 관련된 집행위원들을 모셔 실질적인 준비와 결정을 하고, 각 학계와 타 분야의 인사들을 찾아 물어가며, 의견을 듣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만나 빈 분들이 호의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주고 있어 점점 우리 영화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영화제는 영화와 건축계의 사람들만으로는 힘들다는 결론 속에 이 같은 여러 분야의 분들을 모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핵심적인 인물들, 즉 오피니언 리더들을 구성하여 그 역량을 모으고자 합니다. 왜 그리 요란하게 준비하느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건축영화제가 가지고 담는 담론들을 준비하고, 얘기하고, 논하고, 추려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회의 가치들을 모아 서로 느끼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 건축영화제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건축과 영화가 하나의 단편적인 분야라는 인식을 넘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 시대의 세계관과 삶이 담겨지는 그래서 미래의 삶을 이끌어갈 인프라를 구축하는 통합적 가치들을 담을 수 있는 장으로 발전되어야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이고, 그래야만 건축영화제가 비로소 역할을 다하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며 다자의 가치가 함께하는 공존의 미학을 추구하는 새로운 장이 대한민국 서울에, 2013년 10월31일에 시작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서 펼쳐진다는 즐거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나가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 청담동 청하빌딩

## CHUNGHA BUILDING, CHUNGDAMDONG



**설계자 | 김창록\_KIRA** | (주)아이앤씨 건축사사무소 + MVRDV

김창록 건축사는 동의대 건축공학과 졸업, 연세대 건축공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거현건축 및 건원건축에서 근무하며 저작물로는 『내 Remodeling (2006, 구미서관)』이 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기술위원회 부위원장과 동서대 환경디자인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며, 아이앤씨건축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Location** | 100-32,100-33 Cheongdam-dong, Gangnam-gu, Seoul, Korea

**Structure** | R.C, S.C

**Structural Engineer** | I'ST Structure Solution

**Finishing Materials** | Exterior\_Ceramic mosaic tile

- 설계팀 : 이재훈, 이보람, 이안나, 동진주, 최은애\_아이앤씨건축  
 위니 마스, 야곱 판 리스, 나탈리 드 브리스, 포케 모에렐, 이교석, 석대희, 모니카 코왈룩, 사라 비엘케, 페르드 판 데르 필\_MVRDV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아이스트

**건축주 | (주)운남매니지먼트**

**시공사 | (주)아인종합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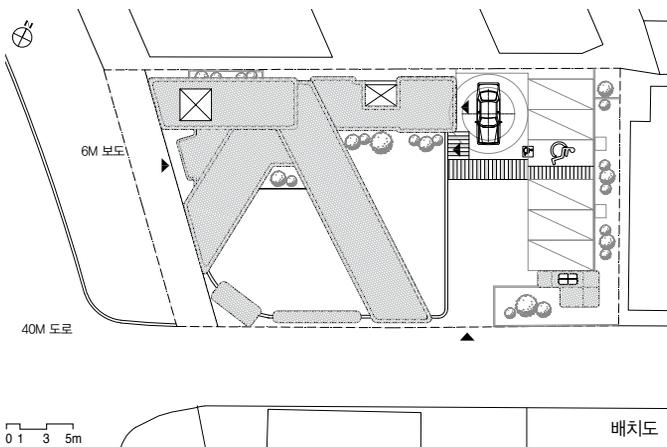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0-32, 100-33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709.60㎡  
 건축면적(Building Area) | 351.12㎡  
 연면적(Gross Floor Area) | 2,820.3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9.48%  
 용적률(Floor Area Ratio) | 246.74%  
 규모(Building Scope) | B2 - 6F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1. 10 ~ 2012. 5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5 ~ 2013. 5  
 사진(Photographer) | Kim, Chang-rock / Sin, Kyung-sub

**Client** | WOON-NAM MANAGEMENT co., LTD.

**Architect** | Kim, Chang-rock

**Project team** | Lee, Jae-hoon / Lee, Bo-ram / Lee, An-na / Dong, Jin-joo / Choi, Eun-ae\_Inc Design Group  
 Winy Maas, Jacob van Rijs and Nathalie de Vries, Fokke Moerel, Kyosuk Lee, Daehee Suk, Monika Kowaluk, Sara Bjelke, Ferdjan van der Pijl\_MVRDV

**General Contractor** | Ain Construction co., LTD.



처음 이 프로젝트를 접할 때 클라이언트로 받은 주문은 단순한 외관의 개선이었다. 그러나 청담사거리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쪽으로 휘어지면서 오르막을 가진 사이트 주변 여건 및 기존 건축물의 파사드는 외관 개선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여러 번의 디자인 협의가 있었지만 늘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기존 건축물의 문제점과 특징, 클라이언트의 요구에만 집착한 나머지 청하빌딩의 주변 환경과 그 장소성에 대한 것을 간과하고 말았다.

MVRDV의 청담동 청하빌딩 디자인은 매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의 출발이었다. 단일브랜드로 단일 매스를 가진 주변 브랜드숍에 대응한 멀티브랜드 스킴으로서의 쇼케이스는 매우 매력적이었다. 클라이언트는 매우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평가하면서 디자인 자체에 대하여는 거부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시공성 및 실현성 부분에서 걱정을 하였다.

시공성 부분에서는 디자인을 맡은 MVRDV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던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민거리였다. 특히 쇼케이스의 제작은 많은 고민을 하게하였다. MVRDV에서 Detail을 제안하였으나, 현장 여건과는 맞지 않았고, 적용하기에는 비용이나 기간 면에서 너무 부담스러웠다.

쇼케이스의 제작은 18개 쇼케이스 중 가장 작은 박스의 1:1 시험제작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처음 예상과는 달리 제작 방법에 대한 Detail정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FRP, 스티로폼, PC 등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쇼케이스 자체 무게보다는 유리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구조여야 했으며, 외장타일 마감면의 균질한 품질이 우선이었다.

쇼케이스는 MVRDV와 스카이프 미팅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샘플 제작과정에서 곡면 부분의 처리 및 철 구조물의 부착 부위에 따른 부착공법 등은 공사 과정에서 실시간 케이스 스터디를 거쳐 진행되었다. 쇼케이스는 건축물 우측(6m도로변) 시험제작된 것부터 부착에 들어갔다.

쇼케이스의 제작후 최종 마감면을 위한 바탕면은 대부분 갈바늄으로 시공되었다. 기존 화강석 외장재를 걷어낸 이후의 콘크리트 바탕면은 엉망이었다. 균질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외벽면에 금속 프레임 설치하였고, 갈바늄으로 바탕면을 완성하였다.

최종 외장재는 자갈형태의 모자이크 타일(300X300)이다. 당초 안은 둥근형태의 모자이크 타일이었으나, MVRDV 야곱의 현장 방문 시 샘플링을 위해 현장에 보낸 중이었던 자갈형태의 모자이크 타일을 본 야곱에 의해 최종 외장재가 변경되었다. 야곱은 원형 모자이크 타일보다 더 완성된 느낌을 줄 것 같다는 의견을 내 놓으면서, 꼭 적용되기를 희망했다. 기존 타일 보다는 원가면, 시공면에서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



이트성형외과

SAVILE ROW  
Lael

골든뷰 성형외과

LOUIS QUATOR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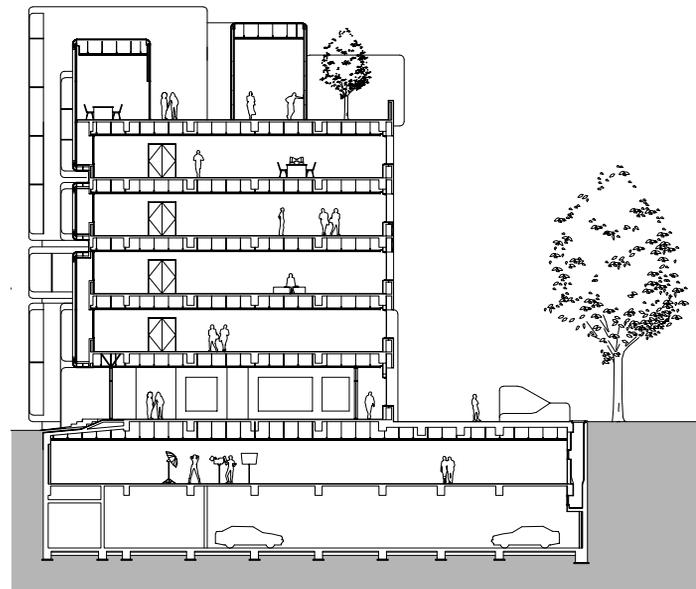


LOUIS QUATORZE

강남



입면도



단면도



건너편에서 바라본 전경



1층에서 바라본 전경



6층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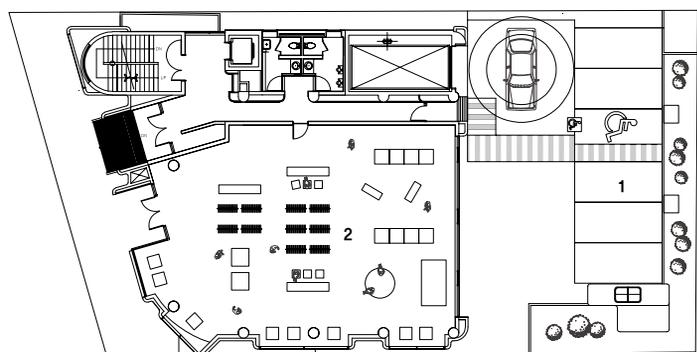


6층 루프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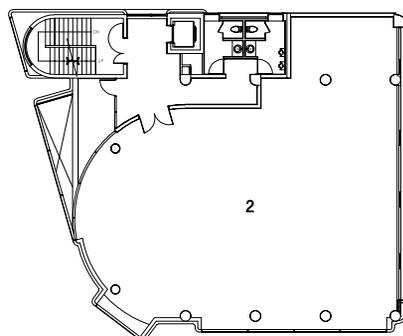


옥탑층에서 바라본 압구정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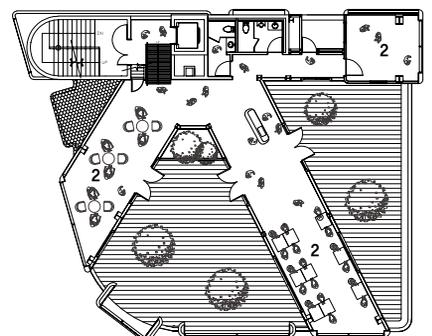
- 1. 주차장
- 2. 근린생활시설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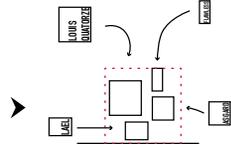
6층 평면도

0 1 3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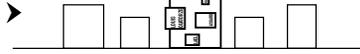
The chung ha showcase



The apgung ro is a collection of single brand buildings



The chung ha building is a collection of brands in itself buildings



The multi branding showcase

The multi branding fac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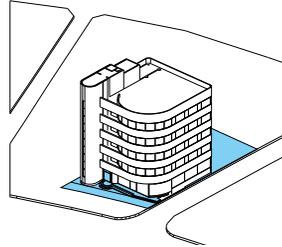
Each box has it's own function: a window, an add, a showcase, an entrance ect

LED 조명 변화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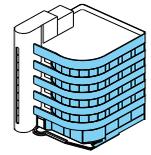


1층에서 바라본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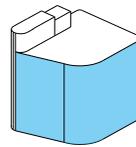
Diagram of treat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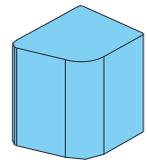
1. Treatment of street lob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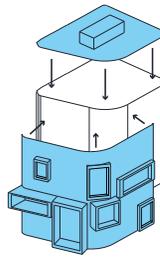
2. Stripping of fac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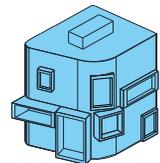
3. Simplify volume



4. Extrude volu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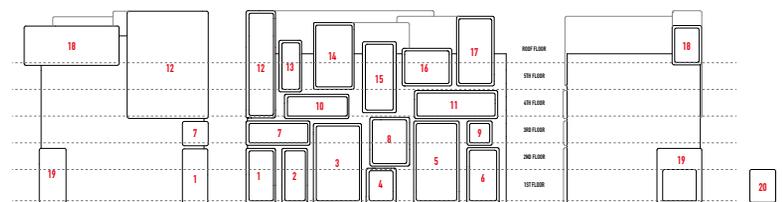


5. Wrap fac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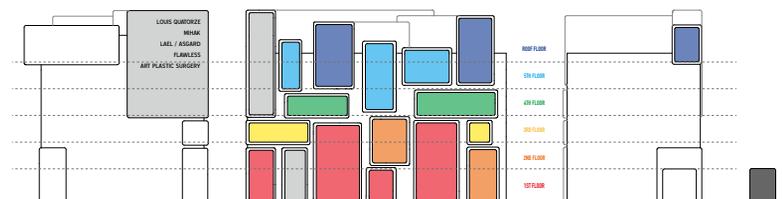


6. New facade with showcases

Box numbers



Ownership





WORKS

히든베이 호텔  
HIDDEN BAY HOTEL





# 히든베이 호텔



**설계자 | 이원호\_KIRA | (주)상지 종합건축사사무소**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주)상지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이태원테라스하우스, 노보텔 강남, 노보텔 독산, 대구 인터볼고호텔, 수원 라마다호텔 등이 있다.

- 설계팀 : 이한남, 권혁복, 강민경, 유수종
- 현장 : 박용배, 박민창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아크필 구조
  - 설비분야 : (주)원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우림전기
  - 토목분야 : (주)시원 이앤씨

**건축주 | 흥해개발주식회사**

**감리자 | (주)상지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고려개발(주)**

대지위치 | 전남 여수시 신월동 1804외 2필지

주요용도 | 관광숙박시설(특1급)

대지면적(Site Area) | 24,563.5㎡

건축면적(Building Area) | 2,303.42㎡

연면적(Gross Floor Area) | 17,969.0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9.4%

용적률(Floor Area Ratio) | 43.83%

규모(Building Scope) | B2 - 10F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마감재 | 커튼월, T30현우암, AL쉬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0. 05. ~ 2010. 1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01. ~ 2012. 04.

**Client | Honghae Development Corporation Co., Ltd.**

**Architect | Lee, Won-ho**

Project team | Lee, Han-nam / kwan, Hyeok-bok / Kang, Min-kyung / Yoo, Soo-jong

**General Contractor | Korea Development Corporation Co., Ltd.**

Location | 1804, sinwol-dong, Yeosu-si, Jeollanam-do, Korea

Structure | 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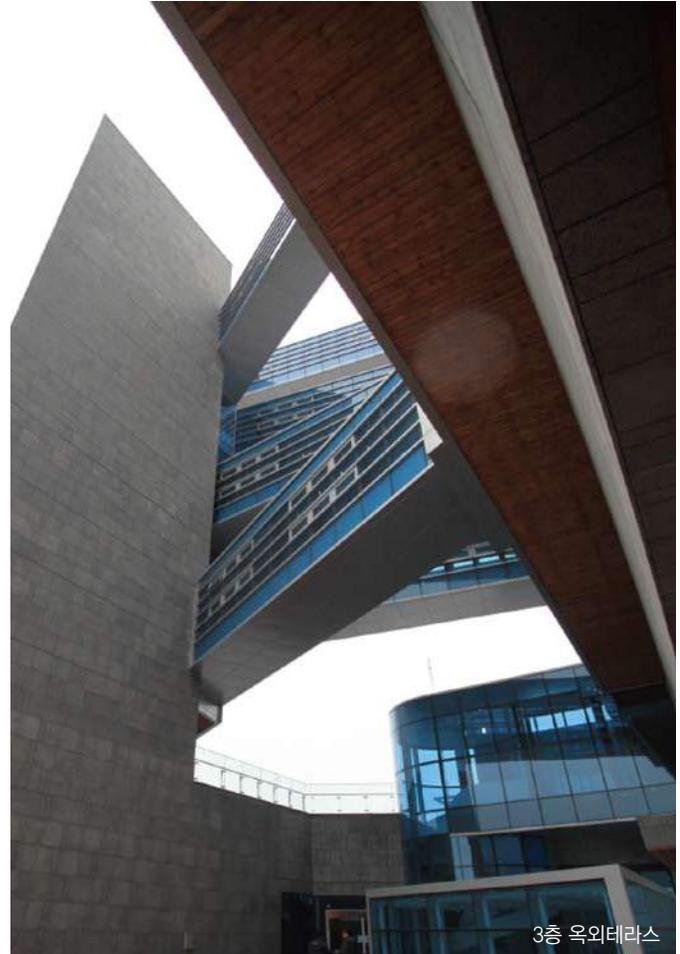
Structural Engineer | ARCH-FEEL Structural Engineering

HVAC Engineer | JOOWON Engineering Consultants

Electrical Engineer | WOOLIM Electrical Engineering

Civil Engineer | SIWON Engineering Consultants

Finishing Materials | Curtain wall, T30 basalt, AL sheet



3층 옥외테라스

## 땅, 바다, 호텔, 사람과...

프로젝트 설계는 대지형상에 대한 해석으로 시작하여, 호텔 사용자와 대지 그리고 바다와의 관계 설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돌출된 경사 대지와 동서방향으로 전개되는 남해바다는 바다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형태의 컨셉으로 설정되어 대지의 활용성과 사용자의 사용방향성을 유도하였다.

## 호텔에 바다를 담다...

데크, 옥외 가든 및 오픈 공간은 내, 외부 공간의 중간영역과 바다와 대지의 연결고리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며, 리조트 호텔의 열정적 전이공간으로 사용되도록 설계했다.

## 삼각형으로...

삼각형 형태의 건축 구성은 각 면을 석양 바다 측, 일출 바다 측, 진입 대지 측으로 구분하고 바다 측면에서는 유리마감으로 바다처럼 투명하게, 진입 대지 측에서는 돌마감으로 대지처럼 매시브하게, 하늘과 동, 서 두 매스의 연결 브릿지 사이로 건축물과 하늘이 시각적으로 소통하게, 진입 1층 부분은 삼각형 삼면을 유리로 설정하여 진입대지에서 실내로, 실내에서 데크로, 데크에서 다시 바다로, 시각적 공간적 장소성 및 공간 인지의 확장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했다. 각각 다른 요소의 삼각형 입면구성은 바다와 육지 사이의 아이콘 및 해안도로에서의 진행 오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SHINJU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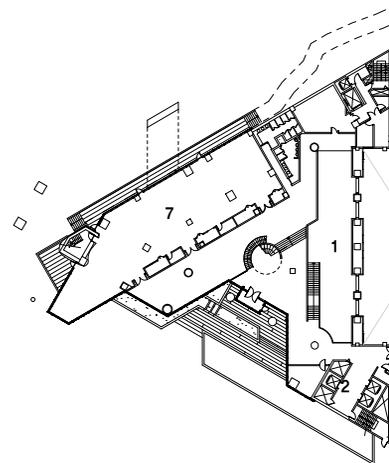
여수바다에서 본 북서측면



여수바다에서 본 남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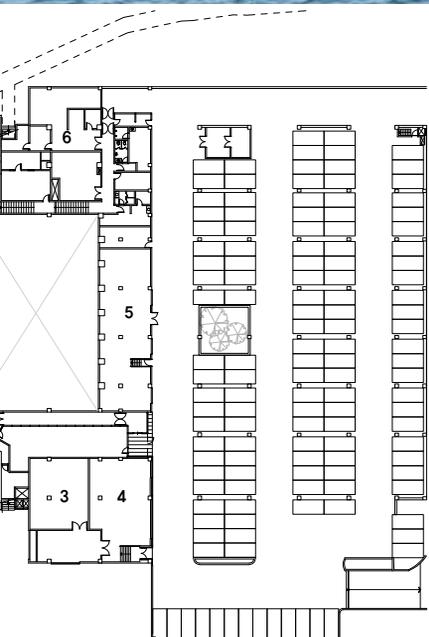


여수바다에서 본 서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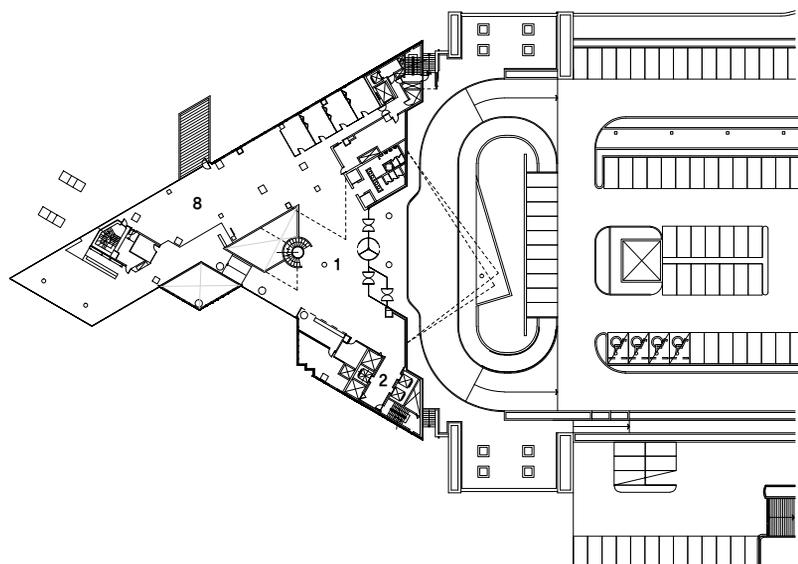




여수바다에서 본 동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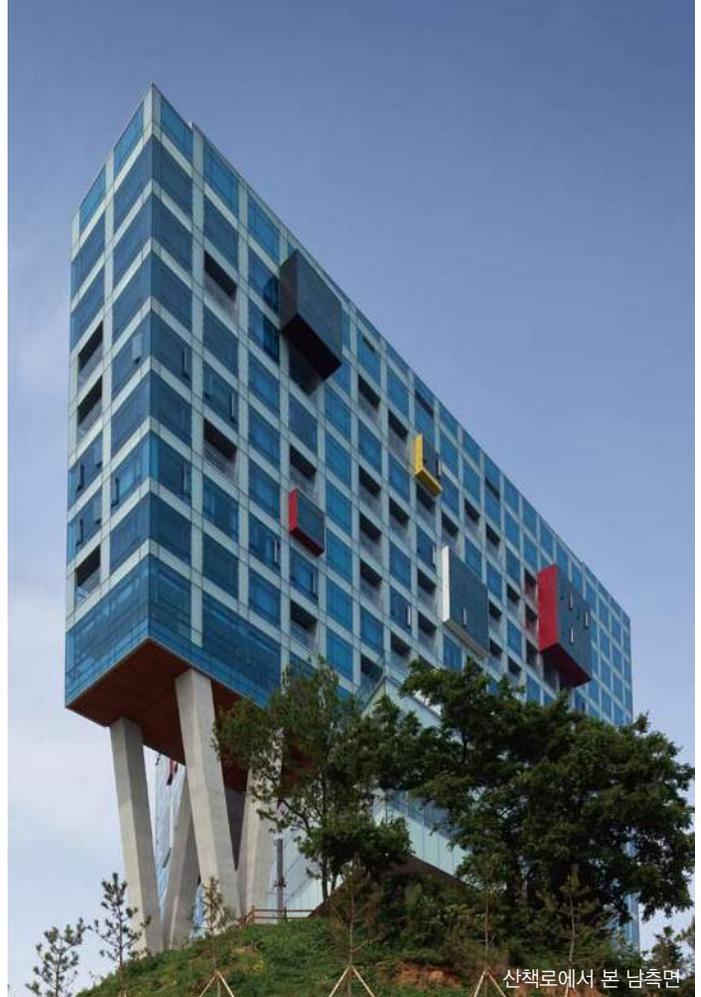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 홀
2. ELEV.홀
3. 전기실
4. 기계실
5. 공조실
6. 린넨창고
7. 소연회장
8. 비즈니스 라운지



2층 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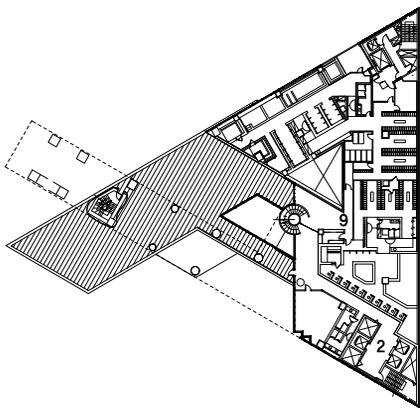


지하주차장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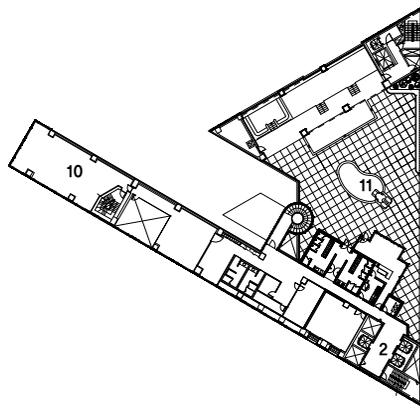
2. ELEV 홀  
9. 사우나

10. 휘트니스 센터  
11. 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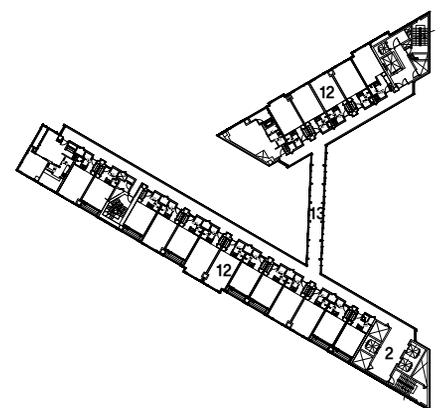
12. 객실  
13. 브릿지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객실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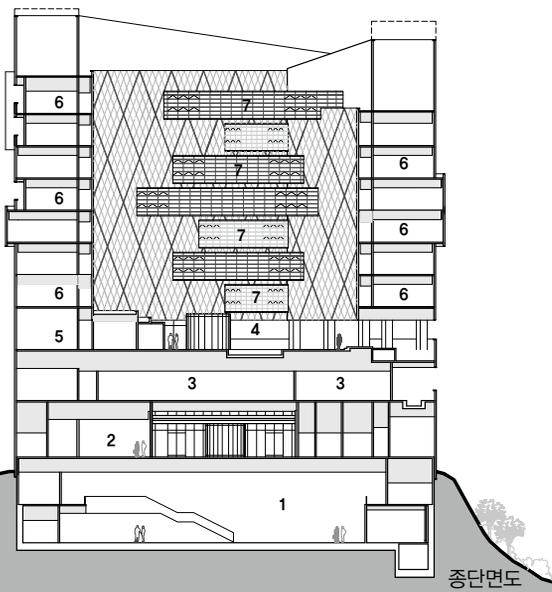
연회장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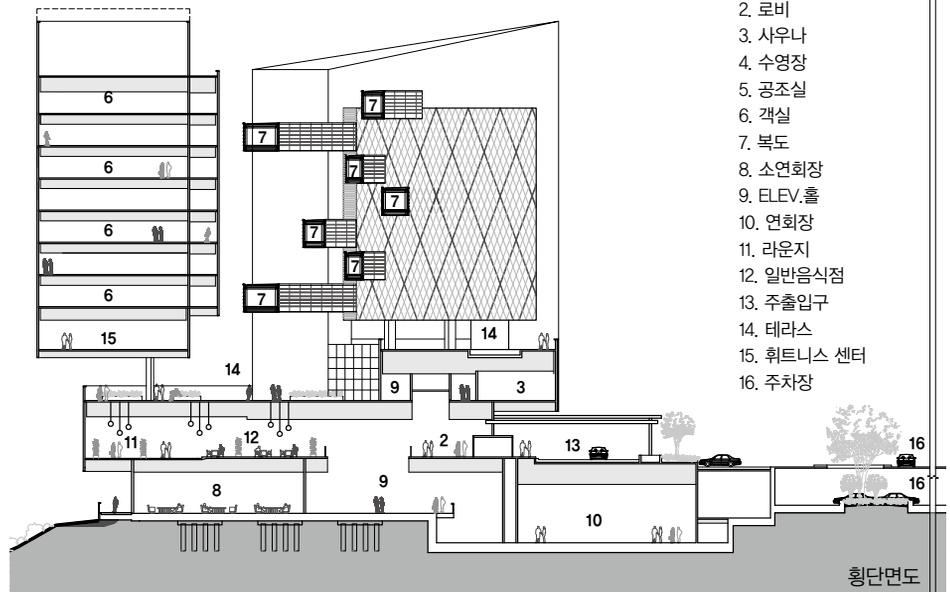
라운지/바



객실전경



중단면도



횡단면도

1. 연회장 로비
2. 로비
3. 사우나
4. 수영장
5. 공조실
6. 객실
7. 복도
8. 소연회장
9. EL.EV.홀
10. 연회장
11. 라운지
12. 일반음식점
13. 주차입구
14. 테라스
15. 휘트니스 센터
16. 주차장

# 자자 호텔

## ZAZA HOTEL



**설계자 | 강계숙 KIRA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국립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계획 석사를 취득했다. 희림건축, 에이텍건축, 가와건축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및 충남 도시·건축 심의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대표이사이다. 주요작품으로는 천안 남천안 교회, 천안 문메디컬 센터, 아산 탕정면 행정복합사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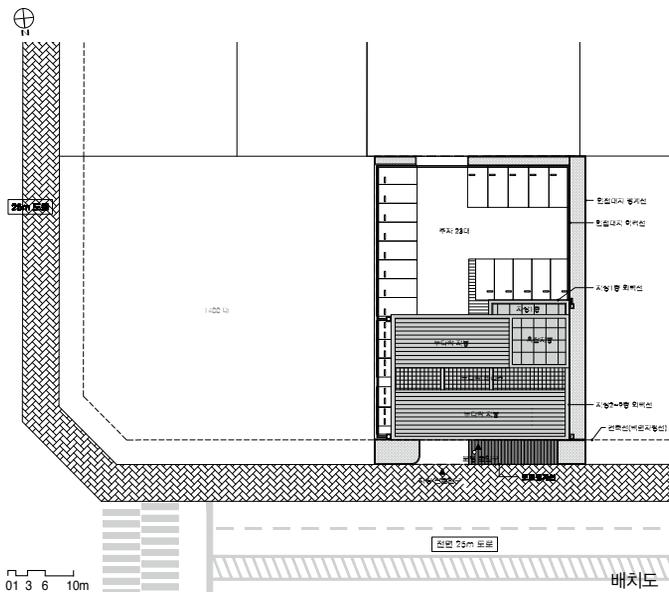
- 설계팀 : 이동훈, 곽연희, 이재종, 윤경원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모아구조기술사사무소
  - 기계설비·전기분야 : (주)대림엔씨
  - 인테리어분야 : 디자인큐어

**건축주 | 개인**

**감리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에스그룹**

**시공사 | 광천종합건설(주)**

대지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399  
 주요용도 | 숙박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979.20㎡  
 건축면적(Building Area) | 332.31㎡  
 연면적(Gross Floor Area) | 2,731.6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3.94%  
 용적률(Floor Area Ratio) | 265.72%  
 규모(Building Scope) | B1 - 9F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현무암, 칼라복층유리, LED조명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02 ~ 2012. 05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05 ~ 2013. 02



**Client | Private**

**Architect | Kang, Gye-suk**

**Project team | Lee, Dong-hoon / Kwak, Yeon-hui / Lee, Jae-jong / Yoon, Gyeong-won**

**General Contractor | Kwang Chun struction.,Ltd.**

**Location | 1399, Seongjeong-dong, Seobuk-gu, Cheonan,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MOA & Consulting Engineers.,Ltd.**

**HVAC & Electrical Engineer | Daelim MEC.,Ltd.**

**Interior | Design Cure**

**Finishing Materials | Exterior\_Basalt, Color glass, LED lighting**

이 프로젝트의 건축주는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보기 드문 세련되고 심플한 고급 비즈니스형 숙박시설을 지어보고 싶다.' 는 요청이 첫 번째였다. 결과적으로 건축주와의 원활한 건축적 의사소통이 가능했기에 인근지역과 차별화된 건축이 가능하였고, 공간의 여유로움과 각 실마다의 독특한 설계를 할 수 있었으며, 전체에서부터 세심한 부분까지 고민을 하며 재미있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대지현황** 본 대지는 숙박시설이 밀집한 천안시 성정동 성정공원 5로에 자리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천안·아산 지역의 상업 요충지이며 인구밀도가 높고 다채로움과 새로움이 요구되는 장소이다. 주변은 8~10층의 다양한 형태와 재료, 각양각색의 간판색상들로 채워진 상업건물이 인접하고 있다.

**재료계획** 주변현황을 고려한 단아하고 간결한 형태로 차분하고 중후하면서도 부드러운 현무암이 주요외장재가 되었다. 개방감을 강조한 유리 커튼월과 더불어 야간 LED조명이 주는 리듬감을 조화시켰다.

**공간계획** 건물의 1층 외부는 차량 진출입을 고려한 필로티 공간과 주출입 공간으로 구분되며 갤러리형 매개공간을 지나, 프론트데스크에서 만나는 내부 로비 공간은 이담한 레스토랑과 함께 만남과 휴식을 제공한다. 2층부터 9층까지는 휴식 위주의 모던한 가구를 흑백의 명도조절 이용해 차분하게 배치하고 친환경 소재인 석재와 목재를 부분적으로 조합하여 변화와 조화를, 그리고 직·간접 조명을 활용해 공간을 채우고 비우며 다양하게 연출하였다. 최상층은 하늘로 열린 복층구조의 가족형 객실로 테라스공간을 활용한 가든파티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고 스파도 가능케 하였다.

서비스를 목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 등의 설계를 의뢰하는 건축주들은 일반적으로 법적 최대의 용적과 경제적 공사비를 요구한다. 본 프로젝트는 건축주와의 유연한 관계로 건축물의 만족도와 아이덴티티를 높였다. 추후 충남지역에 2호, 3호... 로 이어지는 새로운 숙박시설의 건축문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ZAZA HOTEL  
DESIGN HOTEL EPISOD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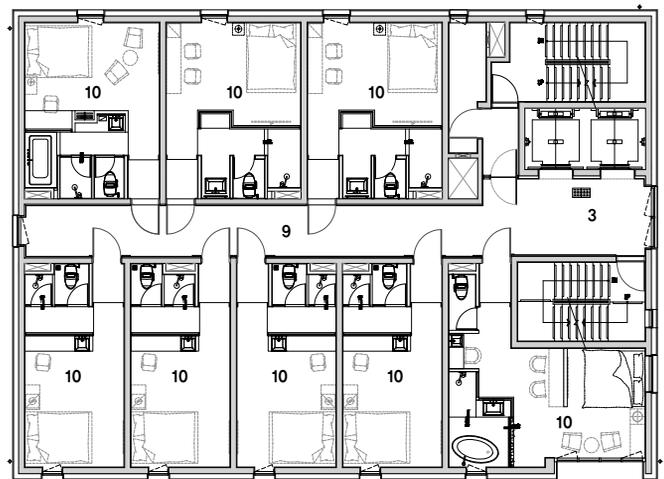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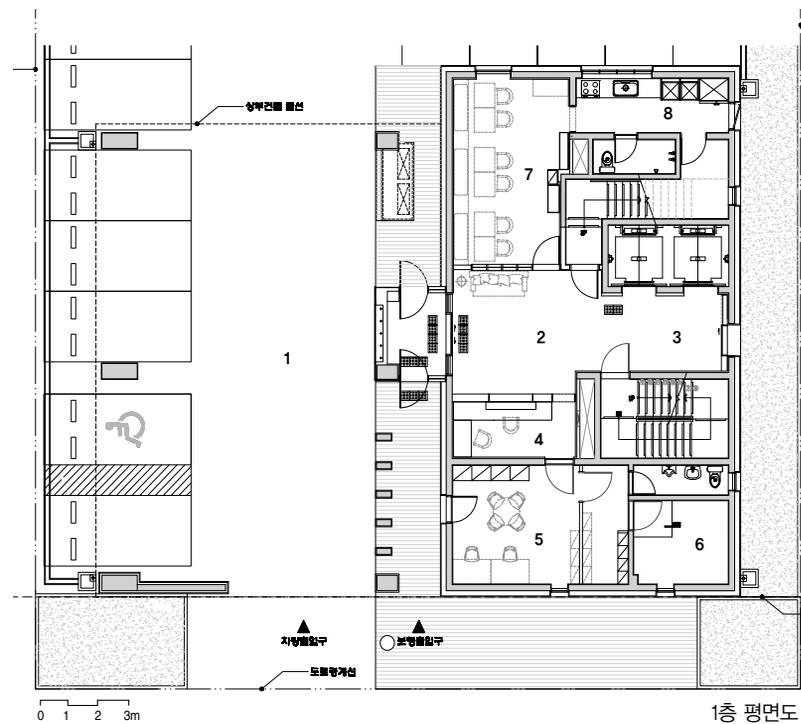
ZAZA  
HOTEL  
DESIGN HOTEL EPISOD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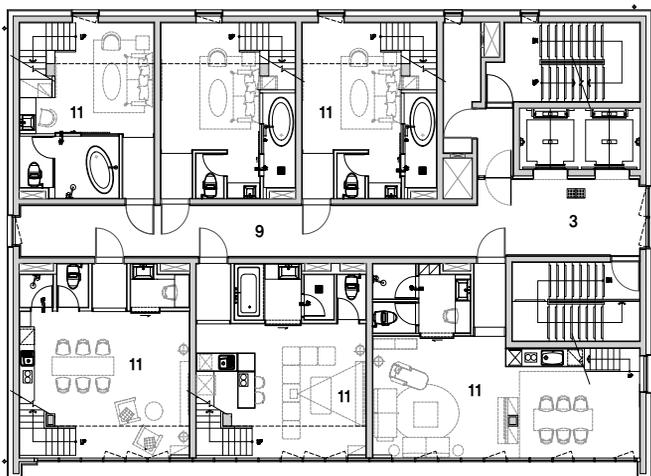
ZAZA HOTEL  
GORD

ZAZA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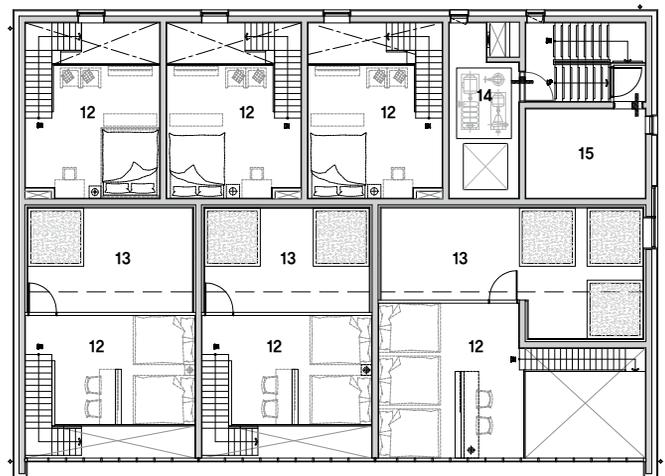
ZAZA

전면도로에서 바라본 자자호텔 전경





1. 주차장
2. 로비
3. 홀
4. 안내
5. 사무실
6. 직원휴게실
7. 식당
8. 주방
9. 복도
10. 객실
11. 복층형 객실
12. 누다락
13. 테라스
14. 물탱크실
15. ELEV. 기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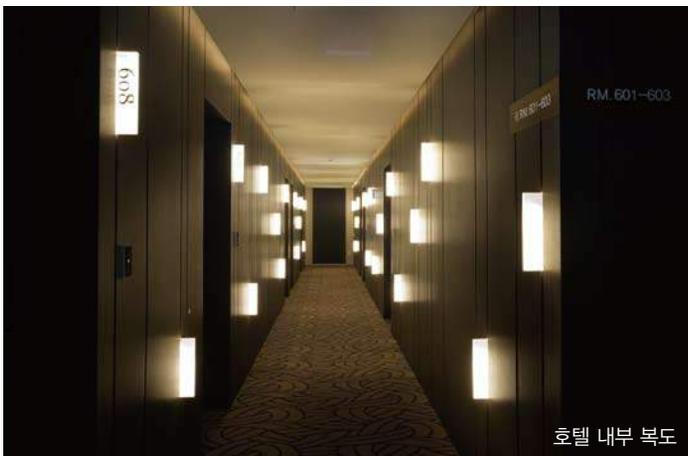


9층 평면도

누다락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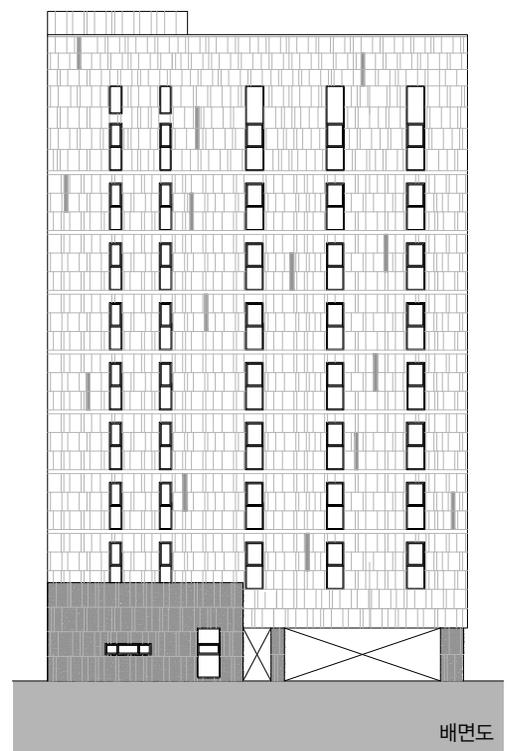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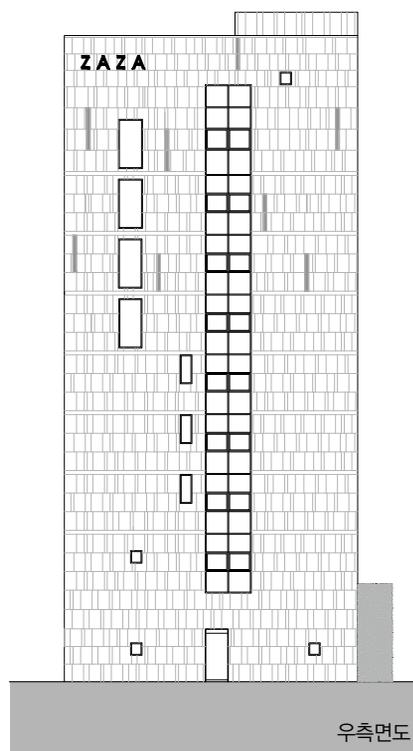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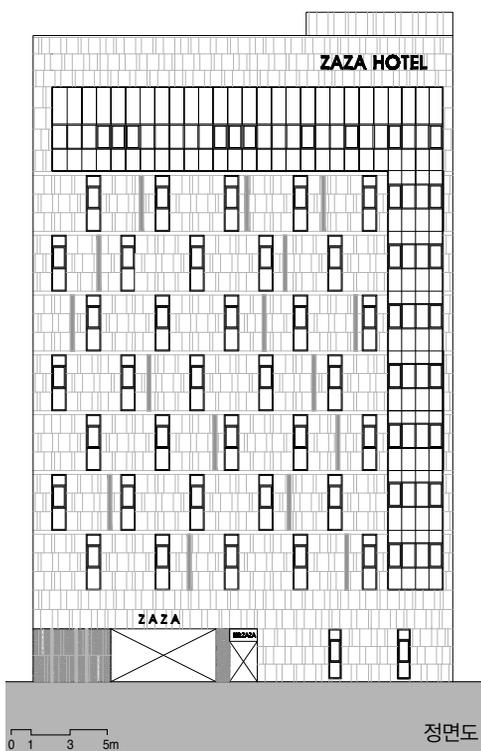
호텔 프론트 데스크



호텔 내부 복도



객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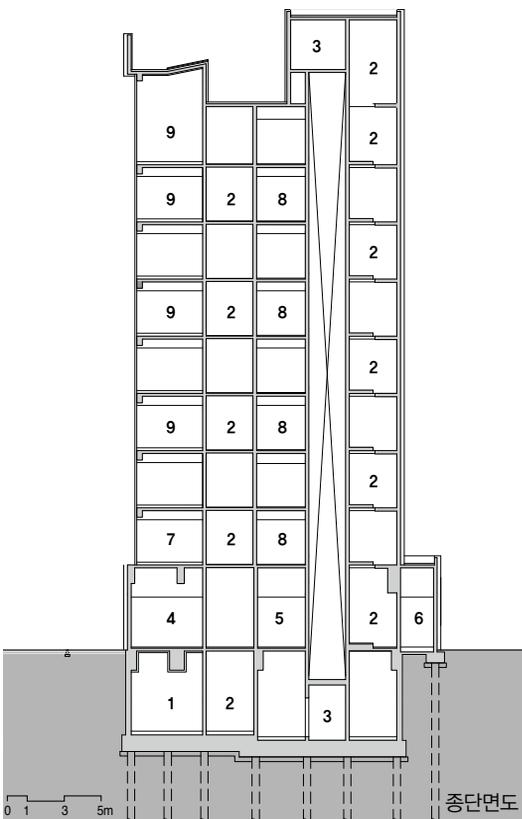
객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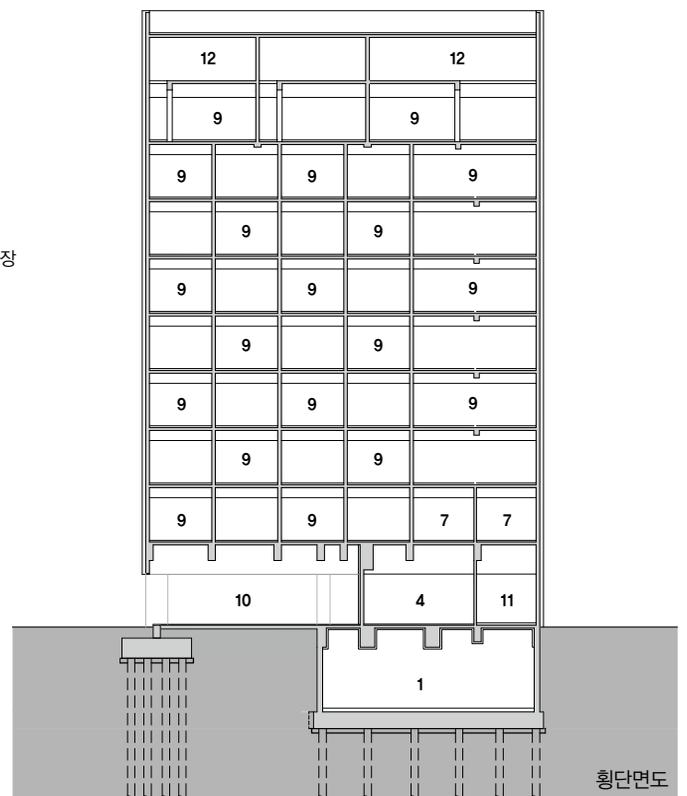
복층형 객실 누다락



누다 테라스락



1. 전기실
2. 계단
3. 기계실
4. 사무실
5. 로비
6. 주방
7. 직원숙소
8. 홀
9. 객실
10. 필로티 주차장
11. 휴게실
12. 누다락



# 대천김 공장

## DAECHON SEAWEED FACTORY



**설계자 | 백상기\_KIRA | 건축사사무소 강산**

국립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위원, 보령시 건축위원회 위원, 보령시 디자인위원회 위원, 국립 한밭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남 보령에서 건축사사무소 강산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 설계팀 : 문대희, 안종필, 이군성, 백찬슬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동양구조ENG
  - 기계설비분야 : 미래설비
  - 전기분야 : 이일ENG

**건축주 | 대천김(최민순)**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강산(김종표 KIRA)**

**시공사 | 조이건설주식회사**

대지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요암동 61번지

주요용도 | 공장

대지면적(Site Area) | 6,763.2㎡

건축면적(Building Area) | 2,422.21㎡

연면적(Gross Floor Area) | 6,987.65㎡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5.81%

용적률(Floor Area Ratio) | 103.93%

규모(Building Scope) | 4F

구조 | 철골구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칼라강판, 현무암, T24로이 복층유리, 합성수지 방부목, 우레탄 패널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3. 1 ~ 2012. 6. 15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6. 15 ~ 2013. 6. 30

사진(Photographer) | Kim, Gi-sung / Back, Chan-seul

**Client | Daechon Seaweed**

**Architect | Baek, Sang-ki**

Project team | Mun, Dae-heui / An, Jong-pill / Lee, Kun-sung / Back, Chan-seul

**General Contractor | JOY Engineering&Construction**

Location | 61 Yoamdong Boryung city Chungnam.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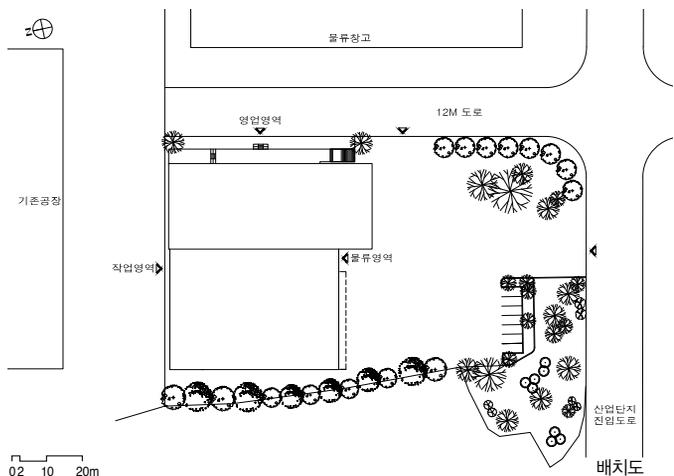
Structure | Steel Structure

Structural Engineer | Dong Yang Consulting Engineers. co. Ltd

HVAC & Electrical Engineer | Mirae ENG

Electrical Engineer | 2.1ENG

Finishing Materials | Exterior\_ Colored Steel Plate, Basalt Exposed Concrete, T24 Low-E Glass, Wood Panel, Urethane Panel





정면(산업단지 주출입구에서 바라봄)

‘김’이란? 암해태라고도 하며, 바닷물 속의 돌에 붙어서 절로자란다. 한국(제주도, 남해안, 서해안),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하고, 한국의 연안에서는 10월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겨울에서 봄에 걸쳐 번식하고 그 뒤는 차차 줄어 여름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천김은 기존공장이 있음에도 보다 원활한 물류처리와 위생적인 가공을 위해 최신 자동화시스템으로 새롭게 공장을 신축하였다.

충남 보령시 요암동 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천김 공장은 신축대지 북쪽 3.7m 높은 곳에 기존공장과 원료창고가 있고 동쪽에는 경사진 도로를 접한 물류창고가 있으며, 남쪽은 진입도로를 접하고 있다.

#### 배치계획

남쪽 대지공간을 전면으로 하여 물류차량 동선을 확보, 북쪽은 고저차를 이용한 작업 동선으로 하고 동쪽은 경사진 도로를 이용 외부 방문자 동선을 고려하

여 건물을 배치하였다.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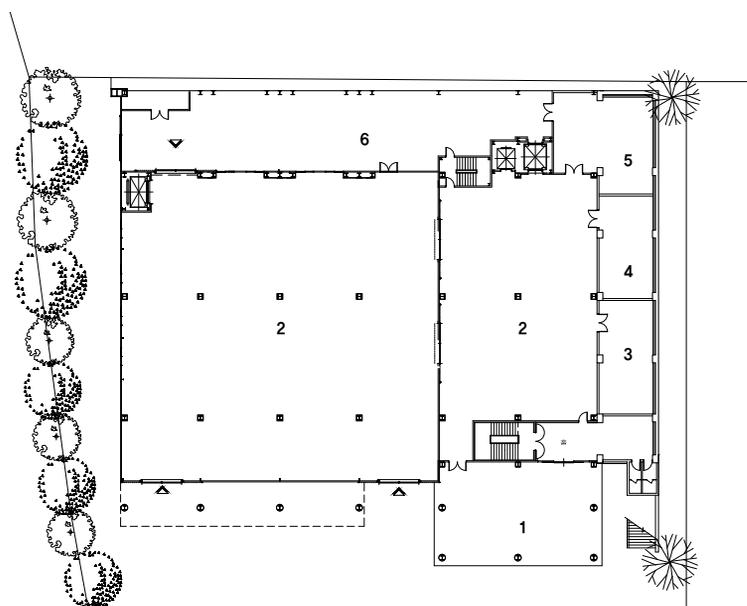
생산영역, 물류영역, 영업영역으로 분류했으며, 생산영역은 위생적이고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계배치와 공기정화설비, HACCP시설을 배치하였다. 대기 고저차가 있는 물류영역은 많은 물량을 신속하게 반출입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업영역은 근무자가 자연을 접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수직 동선이 원활 하도록 EV와 화물용 EV를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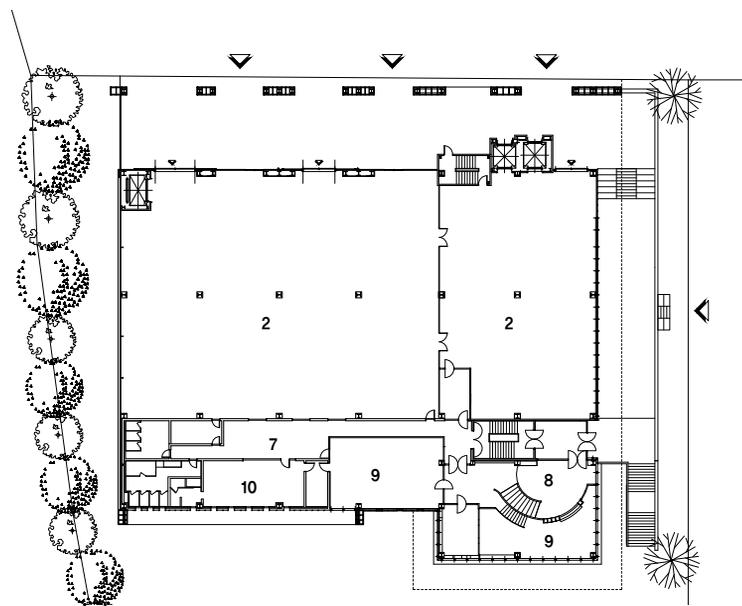
영역별 조닝에 따른 매스분리 및 그에 따른 입면효과로 기존 공장과 차별화를 원하는 건축주의 의지를 반영, 유리, 칼라강판, 현무암, 합성수지 방부목 등의 다양한 마감재 활용으로 공장의 고경관념을 탈피하였다. ㉮



우측 공장 진입로에서본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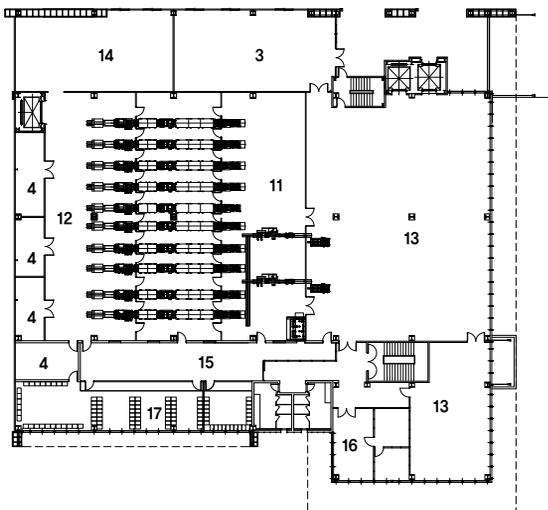
기존공장에서본



고객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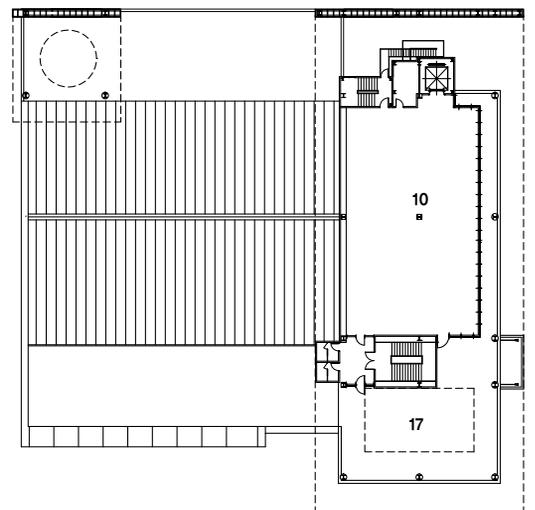


정면 밑에서바라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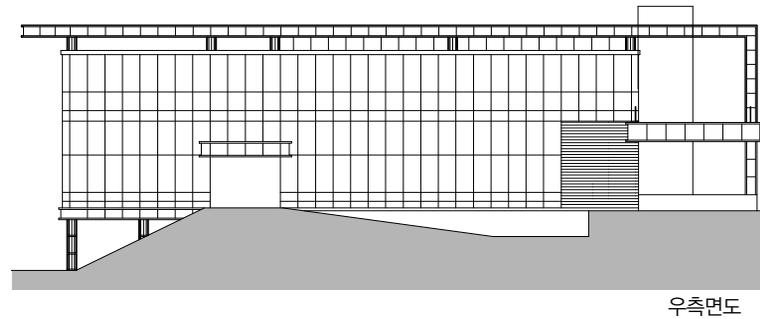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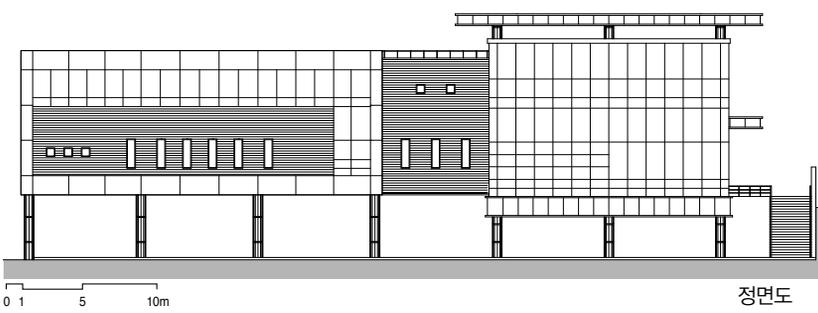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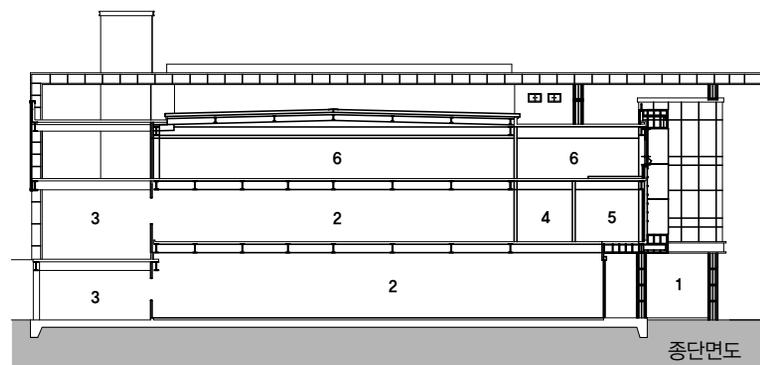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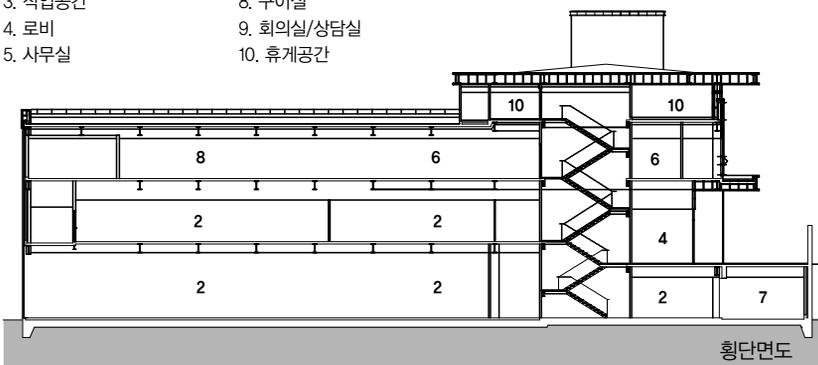
1. 필로티
2. 물류창고
3. 기계실
4. 창고
5. 전기실
6. 작업공간
7. 홀
8. 로비
9. 사무실
10. 회의실/상담실
11. 구이실
12. 원료공급실
13. 외포장실
14. 저온창고
15. 위생실 및 브리핑실
16. 연구실
17. 휴게공간



4층 평면도



- 1. 필로티
- 2. 물류창고
- 3. 작업공간
- 4. 로비
- 5. 사무실
- 6. 외포장실
- 7. 기계실
- 8. 구이실
- 9. 회의실/상담실
- 10. 휴게공간





사무실



로비



회의실/상담실



사무실

# 청덕제

## CHUNGDECKJAE



**설계자 | 류봉렬\_KIRA** | ㈜대유 건축사사무소

홍익대학교 건축과 졸업 후 (주)한국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주)대유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일산, 수원, 용인, 남양주 등에서 단독주택과 다수의 현상공모 당선작이 있다.

- 설계팀 : 최민준, 홍순중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가람구조기술사무소
    - 기계분야 : 미래건축설비설계사무소
    - 전기분야 : 미래건축설비설계사무소

**건축주 | 임화영**

**시공자 | 임화영**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484-6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281.5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07.61㎡

연면적(Gross Floor Area) | 199.5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8.23%

용적률(Floor Area Ratio) | 63.21%

규모(Building Scope) | B1-2F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북충유리(16), 적벽돌, 징크패널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0. 09 ~ 2011. 0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1. 03 ~ 2012. 02

사진(Photographer) | Hong, Soon-jong

**Client | Lim, Wha-yeong**

**Architect | Ryu, Bong-real**

Project team | Choi, Min-jun / Hong, Soon-jong

**General Contractor | Lim, Wha-yeong**

Location | 484-6, Chungdeck-dong, Kiheung-gu, Yongin-si, Gyeonggi-do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Garam ENC.

HVAC Engineer | Mirae MEC.

Electrical Engineer | Mirae MEC

Finishing Materials | Pair Glass(16t), Red Brick, Zinc Panel





남동욱 건축

### 배치 및 평면계획

청덕동(용인시) 물푸레마을 산기슭 끝자락에 접해 자연과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부지에서 건축주는 남측으로 통과도로(8~9m)에 접하고 동측으로 도로를 따라 약간 경사진 부정형의 대지에 은퇴한 노부와 출가한 자녀를 손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담한 주거공간(약 60평 정도)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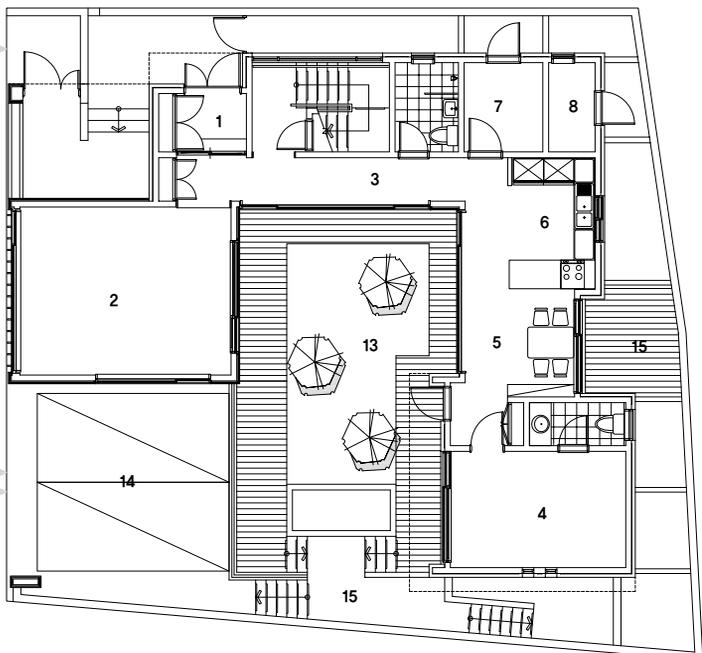
넉넉한 대지가 아니라서 남, 동측으로 열려있는 중정형(ㄷ형) 공간을 만들어서서, 북측에서 진입하게 했다.

또 현관문을 열면 중정마당을 보고 접근하며 도로변(남측)으로 가실, 인지경계선(북측)쪽으로 식당, 서비스공간, 동측으로 손님방(안주인 응접실)을 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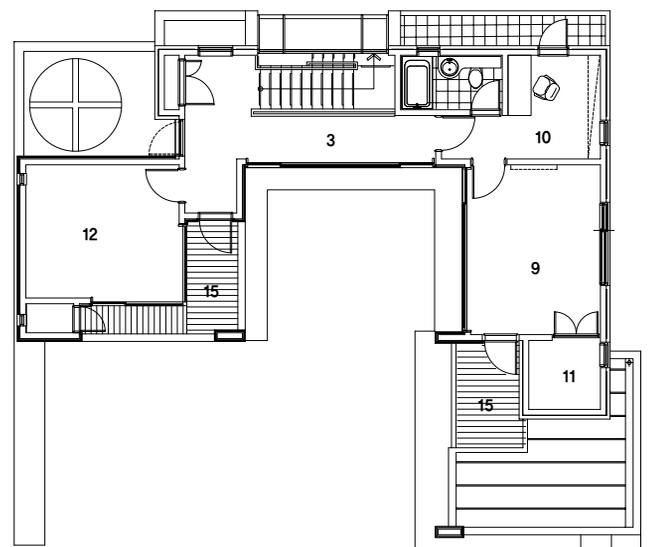
입면계획으로, 외부 마감재료는 자연소재인 적벽돌(고벽돌)을 주재료로 하여 주변경관(산, 녹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사지붕으로 유도했으며, 외부 마감재료는 목재루버(주출입구부분), 징크패널(외벽+지붕재) 사용으로 유지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중정의 외부 데크부분에 빗물받이 연못을 설치하여 공간의 위계성(영역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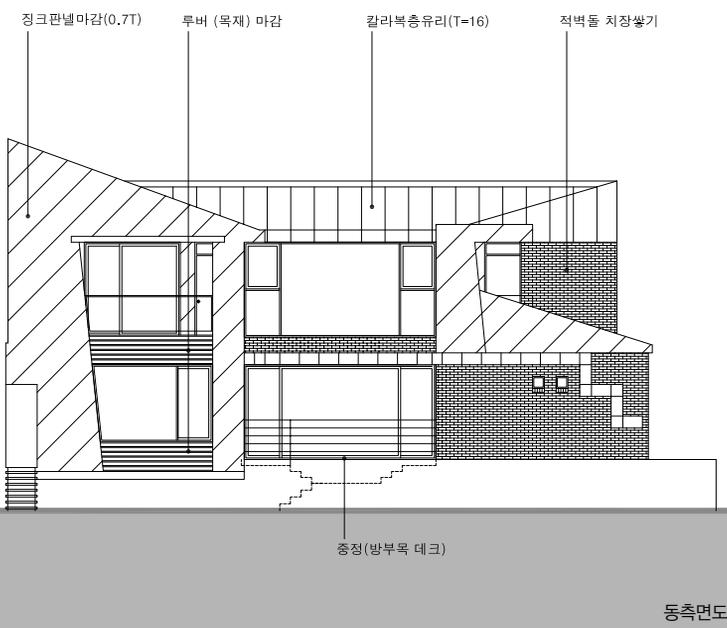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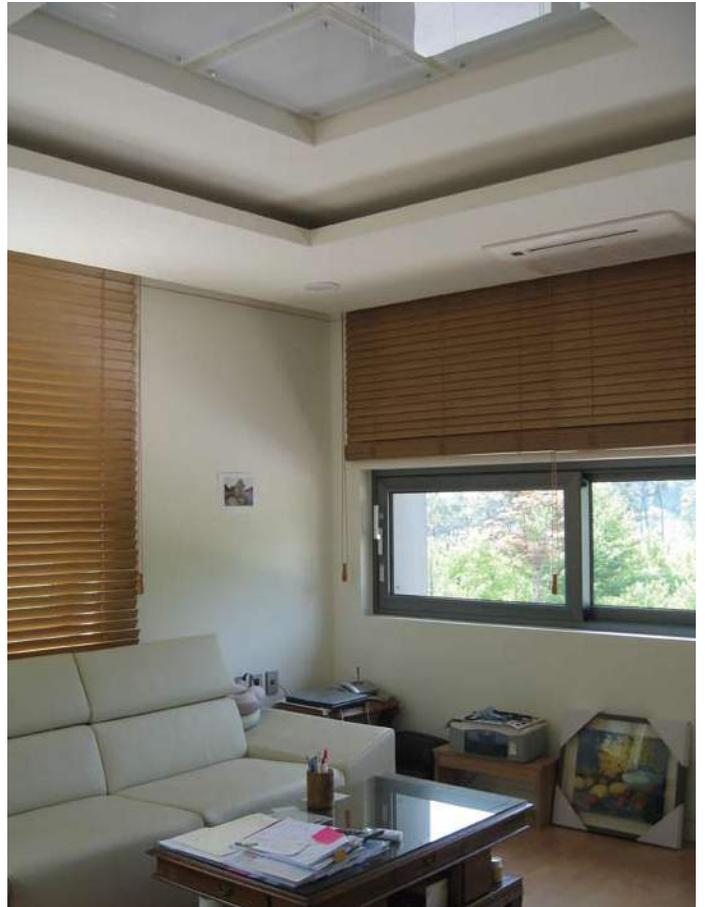
### 설비계획

자연 에너지인 태양광 및 지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태양전지판(지붕)설치, 냉·난방 및 온수 등에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주택으로 설계 하고자 노력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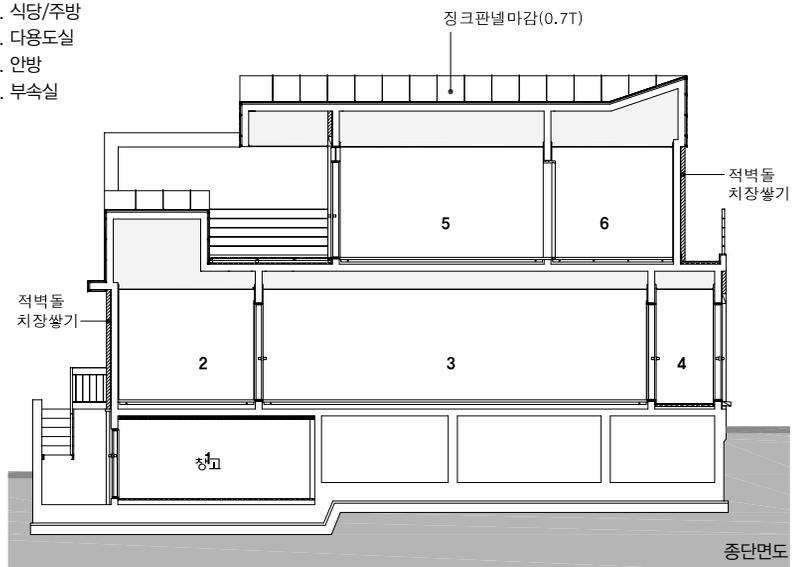


1. 현관
2. 거실
3. 복도
4. 침실
5. 식당
6. 주방
7. 다용도실
8. 보일러실
9. 안방
10. 부속실
11. 드레스룸
12. 서재
13. 중재
14. 주차장
15. 데크





1. 창고
2. 침실
3. 식당/주방
4. 다용도실
5. 안방
6. 부속실





# 효문화진흥원 \_ 당선작

## THE FAMILY CULTURE PROMOTION CENTER

**발주자 :** 대전광역시

**설계자 :** 조도연, 이경환 KIRA | ㈜디엔비 건축사사무소  
**최재인** KIRA |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하홍원, 허환, 권민성, 엄준식, 최웅, 박지예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47  
 (안영동 71-1, 71-2번지) 일원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등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22,300.00㎡

**건축면적** 3,251.16㎡

**연면적** 8,583.06㎡

**건폐율** 14.58%

**용적률** 37.03%

**구조** 철골조(전시관), 철근콘크리트조(교육수련관)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마감** 징크패널, 노출콘크리트, 목재루버, 로이복층유리

**孝道 : 효의 길**

[효의 길을 따라가며, 그 도리를 배우다]

효의 근본은 인(仁)이라 할 수 있다. 자연에서 인의 본성을 키우듯이, 자연을 따라 이어지는 길은 곧 효의 길이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인 '효'는 그 길을 따라 이어지는 효의 공간에서 간직될 것이며, 길이 전승될 것이다.

**배치계획**

[하나의 공간으로 조화되다]

북측의 문화재인 사정성과 자연의 흐름을 유등천까지 열어주는 통경축으로 자연속의 효의 공간을 조성하며, 인접한 효문화마을과 효의 길을 통합하는 배치로서 주변 뿌리공원까지 이어지는 마스터플랜을 고려한다. 중심을 비움으로써 통경과 접근의 흐름을 만들고, 문화마을과 효의 길을 잇는 통합된 하나의 공간이 된다. 경사지의 흐름에 따라 전시, 교육, 체험의 영역을 나누고, 내외부를 연결하는 동선으로 효를 배우는 체험동선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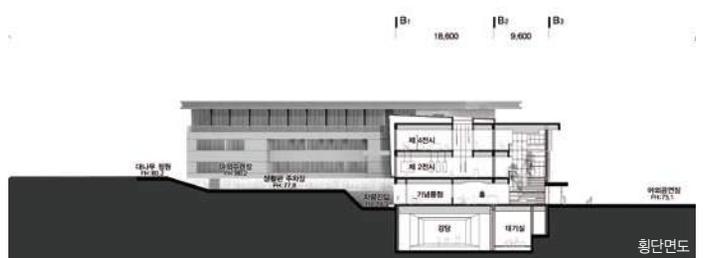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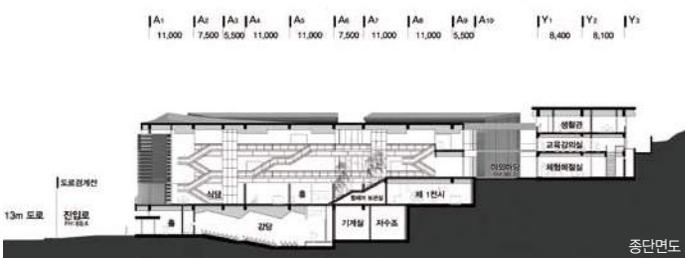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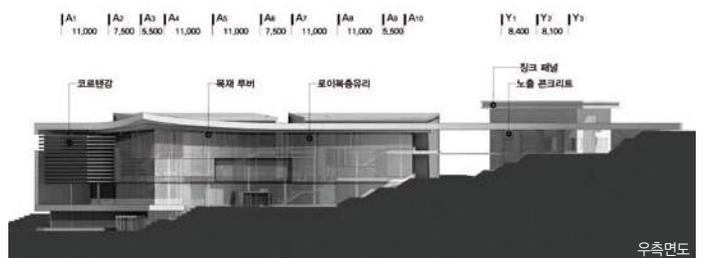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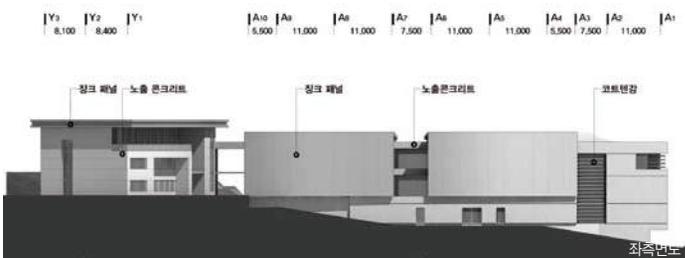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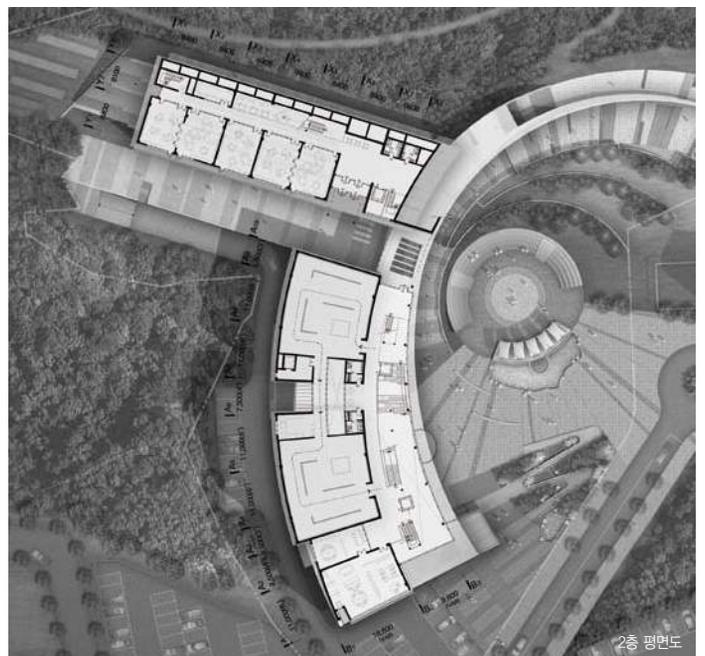
**평면계획**

• 입체적, 연속적 전시 공간 (1F~2F)

5개의 전시관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스토리 텔링의 전시 동선으로, OPEN을 통한 전시물과 입체적인 공간감을 가진다. 3개 층의 아트리움은 전시관과 외부의 자연을 매개하여 조망과 휴식의 공간이 된다.

• 전시와 체험의 이음 (2F~3F)

전시 관람 후, 이용자와 프로그램에 따라 체험관 또는 야외전시장으로 체험과 휴식의 동선으로 연결된다. 보는 효문화에서, 체험하고 나누는 효문화의 공간으로 이어진다.





# 효문화진흥원 \_우수작

## THE FAMILY CULTURE PROMOTION CENTER

발주자 : 대전광역시

설계자 : 이운구 KIRA | ㈜유성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왕효성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47  
(안영동 71-1, 71-2번지) 일원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등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45,162㎡

건축면적 4,450.80㎡

연면적 8,999.70㎡

건폐율 19.96%

용적률 38.2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 마감 제치장콘크리트, 화강석, 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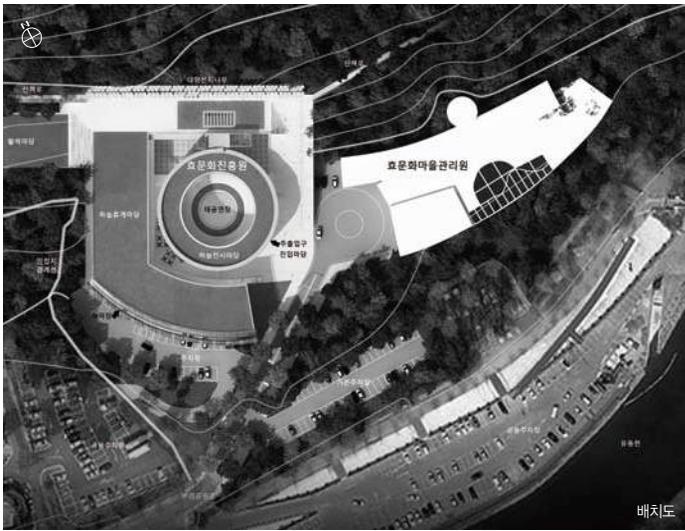
### 태·胎 - 효(孝)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상징의 제시

- 사람은 하늘에서 생명을 받고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서 나온다. 그러므로 태는 하늘이 이어진 곳이며 문이다. 효의 진흥목적은 사람이 하늘과 부모의 은덕을 알도록 함으로써 윤리적 인간이 되게 함이다. 그래서 효문화 진흥원을 태·胎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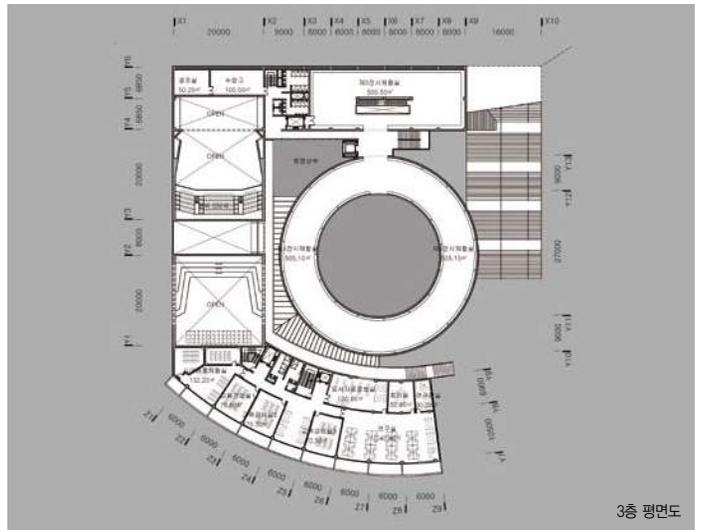
- 태·胎의 상징을 둥근 빈 공간으로 형상화하며 부자 중앙에 위치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필요공간의 기능을 생성시켜 효진흥 프로그램을 건축화해 나갔다.

- 중앙의 둥근 빈 공간은 진흥원과 지역 전체의 강한 구심이 되어 효의 의미를 묵시적으로 전달하고 전체 동선의 중심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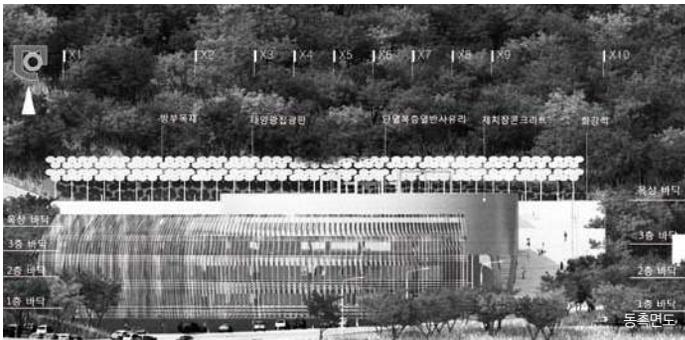
- 속이 빈 도넛형의 메스는 옥상정원과 사정성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로 올라가는 넓은 계단과 더불어 하늘과 어우러져 효문화 진흥원의 경관을 특징짓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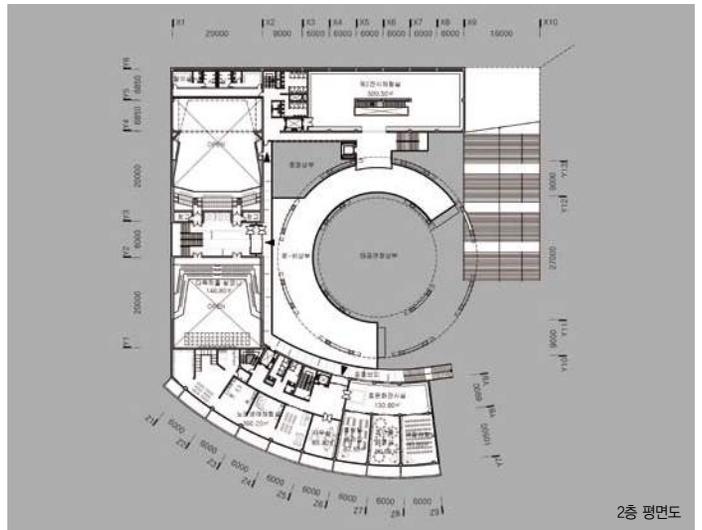
배지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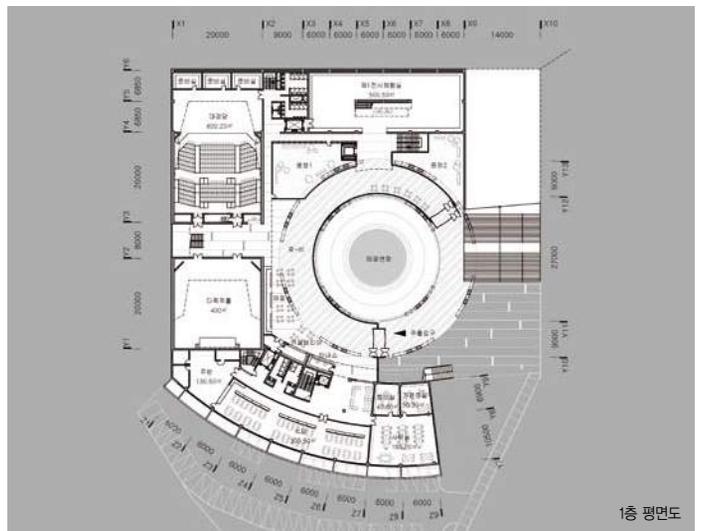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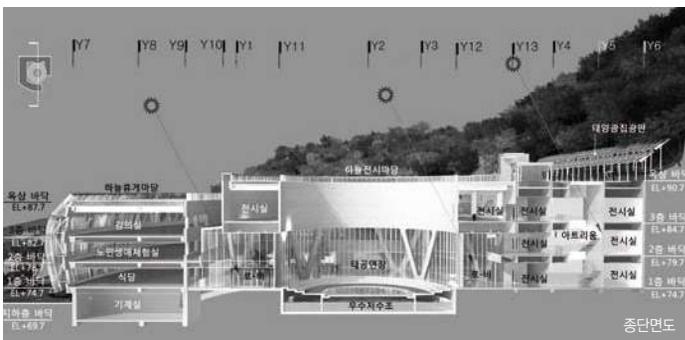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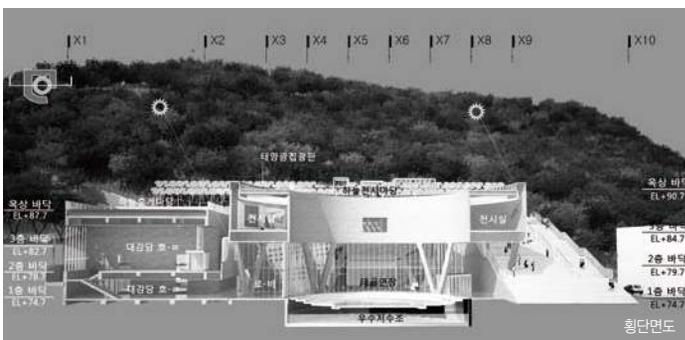
남측면도



1층 평면도



중단면도



형단면도



지하층 평면도



# 효문화진흥원 가작

## THE FAMILY CULTURE PROMOTION CENTER

**발주자 :** 대전광역시

**설계자 :** 이재삼 KIRA | ㈜팀텐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홍찬기, 박광성, 김준호, 윤성원, 조윤정

**전문기술협력**

- C.G : C2K solutions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47  
(안영동 71-1, 71-2번지) 일원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등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45,162㎡

**건축면적** 6,075.57㎡

**연면적** 9,046.22㎡

**건폐율** 13.45%

**용적률** 17.23%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마감** 세라믹패널, 화강석 혼드, 화강석 흑두기

### 정연(整然)

아이의 마음가짐을 깨끗이 유지하고 타인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 바른 마음가짐이 효의 근본이다. 공간의 질서를 정연히 유지하는 것은 조화에서 비롯된다.

억지스러움 없이 정돈된 공간에서 관람객은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를 체험 할 수 있다. 건물은 단지 배경(SHAPELESSNESS)으로만 존재할 것이다.

효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진흥원을 찾은 학생과 일반 관람객에게 건축물은 지나친 프로그램을 강제하지 않는다. 주변맥락, 경관배려, 건축지형, 다양한 연결점, 중성적 공간 등은 빈 공간의 유연한 흐름과 함께 대지를 점유해 간다.

### 경애(敬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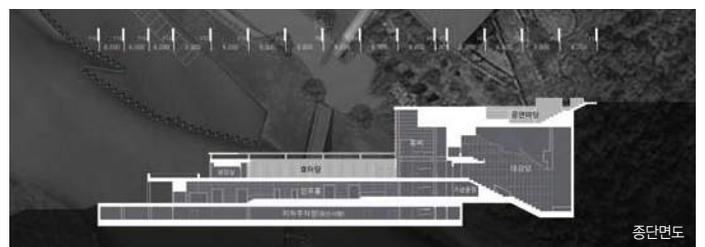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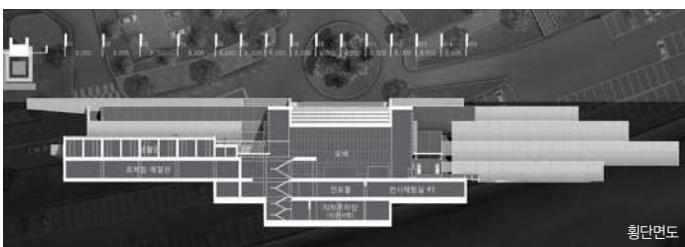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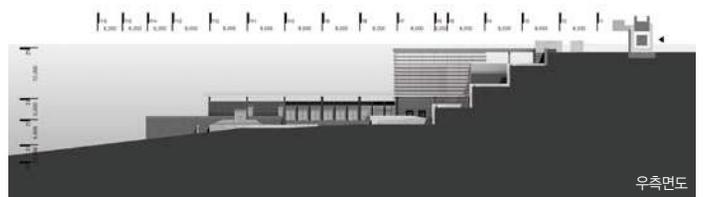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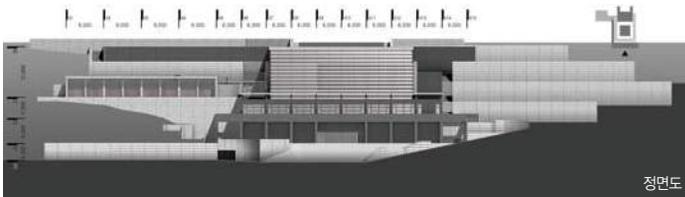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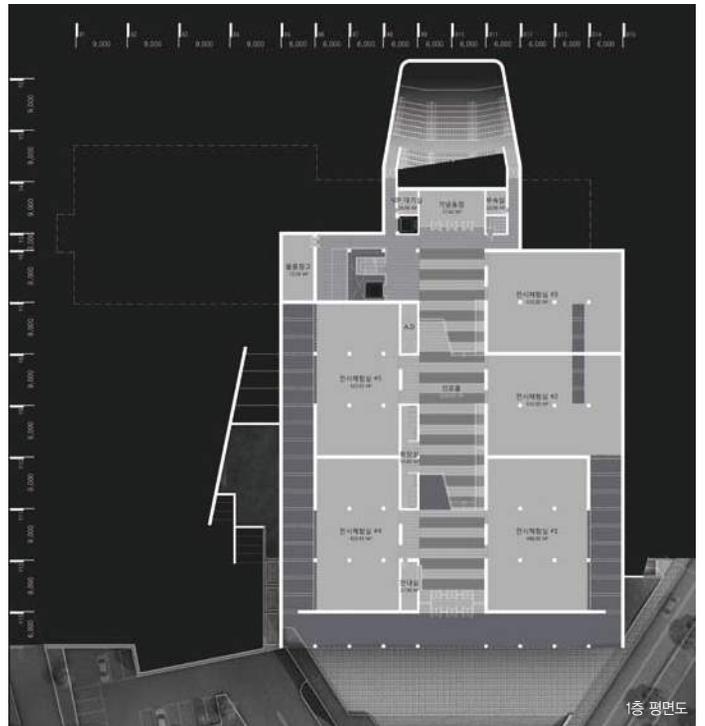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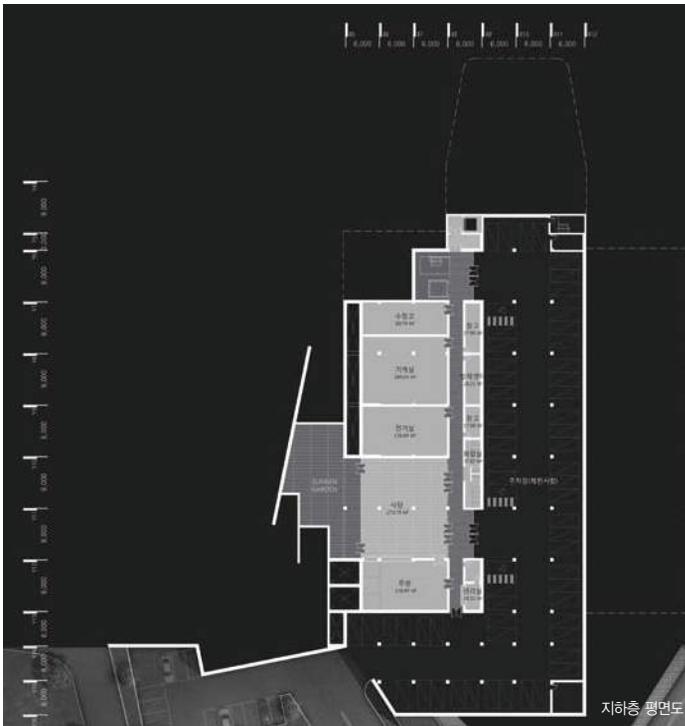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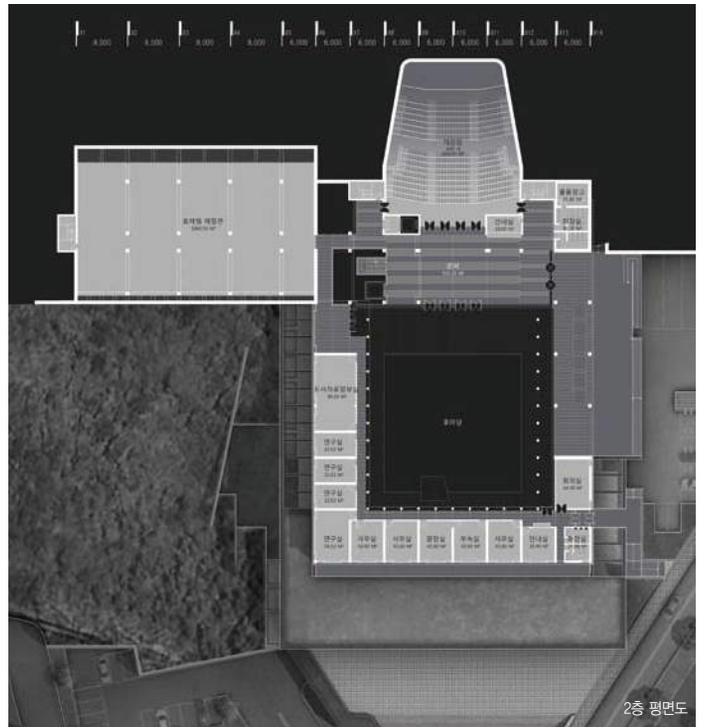
효, 경애의 마음가짐은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실천하는 것이다.

효행은 행복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강제되고 불편한 마음가짐은 효를 행할 수 없기에 효를 가르치고 체험하는 효문화진흥원은 즐거움 가득한 공간이다. 전시와 체험, 교육은 동적 구성을 가질 것이다.

체험은 건물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외부 마당과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며 관람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뿌리공원 및 보문산 주변의 문화 인프라와 연계된 진흥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른 효 문화 체험의 장으로 사용된다. ㉮



#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면 무허가 건축행위로 처벌받지 않을까?

Is it deserve the law enforcement as a unauthorized building works what if he/she did not recognize object of permission in architectural legislation.

박시준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는 건축주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이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음’을 주장하여 증명한다면 무허가 건축행위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형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참조).

그러면, 건축주가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 몰랐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건축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건축주가 주장하여 증명한다면 무허가 건축행위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이 답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축행위를 처벌하는 건축법 처벌규정은 고의범이기 때문에, 건축주를 무허가 건축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주택 건축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답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이 답입니다.

무허가 건축행위를 처벌하는 건축법 처벌규정은 고의범이기 때문에, 건축주를 무허가 건축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주택 건축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구별이 쉽지 않으나, 꼼꼼히 읽어 보시면 그 차이점의 맥락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을 위하여, 위 사례의 관련 판결인 대법원 2010도15260 판결 내용을 소개합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건축 관련 규제나 행정절차 등을 잘 몰라 이를 건축사에게 맡겼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소외 1이 2005년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다가 사라진 후 피고인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07년 11월경 이를 완공하였는데, 2009년 7월경 춘천시장으로부터 무허가 건축을 이유로 고발을 당하자 그제야 비로소 공소외 2 건축사에게 양성화 절차를 의뢰하여 2009. 11. 10. 건축허가를 받고 2010. 2. 1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소외 1이 불법으로 임의로 건축을 하고 사라져 피고인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3이 2006년 8월 및 9월경 공소외 1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이 사건 주택 부지 지상의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도 이 사건 주택의 건축에 허가가 필요함을 알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자신의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하여 주택의 부지의 법적 규제 현황을 확인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에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 후 이를 고시하고 열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았음에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이 구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면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구 건축법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피고인이 건축사에게 모든 일을 맡겼을 뿐이라고 잘못 인정한 끝에 무허가 건축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쉽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구 건축법 위반죄의 범의의 인정이나 법률의 부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건축과 함께하는 시로 지은 집

House created by a poem

다양한 지붕과 추녀의 선이 아름답게 어울린 창덕궁 희정당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한서대 겸임교수

## 지붕

집은 지붕이 완성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기초나 기둥도 지붕을 만들기 위한 선행 작업이다. 건축법은 기둥과 벽만 있고 지붕이 없는 경우, 건축면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어느 부분이든 지역적 특성을 갖게 마련이지만 특히 지붕은 기후에 따라 모양새가 다르고 재료도 다르다. 비가 잘 오지 않는 건조한 지역은 편편한 평지붕을 만들어 단한 방울의 물이라도 저장하려 하고, 눈비가 많은 지역은 눈의 하중과 빠른 빗물 빠짐을 위하여 경사가 급한 지붕을 만든다.



향지형(向地形)의 초가와 향천형(向天形)의 와가가 어울린 하회마을

한국의 지붕은 재료에 따라 크게 초가(草家)와 와가(瓦家)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의 형태는 대조적이다. 초가의 지붕선은 반구형에 가까워 땅으로 내려오는 느낌인데 반하여 기와지붕은 용마루와 추녀 끝이 하늘로 들려있어 솟구치는 느낌을 갖는다. “기와집 지붕에서 비상하려는 새를, 혹은 비룡을 연상한다면 초가는 땅에 뿌리를 박은 식물을 연상하게”<sup>1)</sup> 되는 것이다. 과거의 전통양식이 남아있는 마을을 살펴보면, 기와집 몇 채가 초가집 여러 채를 거느리고 있는 형상이다. 이는 기와집의 규모가 크고 따라서 건물의 높이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스케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가지붕의 향지형(向地形)과 기와지붕의 향천형(向天形)에서도

그리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수밭 속에 머리 수그린 / 겸손한 오막사리 잿빛 지붕 위를 / 푸른 박덩쿨이 기어 올라갔고 / 엉크린 박덩쿨 나리 밟고서 / 허-연 박꽃들이 거만하게 / 아침을 웃는 마을.

-김기림<sup>2)</sup> '마을'



초가지붕의 박과 박꽃

수수의 키보다도 낮은 초라한 오막사리이기에 주인이 심어 올린 박조차 우습게 여겨 거만하게 웃고 있다. 하지만 그 거만이 평화롭고 다사롭게 느끼는 것은 어인 일인가. “초가집의 황홀을 자늑자늑 찻는 흰웃 입은 아가씨”<sup>3)</sup> 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까지 한 마리 홀로 수숫대에서 잠들고 一鵲孤宿葛黍栖  
달 밝고 이슬 희고 발득 물은 졸졸졸 月明露白田水鳴  
나무 아래 작은 집, 바위같이 둥근데 樹下小屋圓如石  
지붕 위에 박꽃은 별처럼 반짝이네 屋頭葩花明如星

-박지원 '효행(曉行) -연암집(燕岩集)'

오늘의 한국인은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농촌의 초가집도 모두 기와나 평슬래브지붕으로 바뀌어 초가는 민속촌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귀물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50대의 어린 시절만 하

1) 박경리 '토지'  
2) 1908, 함북 성진, 「기상도」, 「바다와 나비」, 「새노래」  
3) 이희승 「박꽃」 1896-89, 국어학자

※주기: 시에 있어서 /는 줄바꾸기, //는 연바꾸기, ///는 전락, 중략, 후략 시 사용.

여도 연암(燕岩)의 시처럼 초가지붕 위의 박꽃을 환히 비추는 보름달은 가장 목가적인 농촌의 모습이었기에, 회상만으로도 순수  
의 눈이 되어 과거와 오늘을 본다.

그날 밤은 보름달이었다 / 건넌집 지붕에는 흰 박꽃이 / 수없이  
펼쳐져 피어 있었다 / 한밤의 달빛이 푸른 아우라로 / 박꽃의 주  
위를 감싸고 있었다 / -박꽃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 -네/아버지  
방 뒷마루에 앉아서 나는 한마디, / 얼마나 또 오래 서로 딴 생각  
하며 / 박꽃을 보고 꽃의 나머지 이야기를 들었을까 / -이제 자  
려무나 / -네, 아버지 / 문득 돌아본 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계셨  
다. // 오래 잊었던 그 밤이 왜 갑자기 생각났을까 / 내 아이들 박  
꽃이 무엇인지 한번 보지도 못하고 / 하나씩 나이차서 집을 떠났  
고 / 그분의 눈물은 이제야 가슴에 절절이 다가와 /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 외롭지 않고 / 내게는 귀하게만 여겨지네.

-마종기<sup>4)</sup> '박 꽃'

지붕과 박이 항상 낭만의 주인공만 되는 것은 아니다. 썩어가  
는 지붕에서 파낸 박 한 통은, 밥 빌어먹는데 필수인 쪽박을 만들  
어 가지고 떠나는 일제 강점기 빈민의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초라한 지붕 썩어가는 추녀 위엔 박 한 통이 쇠었다 / 밤서리  
내려앉은 밤, 시들하던 넝쿨이 사그라 붙던 밤, 지붕 밑 양주(兩  
主)는 밤새워 싸웠다. / 박이 탄탄히 굳고 나뭇잎새 우수수 떨어  
지던 날, 양주는 새 바가지 끼어들고 초라한 지붕, 썩어가는 추녀  
가 덮인 움막을 작별하였다.

-오장환<sup>5)</sup> '모촌(暮村)'

지붕의 존재가치는 지붕 밑 삶의 공간을 위한 것인데도, 시인들은  
지붕 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하기에 건축사도 지붕의 모양과 재  
료가 집의 형태나 성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겉모양에 관심이 많다보  
니, 일맥상통이다. 지붕위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들이 존재한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낭만자객이 있다면 단연 고양이이다 / 그들  
은 아직까지 지붕을 애용한다 / 그 위에서 생선을 발라먹고 사랑  
을 낳고 달빛의 노래를 듣는다 /// 떡다 남긴 생선뼈들과 욕정이  
묻은 털 따위를 세간처럼 묻히고 살아 있다 / 그것도 맨몸으로 비  
바람과 싸우며 살아있다 지붕은 / 그 아래 세상모르고 잠든 자들  
보다 / 친구인 고양이들을 위해 봉사하길 더 좋아한다 / 고양이  
가 등을 움추려 지붕에 오를 때를 보라/지붕도 한껏 어깨를 낮춰  
주는 것을 / 지붕 위에서 놈들의 싸우는 소릴 듣는다거나 / 애기  
울음 같이 발정 난 구애 소리를 듣는 밤은 / 예리한 칼이 심장을  
베고 가는 듯 얼얼해 진다 / 그 위에 앉아 보는 상상만으로 나는  
얼마나 전율했는가 / 무림영화의 주인공처럼 술 호리병 하나 차  
고 / 허리뼈 부러질 각오로 한번 올라보고 싶어지는 그 곳 // 오

늘도 포구의 고양이들 / 횃집 지붕 위로 물 좋은 생선을 길어 올  
리며 / 퍼덕이는 지붕과 놀고 있다.

-문성해<sup>6)</sup> '지붕'

고양이가 노는 지붕은 어쩐지 양철지붕이 어울릴 듯하다. 시골  
마당에서 개에게 쫓긴 닭은 사력을 다해 육중한 몸을 날려 지붕  
위에 오른 후, 언제 쫓겨 갔냐는 듯이 지붕 위를 여유롭게 거닌  
다. 그런 닭을 허탈하게 쳐다보는 개의 모습은 어릴 때 많이 보아  
왔다. "닭 쫓던 개"의 지붕이나 '경박한 참새들은 포플라의 지붕  
밑에서 눈을 떠서 분주히 노래하는'<sup>7)</sup> 곳은 초가지붕이 제격이다.  
비슷비슷한 집들로 구성된 도회지의 골목풍경은 기와집이 연상  
된다. 시인들은 지붕재료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를 그려보면  
시가 더욱 맛깔스럽다.

지붕 위에는 인간 아닌 자연과 동물의 웃음과 속삭임이 있다.  
알 수 없는 꽃이 피기도 하고 닭이 올라와 꽃과 이야기도 한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 /  
지붕이 비슷비슷한 골목  
을 걷다가 / 흰 비닐에 덮  
혀있는 / 등근 지붕 한 채  
를 보았습니다 // 새가 떨  
고 있었습니다 / 나무꼭  
대기에 앉아 있다. / 날  
개를 잡고 추락한 작은 새  
가 / 바람에 떠밀려가지  
않으려고 / 흰 비닐을 권  
채 / 조약돌처럼 울고 있  
었습니다 // 네모난 옥상  
들 사이에서 조그맣게 웅  
크린 / 우는 발로 걷는 / 등근 지붕.

-박형준 '지붕'

이 밖에도 "지붕에 널리 말린 생선들이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전혀 다른 밀을 하기 시작"<sup>8)</sup>하는 생선들과 "지붕 위에 앉아 바이  
올린을 켜는 염소 / 어두운 다락방에서 울고 있는 나를 위해 바이  
올린을 켜는 염소 / 내 시는 그 어린 염소가 쓴다."<sup>9)</sup>는 염소, 그리  
고 어린 날 뽑아 던진 유치(幼齒)까지 지붕엔 많은 것들이 있다.  
///"어디론가 세월도 아사를 하는가 보다 / 어릴적 내가 살던 동  
네 / 기억속에는 아직도 솜뿔집이며 그 옆 이발소며 / 이빨을 뽑아  
지붕위로 던지던 기와의 너울들 / 마당을 지나 아장아장 뒷마루로  
걸어오던 / 햇빛까지 눈에 선한데"

-권대웅<sup>10)</sup> '휘어진 길 저쪽' 중



1. 필요에 따라 추녀 깊이가 다른 구례 운  
조루 암수재  
2. 창덕궁 후원 부용정의 겹친 처마선

4) 1939. 일본동경. 1966. 도미. 「안보이는 사랑의 나라」

5) 1918. 충북 보은. 「성벽」 외

6) 1963. 경북 문경. 「자라」, 「아주 친근한 소용돌이」, 「입술을 건너간 이름」

7) 김기림 '들은 우리를 부르오'

8) 박형준 1966. 정음. 「나는 이제 소멸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다」 중에서

9) 함기석 1966. 청주. 「지붕 위의 염소」 중 「청주 국어선생은 달팽이」 외

10) 권대웅. 1962. 서울. 「떨림」, 「당나귀의꿈」 외

요즈음엔 / 지붕위로 올라가는 날이 잦다 / 내가 누군가를 지나치게 그리워하고 / 또 그 그리움으로 인해 / 깨진 저 서넛 하늘처럼 /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 아니다 / 아직도 누군가를 못잊어 / 못잊어 한다는 말이 아니다 / 지붕위의 빛나는 별이여 / 어느 날 그대라고 불리웠던 / 내 가슴 속 / 단단히 못 박힌 이여 / 당신을 사랑했었던 말은 더더욱 아니다 // 별이 진다 / 이 밤 누군가 / 이 별의 맑은 꿈을 꾸고 있는가 보다  
-최갑수 '지붕위의 별'

앞 시의 부정으로 일관하는 시어는 더욱 큰 긍정으로 다가온다. 사랑하되 같이 할 수 없는 나약한 젊은이의 애련이 가슴을 저민다. 앞의 시는 지붕 위에서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지만 다음의 시는 영원한 이별을 승화시키고 있다. 두 시인은 별이 있는 하늘까지 지붕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건축가는 하늘에 오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다 실패하고, 수백년에 걸쳐 양천(仰天)을 위해 첨탑이 있는 교회를 설계하였다. 최근에는 828m의 버즈 두바이 빌딩이 아랍 에미리트에 완공되면서부터 구름을 굽어보는 건축물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시인처럼 지붕에서 하늘로 곧 바로 가지는 못한다.

우리네 습속은 사람이 죽으면 지붕에 올라 망자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초혼(招魂)을 하였다. 하늘에 있는 영혼의 통로, 그 시발점이 지붕이다.

당신은 지붕으로 올라가 어디론가 갔지 / 길 없는 곳 / 가운데를 열어둔 시간 속으로 / 그날 손을 흔들 때 별은 빛났네 / 별리야 늘 들여다보면 빛나는 것 /// -성석제 '첫사랑을 기리는 노래'

이제 이런 사랑을 떠나 희망과 패기서린 사나이를 통해 새롭게 지붕을 바꾸는 작업을 감상해 보자.

햇살의 벗겨진 정수리를 밟으며 사내는 능숙하게 지붕을 오르다 혈벗은 어깨 서로 감싸며 기와들이 웅성거린다 맨 처음 사내는, 누군가 실수로 밀어올린 배드민턴공과 화석처럼 굳어버린 새똥 같은 지붕의 누추와 집착의 무게를 하나씩 벗겨낸다 // 그 위에 푸른 페인트를 뚝뚝 붓는다 어떤 추억의 그림자도 뚫고 나오지 못하게... 가끔씩 튀어 오르는 상념들은 작업복을 붙잡고 늘어지지만 곧 심드렁하게 탈색되어 갈 것이다 갑작스런 변화에 몸을 떠는 지붕, 천천히 사내는 지붕을 달랜다 뺨뚨어진 기와 빠르게 누이고 구멍 난 자리도 빈틈없이 박는다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이 /// 아린 새 살이 바라볼 하늘을 흠쳐본 사내의 두 볼이 환해지고 있다 해가 지도록 작업은 계속되고 어느덧 나는 깨진 무릎의 상처 위로 스물거리는 새살을 예감하고 있었다

-문채인 '지붕수리'

한국지붕의 특성은 어떤 재료를 쓰든 처마의 깊이가 깊다는 것이다. 처마를 깊게 잡는 구조는 동양 건축 특색의 하나이다. 중국과 일본도 이와 같은데 중국 중원 지방의 처마 깊이는 기둥 높이에 비하여 약 60% 내외이다. 우리 나라는 약 80% 가량이며, 일본 구주(九州)지방은 약 100% 정도이다. 이는 강우량에 따른 정비례(正比例)이다.

처마가 깊으면 여름날에도 그늘을 드리우기 때문에 방과 대청은 나무그늘과 같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살을 방속 깊이 투사하여준다. 처마를 깊게 하는 원인 중의 또 하나는 건축자재의 취약성 때문이다. 건축 자재인 목재와 벽을 형성하는 흙이 습기에 약하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생활관습 때문이다. 농사에 쓰이는 연모나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일차적인 저장소로 처마 밑이 알맞기 때문이다. 또, 작업장으로도 유용한 공간이어서 처마의 깊이는 증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관습과 천연의 여건으로 조건이 구비된 처마는 살림집에서만 아니라 공공 건축물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어서 기와집이라 할지라도 깊은 처마에 큰 지붕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깊은 처마를 가져도 서향집일 경우 여름햇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창덕궁 연경당의 서재인 선향재는 서향에 차양을 하고도 지는 해의 낮은 햇살을 막기 위해 문짝을 도르래를 이용하여 내리고 올리도록 하였다. 전통와가와 잘 어울리진 않지만 실용적인 차양은 강릉 선교장 등 민가에도 있다. 집은 작을수록 기둥높이도 낮아지고 이에 비례하여 처마도 짧아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집에 사는 서민들에게는 영구적인 차양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에 여름나기가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생소나 무 가치를 처마에 덧대어 햇살을 막는 차양(遮陽)을 만들었는데, 이를 일컫는 송봉(松棚)이란 시가 있다.

작은 초가라서 처마가 짧아 / 무더위에 푹푹 찢까 몹시 걱정돼 / 서늘한 솔잎으로 햇살을 가려 / 한낮에도 욕심껏 그늘 얻었네 / 새벽에는 이슬 맺혀 목걸이로 뵈고 / 밤에는 바람 불어 음악으로 들리네 / 도리어 불쌍해라, 정승 판서 집에는 / 옮겨 앉는 곳마다 실내가 깊네 小屋茅簷短 偏愁溽暑侵 聊憑歲寒葉 偷得午時陰 露曉看瓔珞 風宵聽瑟琴 却憐卿相宅 徒倚盡堂深<sup>11)</sup>

'조선조 제일의 시인'이라는 칭송을 듣던 권필의 시다. 가난한 시인이 송봉 아래 걸터앉아, 무더위에 그늘 아래 지내는 호사를 가난뱅이도 누릴 수 있다고 한껏 자랑한다. 송봉은 시원한 그늘만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새벽이면 이슬이 맺히고 밤이면 솔바람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오니, 마치 귀족들이 차고 다니는 값비싼 목걸이처럼 보이고 현악기의 합주처럼 들린다. 어찌 보면 고래등 같은 집의 깊숙한 방안에 처박혀 지내는 귀인

11) 안대희 역, 조선일보-권필(權輅 · 1569~1612)

(貴人)들보다 더 시원하게 여름을 보낸다는 생각도 든다. 무더위를 이기는 데 꼭 좋은 집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시를 번역한 안대회 교수의 해설이다.

나직나직 얽드린 연와(煉瓦)지붕이 / ping ping 튀겨날 듯 눈 앞에 땅땅 거린다 / 그들이 반쯤 기어나던 흰 회벽 / 누른 호박벌이 붙어 쉬고 / 주렴 드리운 들창으로/요염한 아낙네의 동그름한 얼굴이 나왔다 들어간다 / 공기는 호박 빛 / 바람은 숲속에 자고 / 나비는 작약그늘이 숨고 / 낮이 옹기는 발자취 들리는 듯 / 게으른 애상이 보시시 눈 드는 정적 / 좁은 들 터운 기운이 이마에 배어들어 / 짠매미 한 마리도 울지 않는 뒤청은 / 눈이 가느라니 감기어 아름 아름 슬프고나 / 등골에 닿는 싸늘한 마루촉감이 차라리 슬프고나<sup>12)</sup>



3. 4. 지붕과 벽의 경계가 모호한 두 건물 - 필립스전시관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야경  
5. 서산 개심사 요사체의 처마-쌓아놓은 장작더미와 걸어놓은 시래기 엮음.  
6. 여름철 서향 햇살을 막기 위한 창덕궁 연경당의 서재인 선향재 처양. 도르레를 이용한다.

위 시도 권필의 한시(漢詩)와 같은 여름철인데, 요염한 아낙네의 출입 이외에는 모든 것이 멎어 있다. 박꽃의 웃음도, 선비의 자만도 없다. 한낮의 정적은 그저 슬픈 상처뿐이다. 그래서 마루를 통해 등골에 닿는 싸늘한 촉감도 시원한 것이 아니고, 차라리 슬프게 느껴지는 것이다. 행복이 큰집과 작은집, 기와집이나 초가집 등 빈부에 해당 없음을 일깨워 준다.

지붕은 어떤 자재로 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역새 따위를 사용한 것이 새지붕, 천연 슬레이트인 얇고 검은 돌을 사용하면 너새지붕, 특히 청석(靑石)을 사용한 집을 청석집, 삼나무나 노송나무를 기왓장 정도의 판으로 만들어 이은 지붕을 너와지붕이라 하였다. 굴피지붕은 굴참나무의 굵은 껍질로 지붕을 엮은 집을 일컫고, 초가

지붕은 벗짚을 이엉으로 엮어서 엮은 집이며, 기와지붕은 기와를 올린 집이다.

기와지붕도 초가에서 출발한 것은 틀림없는데, 처마곡선이 이처럼 운치 있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선자서까래 구성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기와지붕은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팔작지붕·우진각지붕·사모지붕·육모지붕·팔모지붕·갓은모지붕·丁자지붕·십자지붕·고패지붕·ㄷ자지붕·ㄹ자지붕·숫을지붕·까치구멍지붕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형태의 다양성은 집의 평면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 외에도 집의 성격, 경제적인 여건과 집주인의 취향에 따라 형태가 결정된다.

기와지붕은 기본적으로 암기와와 수키와로 이뤄지지만 그 외에도 추녀 끝을 장식하는 막새기와와 용마루 끝을 마감하는 망와가 있다. 망와는 한국 축구 응원단의 공식 엠블럼인 치우천왕상 또는 귀면상이 대표적이지만 민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띤 얼굴상과 구름무늬, 식물무늬 등 매우 다양하다. “한 어둠은 얽드려 있고 / 한 어둠은 그 옆에 엉겨주춤 서 있다 / 언제 두 어둠이 한데 마주 보며 앉을까 / 또는 한데 허리를 엮을까”<sup>13)</sup>

그 외에도 궁궐의 주요 전각에는 규모에 따라 수가 다른 여러 모양의 잡상도 두었다. 이렇게 용도와 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지붕은 시인에 의해 생명체로 살아난다.

무늬 진 저녁 뼈마디에 내 이름을 꽃는다. 무슨 무인도 깃발 같은 붉은 창문을 달고 지나가는 바람을 간절히 부른다. 늦은 구름이 태연히 지나간다. 목울음 삼키는 먼 산등성이 특, 붉어져 나온 심장에도 투명한 유리창이 달려 있을가, 셀로판지 같은 허공에 뺨으로 부비는 함석지붕들이 흐르고 싶어 안달이었다 /// 주름진 어둠의 표피 속에서 수련처럼 천년을 홀홀 벗어버린채 푸른 불꽃이 다투며 피고 있었다. 잘 망치질된 함석지붕처럼 나도 흐르고 싶었다.///

-신지혜 '바람부는 저녁에는 나도 함석지붕처럼 흐르고 싶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붕은 겉모습이다. 진정한 지붕의 역할은 그 속이다. 그 곳에는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살고 형제들도 함께한다. 창으로 불빛이 나오는 집은 볼수록 정답고' 한 지붕 밑에서 각자의 방에 들어가 꿈을 꾸다. 행복한 가정이 지붕 아래 있다 그래서 지붕은 곧 집이다.

서리 내린 / 지붕 지붕엔 밤이 앉고 // 그 안에 꽃다운 꿈이 덩굴고 // 뉘 집인가 창이 불빛을 한입 물었다 / 눈비탈이 / 하늘가는 길처럼 밝구나 // 그 속에 술한 애기들을 줍고 있으면 / 어려서 잊어버린 '집'이 살아났다 // 창으로 불빛이 나오는 집은 다정해 / 볼수록 정다워 // 저 안에 엄마가 있고 / 아버지도 살고 / 그리하여 형제들은 多幸하고--/// -노천명 '창변(窓邊)'

12) 김달진 '白日哀傷' 외

13) 강은교 '망와(望瓦)'

여행 길, 차창에 스치는 황혼 역 지붕들을 보면서 돌아갈 수 없는 옛집을 그리는 ‘창변’을 지나,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옛날 내가 살던 옛집의 지붕으로 가보자.

/// 우리 살던 옛집 지붕에는 / 우리가 올면서 이름 붙여 준  
 울음 우는 / 별로 가득하고/땅에 묻어주고 싶었던 하늘 / 우리  
 살던 옛집 지붕 근처까지 / 올라온 나무들은 바람이 불면 / 무거  
 워진 나뭇잎을 흔들며 기뻐하고 /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그해의  
 나이테를 / 아주 둥글게 그렸었다 / 우리 살던 옛집 지붕 위를  
 흘러/지나가는 별의 강줄기는 / 오늘밤이 지나면 어디로 이어지  
 는지 ///

-이문재<sup>14)</sup> ‘우리 살던 옛집 지붕

내가 떠남으로 빈집이 된 옛집, 집 걸 나뭇잎이 춤추며 기뻐하고, 보고 싶을 때마다 반겨주던 푸른 지붕의 옛집. 평생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고향집의 지붕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로망이 남은 원두막 지붕에 있다.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sup>15)</sup>

## 처마와 추녀

하늘로 날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처마 끝 길게 늘어난 주름에 반월이 숨어  
 아른 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고와라 고와라 진정 아름다운 지고 ///

살살이 퍼져 내린 꿈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한복을 입은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하늘로 날듯이 길게 뽑은 전통한옥의 추녀와 처마를 배경 삼음으로서 한국의 고전미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조지훈 선생의 ‘고풍의상’ 중 일부이다.

한국의 미를 말할 때 우리는 위의 시구처럼, 한옥의 유려한 선과 여인의 한복과 버선의 선을 말한다. 한·중·일을 돌아본 외국인들 중 상당수는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한국의 고유한 선을 발견하고 찬탄한다. 그들은 이로써 스케일이나 기교를 떠나 한국 건축을 사랑하며, 어떤 이들은 아예 눌러 앉아 목수 수업을 받는 사람도 있다. 한옥지붕의 처마곡선은 추녀로부터 시작된다. 추녀의 길이와 형태는 지붕처마 곡선에 절대적이다. 그래서 예부터 도목수는 추녀를 만드는 비기(秘技)를 아끼는 제자에게만 전수하였으며



7. 경복궁 지붕의 잡상-건물의 규모에 따라 개수가 다르다  
 8. 불갑사 대웅전의 풍경달린 처마.

이러한 전통이 남아 있어 지금도 어떤 대목들은 은밀하게 추녀 먹을 놓는다고 한다.

추녀 끝에서 추녀 끝으로 이어지는 처마의 생동하는 리듬감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깊은 그림자로 인한 음양의 조화, 공간감의 확대에 의한 안온감도 추녀만이 갖는 특성이다. 추녀는 여름 장맛비나 태풍의 들이침을 막아줌으로써 벽면을 보호하고 창문의 창호지를 짓지 않게 하며, 축, 미늘, 장작 등의 건조 내지 저장 공간으로 쓰이기도 하며, 애경사에는 반 실내공간으로 비좁은 집을 확장시키기도 하는 등 실용성 또한 크다. 그 뿐 아니라 처마 밑의 공간은 대류현상으로 인해 추위와 더위를 완화시킴으로 한서(寒暑)차가 많은 한국의 실정에 안성맞춤이다.

“처마 밑에 / 시래기 다래미 / 바삭바삭 / 추어요.// 길바닥에 / 말뚝 동그람이 / 말랑말랑/얼어요”<sup>16)</sup>, “쏟아지는 비를 피해 찾아갔던 짧은 처마 밑에서 아슬아슬하게 등 붙이고 서있던 여름밤을 나는 얼마나 아파했는지”<sup>17)</sup>, “항구에 밤이 오고 / 밤은 추녀마다 등을 달았다”<sup>18)</sup>란 시들은 다양한 추녀의 용도를 그리고 있으며, 아래 시들은 참새, 제비, 닭 등이 노니는 처마와 추녀의 풍경들을 노래하고 있다.

“어두한 추녀 그늘 작은 뜰 안에 / 삐알깡게 고이 익은 파리열매. ///”<sup>19)</sup>, 아침 잠 잃은 / 참새들은 / 자리 걷어차고 / 추녀 끝에 나와 ///<sup>20)</sup> 장국화 핀 / 앞집을 넘어 처마 끝에 / 참새들이 요란히 지저귄다 ///<sup>21)</sup> 황혼 서린 추녀에 제비 찾아 들고 / 모란꽃 한 두잎이 소리없이 듣는고야 /<sup>22)</sup> 추녀끝 귀들소리/너무나 처량한 소리///<sup>23)</sup> 처마 안 좁은 제비집 속에는 / 벌서 두배 새끼 주둥이 넷이///<sup>24)</sup> 낮닭(午鷄)의 노래도 처마 끝에 숨기고///<sup>25)</sup>

처마나 추녀는 실내에서 창이나 문을 통하여 밖을 보거나, 나가는 전이공간이다. 그렇기에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는 안테나 노릇을 하게 마련이다.

14) 1959. 경기 김포 「내 젖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마음의 오지」

15)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

16) 윤동주 「겨울」

17) 허연 「칠월」

18) 이찬 「항야(港夜)」 1910. 함남 북청. 「대망」, 「분향」 외

19) 김달진 「파리열매」

20) 황석우 「아침참새」

21) 이태환 「석우(夕雨)」-「삼청동」

22) 이영도 「낙화(落花)」

23) 윤영춘 「가을」

24) 김용득 「연계」

25) 노자영 「여수」 1898-1940. 「사랑의 불꽃」, 「처녀의 회한」

26) 유지영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sup>26)</sup>을 추녀 끝에서 떼어내 칼싸움 하던 어린 날들. 밤새 얼었던 고드름이 한낮 햇살에 녹아 낙수되면 “처마에 낙수소리 인제분명 봄이로고 / 복비는 동명승이 마슬로 올 때로다 / 오늘쯤 회심곡 소리 들릴 것도 같아라”<sup>27)</sup>처럼, 봄은 우리 곁에 성큼 와 있고 동안거를 끝낸 탁발스님을 동네로 내려 보낸다. 그뿐일까. 하룻밤 사이에 수선화 꽃대를 한뼘이나 키우기도 한다. “집앞 처마 밑에 / 봄은 이미 서성거리고 // 이태 전 심은 수선화 / 새싹들이 예쁘더니 // 밤새에 / 살진 꽃대가 / 한뼘이나 솟았구나.”<sup>28)</sup>

“저른 처마 안에 드는 해는 되오 길다 / 뜰에 시든 수국 그늘”<sup>29)</sup>이 되고 “뜰을 헐어내고 포도를 심어두니 / 좁은 처마 안에 오르고 서린 년출 / 그나마 보이던 하늘마저 가려버(린다)”<sup>30)</sup>리면 여름이고 “구름이 밀려들고 굵은 비가 쏟아진다 / 앞 뒤 처마 끝에”<sup>31)</sup> “처마 끝 내리는 비는 줄줄이 쏟아진다. / 산동 깊은 밤에 구진 비는”<sup>32)</sup> 장마가 된다. 그리고 가을걷이를 처마 밑 담벼락에 갈무리하고 다시 겨울이 오면 “누우런 고드름 주렁 주렁 / 목매어 단 추녀 아래로 / 팽! 팽! 징소리”<sup>33)</sup>내며 지금은 볼 수 없는 굴뚝청소부가 다녔다.

처마에서 변화하는 자연을 관조한 위의 시들과 다른 한편의 시가 있다. 시인은 폐결핵을 앓았고 카프동인이었기에 시에 대한 해석은 평론가마다 다른데, 느끼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비바람 험살갓게 거저간 추녀 밑- / 날개 찢어진 늙은 호랑나비가 / 맨드라미 대가리를 물고 가슴을 앓는다. // 찢긴 나래에 맥이 풀려 / 그리운 꽃밭을 찾아가갈 수 없는 슬픔에 / 물고 있는 맨드라미조차 소태 맛이다. // 자랑스러울손 화려한 춤 재주도 / 한 옛날의 꿈조각처럼 흐리어 / 늙은 무녀(舞女)처럼 나비는 한숨 쉰다.<sup>34)</sup>

이제 비가 오면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도 / 겨울이면 내달리던 고드름도 없이 / 문밖만 내다보는 흙 문은 신발코를 가슴 쪽으로 돌려놓으시고 / 어머니는 철 없이 짝이 돋은 감자를 수저로 굽고 계신다 /// 새로 집을 수리하고 어머니는 반이나 쪼그라들었다 / 안방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없어지고 / 뒷마루가 없어지는 동안 /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 옛이야기를 조르면 어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 오히려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 어머니 오늘은 옛집에 다녀왔어요 / 섬돌에 얹힌 낫선 신발들이 어찌나 커다랗게 보이는지 / 아는척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박관식<sup>34)</sup> ‘처마 아래 작은 집’

처마 밑 섬돌의 낫선 신발에서 옛집이 남의 집이 되었음을 실감한 시인은 그 집을 가슴에 담고 있을 어머니께 독백을 한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이 밤도 처마 끝을 향해 올라가는 포도순의

생명력을 부러워하고, 무력함을 자탄하며 자식을 간병한다.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 가쁜 숨결을 드내 쉬노니, 박나비처럼, ///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 아득한 하늘에는 / 별들이 참별 날듯 하여라.”  
-정지용 ‘발열(發熱)’

“날새들 떠다밀고 사라지는 황혼 저편으로 / 축축히 젖어오는 별들, 한등 두등 / 사원 추녀 끝으로 번져갈 때”<sup>35)</sup> “산신각 추녀 끝 / 솔잎 푸른 바람을 물고, 동박새 / 낮게 낮게 산을 내려 / 부도비 받치 배꽃 같은 흰 눈/관음의 눈매 닮은 솔 씨 묻었구나”<sup>36)</sup>와 같이 사찰의 처마에 관한 시들이 꽤 있다. 하지만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소리 /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sup>37)</sup>란 노래처럼 사찰의 처마에는 풍경이 있어야 제격이다.

안정사 옥련암 낡은 단청의 추녀끝 / 사방지기로 매달린 물고기가 / 풍경 속을 헤엄치듯 / 지느러미 매고 있다 / 청동바다 섬들은 소릿골 건너 아득히 목메울 테지만 / 갈 수 없는 곳 풍경 깨어지라 몸 부딪혀 저 물고기 / 벌써 수천 대접째의 낯쇠소릴 바람결에 / 쏟아보내고 있다 / 그 요동으로도 하늘은 금세 눈 오듯 명빛이다///  
-김명인<sup>38)</sup> ‘안정사’

청도 산속 가부좌로 들어앉은 운흥사 처마 풍경에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다 스님도 물고기를 따라갔는지 보이지 않고 허물어진 돌담 옆에서 흰 강아지 한 마리 엷은 겨울 햇살에 조을고 있다 법고 소리도 죽비소리도 들리지않는 절 뒤 은수원사시나무 가지에 은빛 비늘 몇 개 걸리어 번뜩인다 아마도 그리움보다 깊은 적멸의 바다로 떠난 모양이다 ///

-허형만<sup>39)</sup> ‘그 처마 풍경엔 물고기가 없다’

풍경소리는 귀 기우릴 적에 들려야 제 맛이다. 소리 없는 풍경도, 자심한 폭풍우에 설 새 없이 울리는 풍경도 본연이 아니다. 백자 속 풍경소리는 그래서 귀하다.

드높은 부연(附椽) 끝에 풍경(風磬)소리 들리던 날  
몹사리 기다리던 그린 임이 오셨을 제  
꽃 아래 빛은 그 술을 여기 담아 오도다.

-김상옥 연시조 ‘백자부(白磁賦)’ 중

다음호에 계속 ㉮

27) 이은상 「흐르는 봄빛 초」  
28) 허연 「봄」 1966. 「불온한 검은피」  
29) 이병기 「뜰」  
30) 이병기 「소나기」

31) 이해문 「겨울비」  
32) 이희승 「구두쟁이」  
33) 윤곤강 「나비」 1930.  
34) 1973. 함양 「밤의 피치카도」

35) 김명인 ‘오래된 사원’ 중  
36) 황영희 ‘낙가사에 눈 내리고’ 중  
37) 이은상 ‘성불사의 밤’  
38) 1946. 경북 울진. 여행자나무 외

39) 1945. 전남 순천. 그늘, 따뜻한 그리움 외

# 한국건축 태동의 주역 -예산지역 건축사 김세환(Ⅱ)

Architect, Kim, Se-hwan, From Yesan, Who Pioneered Korean Architecture.

해방 이전과 이후 근현대건축과 작품활동(1950~1970)을 중심으로

김득수 | 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

## 예산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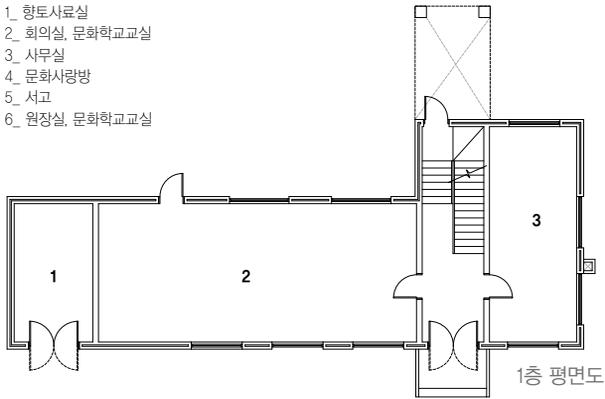
Yesan Culture Center

대지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33  
대지면적 : 13,136.00㎡  
건축면적 : 115.96㎡  
연 면 적 : 241.28㎡  
건 폐 율 : 0.88%  
용 적 륜 : 1.84%  
규 모 : 지상 2층  
구 조 : 조적조, 슬라브  
설 계 : 김세환, 김득수  
감 리 : 김세환  
준 공 : 196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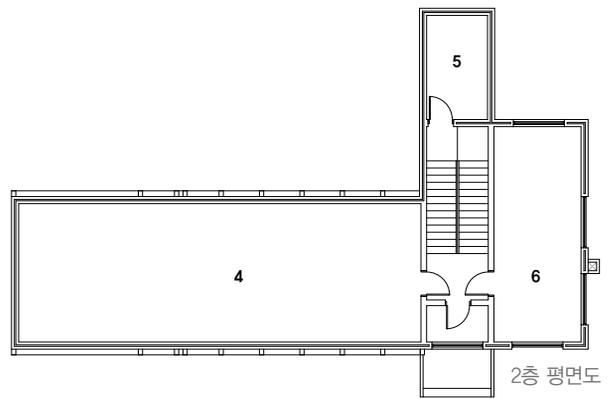
동시대에 한국의 모더니즘이 봉착하게 되는 또 하나의 달레마는 관료주의이다. 예산문화원 평면의 구성은 간략화 된 것이나 평면과 외관에는 부드러운 감성이 있다. 평면에서 보이는 벽면의 완곡한 선들은 다시 외관에서 이 건축이 매우 농후한 낭만성을 지니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낭만성과 인간미가 김세환 건축가의 관료주의를 탈피하려는 의도로 잘 나타나고 있고, 외관의 특징은 수직수평 모던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스케치보다도 짙은 감성이 충분히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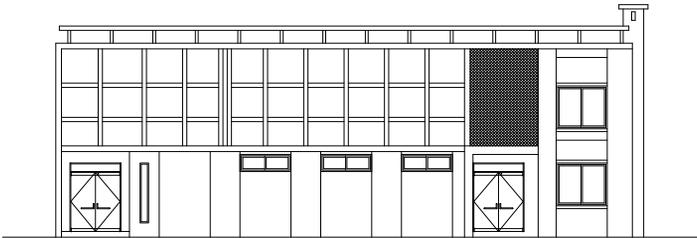
- 1. 향토사료실
- 2. 회의실, 문화학교교실
- 3. 사무실
- 4. 문화사랑방
- 5. 서고
- 6. 원장실, 문화학교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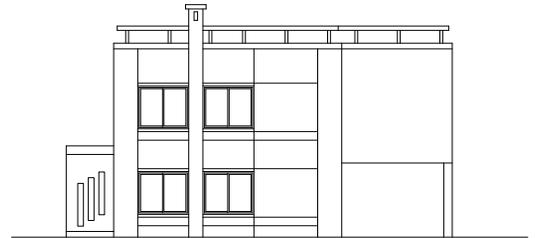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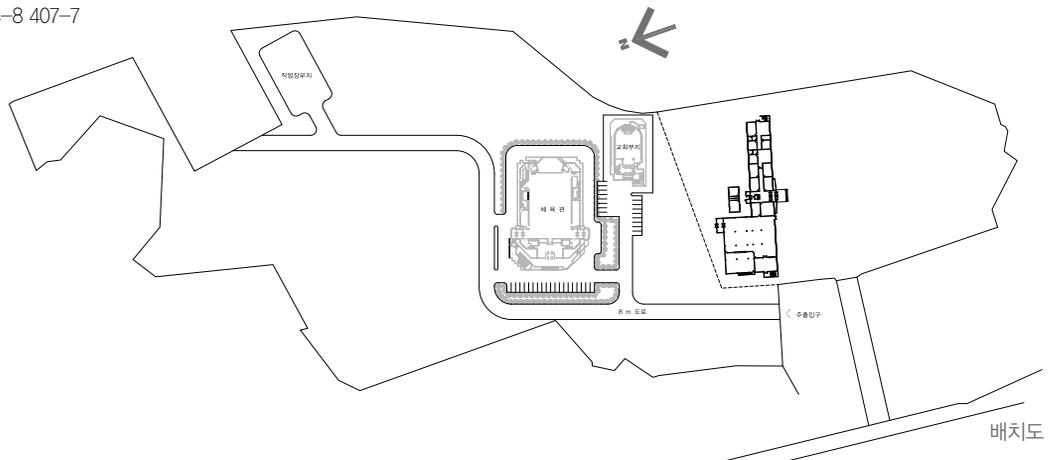


우측면도

# 정심원 장애인 교육관

Jungshimwon Education Hall

- 대지위치 : 보령군 주교면 관창리 산14-1, 14-8 407-7
- 대지면적 : 49,250.00㎡ (14,898.06평)
- 건축면적 : 6,670.96㎡ (2,017.96평)
- 연면적 : 12,716.64㎡ (3,846.77평)
- 건폐율 : 13.54%
- 용적률 : 25.84%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설계 : 김세환
- 준공 : 19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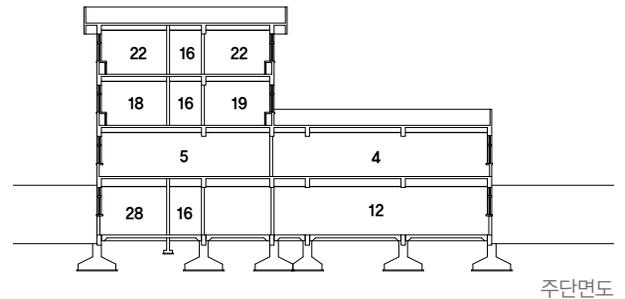
이 작품은 건축사 김세환씨가 건설부시행 1급 건축사시험을 합격한 후 설계한 작품으로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서 의뢰받은 프로젝트다. 국도에 접한 나지막한 언덕에 복합시설을 갖춘 노유자 시설 건축물로 전면에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야외실습장소인 텃밭과 간이 축사 등이 펼쳐져 있다. 장래 증축을 고려한 남향 배치와 접근성을 잘 고려하였다. 진입도로에 노출된 서측 지하층은 창고, 보일러실, 냉동실, 목욕실, 관리인숙소 등으로 계획되었고, 남측 자연경사로를 따라 1층에 현관로비를 중심으로 사무실, 이사장실, 숙소, 휴게실 등은 동쪽에 두고, 서쪽으로는 주방,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등으로 구분되었다. 2층에는 병원용으로 동선을 고려하여 원장실, 수술실, 약국을 두고, 병실은 청장년,

아동실로 구분하였다. 3층에 강당, 시청각실, 가사실 등을 구분하여 계획한 건축사의 배려가 엿보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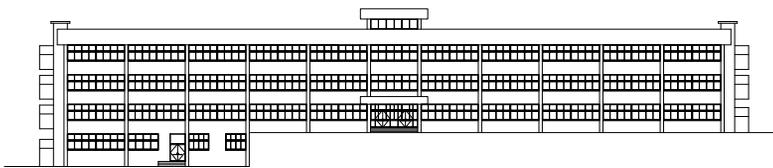
충남 대천시에 자리잡은 충남정심원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는 장애인시설인 장애인체육관, 교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계한 김득수 작품 자료 모음 중 발견된 본관동 증축설계에 임하면서 본관동은 부친인 건축사 김세환씨가 계획 설계한 작품임을 알게 되었다. 최초 본관동은 지하 1층에 보일러실, 목욕실, 관리인실 등 지상 1층에 사무실, 식당, 세탁장, 숙소 등 단층으로 설계한 건축사 김세환씨는 1976년도 지상 3층 증축 설계에서 2층에 의료시설로 병실, 피복저장고, 3층에 강당, 시청각실, 아동실, 가사실 등을 둔 지상 3층의 복합적인 본관동 설계를 마무리한 프로젝트다. 본인은 1993

년도 지하 1층 창고, 지상 1층 기존 50명에서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증축 설계하게 된다. 평면계획은 건물의 기능에 적합한 효율적인 모듈구성과 실수요자 위주의 공간구성을 하였으며, 유니트 4.8m×7.2m를 산출하여 2.4m 중복도를 채택한 남향으로 배치했고, 계단 램프, 화장실, 창고 등은 북쪽에 배치되어 있다.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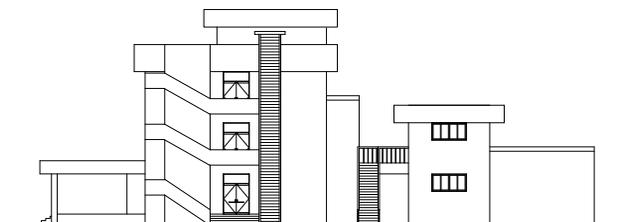
타 부대시설로 본건물에 부합되도록 차량동선, 보행자동선, 건물 간의 유기적 관계에서 오는 생산성 향상과 중증장애자 환경의 적정 분위기에 주안점을 둔 건축가의 고심이 엿보인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대를 이어 설계한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닌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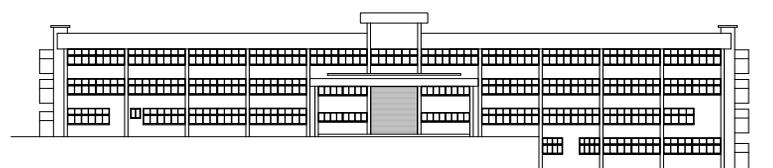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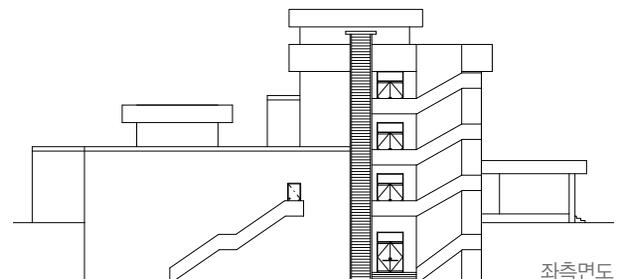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1\_로비  
2\_방풍실  
3\_식당  
4\_주방  
5\_직원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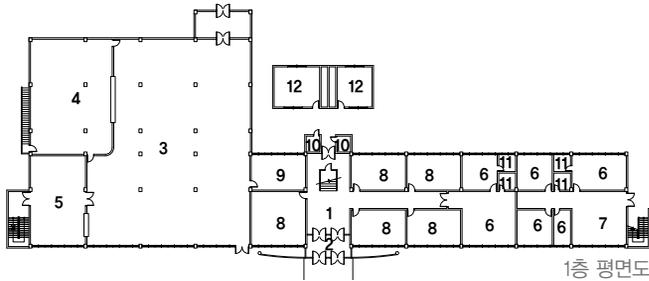
6\_방  
7\_거실  
8\_사무실  
9\_영양사실  
10\_원장실

11\_욕실  
12\_침고  
13\_보일러실  
14\_목욕탕  
15\_탈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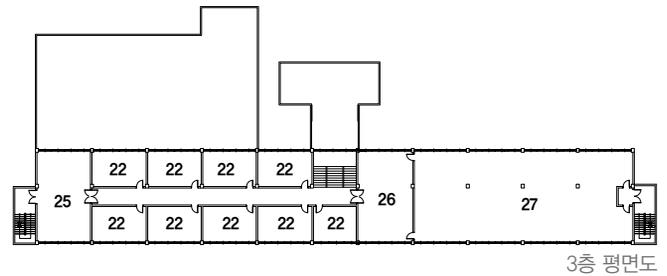
16\_냉동실  
17\_화장실  
18\_수술실  
19\_약국  
20\_병실

21\_서고  
22\_아동실  
23\_신발보관실  
24\_피복자랑  
25\_가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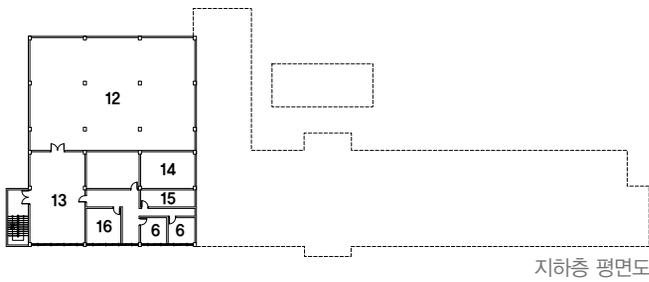
26\_시청각실  
27\_강당  
28\_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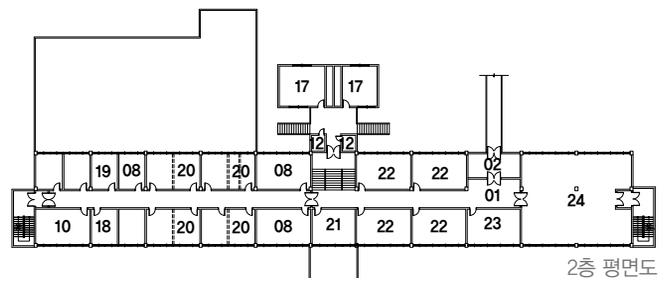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예산농업전문대

Yesan Agricultural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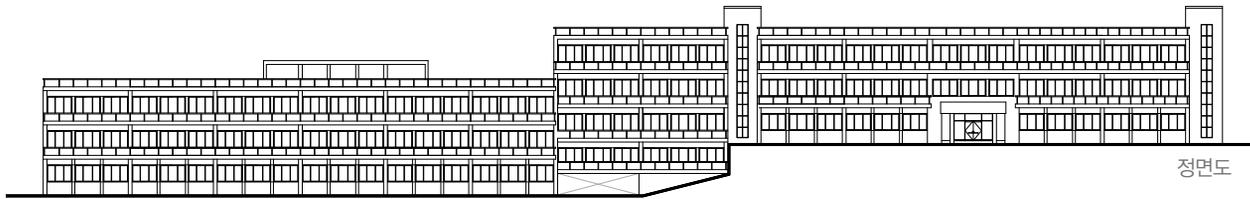
대지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527  
 대지면적 : 90,000m<sup>2</sup>  
 건축면적 : 1,250m<sup>2</sup>  
 연 면 적 : 3,680m<sup>2</sup>  
 규 모 : 지상 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설 계 : 김세환  
 감 리 : 김세환  
 준 공 : 1962. 12. 25

필자가 대학 건축과에 다니던 학창시절 김세환 부친께서 본관설계를 하실 때 참여했던 작품으로 그 당시 중견 건축사로 활약한 폭 넓은 분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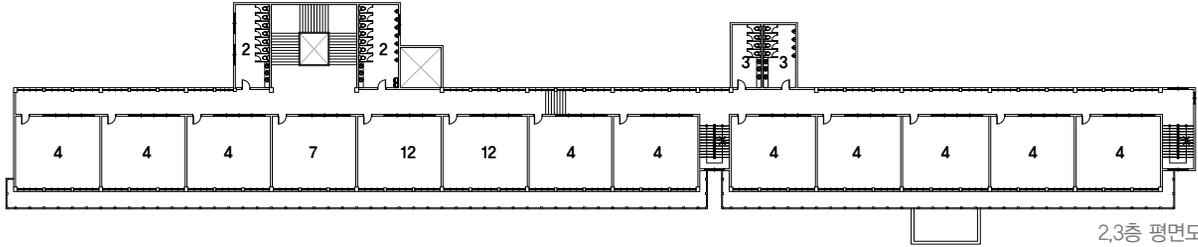
섬세한 곡선 부분과 Rib의 돌출 부분을 정교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특수제작한 블럭을 이용, PC패널로 표현하는데 성공하였다. 여기에 합리주의적 모더니즘에서 나타나는 심플한 이미지를 외피에 표현하겠다는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전면에 부각된 전면성을 강조한 캔틸레버의 난간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섬세한 거푸집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60년대 모던한 목공인의 장인 정신이 이루어 낸 획기적인 시공으로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건축사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 작품을 통해 견적, 도면을 잉킹하는 방법, 청사진 틀을 사용하는 방법, 암모니아 통에 현상하는 것 등을 배웠기에 특별한 감회가 서려있는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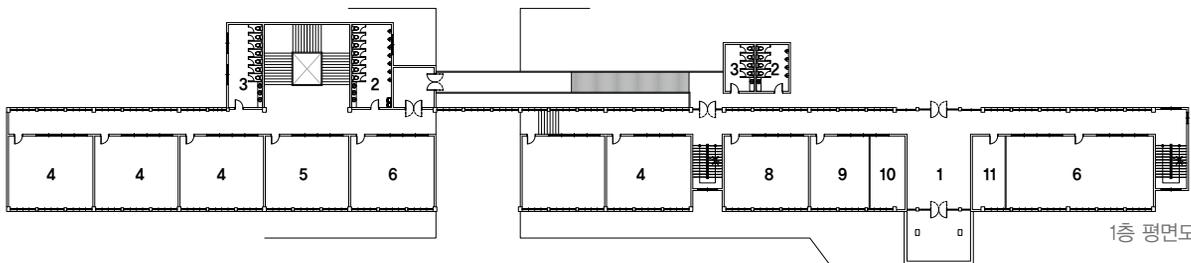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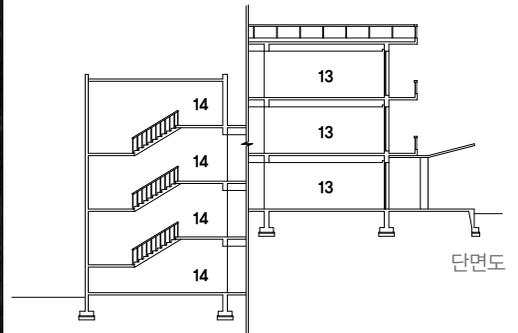
2,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           |         |         |
|-----------|---------|---------|
| 1. 로비     | 6. 교무실  | 11. 행정실 |
| 2. 화장실(남) | 7. 연구실  | 12. 실습실 |
| 3. 화장실(여) | 8. 서고실  | 13. 홀   |
| 4. 교실     | 9. 교장실  | 14. 계단실 |
| 5. 지도교사   | 10. 사무실 |         |



단면도



# 건설감정을 주목하자

Take note of Building Valuation

이기상 | (주씨엠엑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우연히 일본건축사회연합회(<http://www.kenchikushikai.or.jp>)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다. 바로 '전공건축사'라는 제도였다. 건축사를 "마을만들기, 총괄디자인, 구조설계, 설비설계, 건축생산(건축 시공 관련), 동량(고건축), 법령, 교육연구" 등 8개의 분야로 나누고 있었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다양화하는 건축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전공 영역 및 전문 분야로 나눈다는 내용이었다. 하나의 자격증을 다시 전문분야별로 나누는 예가 또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사안에 대한 변호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전문분야'를 등록한 증서를 사무실 벽에 내걸고 있다. 차별화가 필요한 것이다.

반면 건축사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직 스스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건축문화의 침병이라는 명제에 매달려 설계디자인이나 인허가 업무에만 안주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설계시장은 갈수록 줄어들는데 반해 건축사의 수는 포화상태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 아닌가. 또 다른 길은 없는가? 뭔가 모색해야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일본의 '전공건축사' 제도나 변호사들의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한번 곱씹어 볼만하다. 이미 우리나라도 전문적인 영역을 개발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관심을 기울여 볼만한 새로운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건설감정'을 풀어보고자 한다. 알다시피 거의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기초가 부실하면 집이 내려앉고, 단열이 미비하면 겨울에 춥고, 방수가 허술하면 비가 샌다.

대부분 하자와 관련된 것들이다. 계약상의 불일치나 설계 변경, 추가공사 등 공사비를 둘러싼 문제가 분쟁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많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소송으로 전개된다. 즉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판장 즉, 판사는 건설분야의 비전문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판사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인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증거방법이 '감정(鑑定)'이다.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는 감정인의 전문지식과 식견을 통한 조사 결과로 법관의 사실판단 능력을 보조하는 기능을 가지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가자.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건설소송에서 당사자의 청원에 의한 감정을 채택하고 있지만 감정인 선정 방식은 다르다. 우리나라처럼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추천방식이 아닌 아주 전문화된 감정인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건설감정인선정은 '건축관계 소송위원회 규칙'에 근거하여 재판소나 조정위원회가 최고재판소가 감정을 의뢰할 경우 '건축관계 소송위원회'가 감정인 후보자를 선정한다. 실무적으로는 일본건축학회의 '사법지원 건축회의'가 감정인 추천 업무를 맡고 있다.

사법지원건축회의는 건축사 및 대학 연구자 중에서 적정한 건축사를 사법지원 건축회원으로 등록하고 있다가 감정인후보자 추천의뢰가 오면 회원 중에서 감정사항에 맞는 전문분야 건축사

2011년 9월 이처럼 많은 건축사들이 모여 각고의 노력 끝에 마련된 감정기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세미나」를 통해 발표하게 된다.

당시 세미나에는 300여명의 감정인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발표된 자료는 '건설감정 기준'과 '감정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감정의 편차를 해소하고 객관화, 과학화, 표준화를 도모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바로 '건설감정실무'가 그것이다.

를 추천한다고 한다. 이들 건축사는 설계업무를 하지 않고 오로지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업무만을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전공건축사제도 중 '법령'건축사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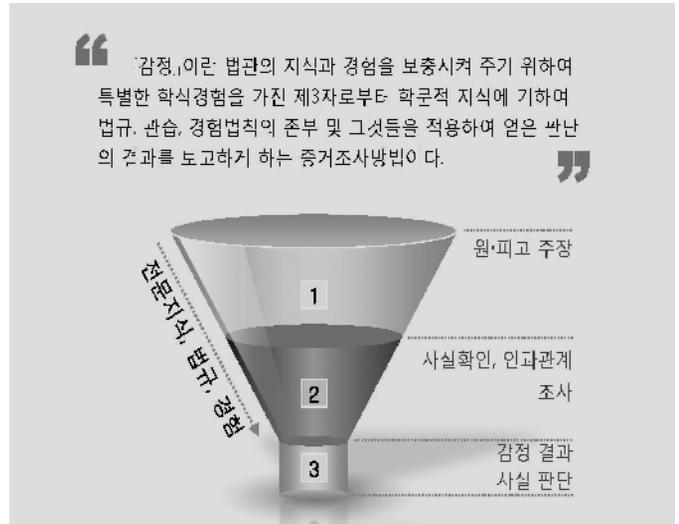
멀지않은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의 조사감정 업무를 '건축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바로 그 근거가 건축사법 제19조의 2항으로 규정한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였다. 하지만 2007년 기술사법에 이와 유사한 조항이 삽입되면서 건축사의 독점적 지위는 무너져 내렸다. 일본의 경우 건축사가 감정업무를 전담하고 아예 '법령건축사'로 진화하고 있는데 비하면 너무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아직 긍정적인 신호도 많다.

우선 법원에서 인식하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위상은 여전히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 기준으로 통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감정실무' 지침을 바로 '건축사'들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의 김영수 회장께서도 감정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듯이 현명효(전 서울시건축사회 감정위원회 위원장), 이명규 건축사를 비롯한 몇몇 건축사들은 감정으로 특화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국내 건설감정의 맥을 짚고 큰 틀을 잡은 것이다. 그때의 일을 한번 되짚어 보자.

건설감정인 세미나는 사법사상 최초로 2002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건설소송실무연구회장인 윤재운 부장판사(현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 세미나는 감정서 양식과 감정기준 등을 정립하는 큰 틀이 되었다. 이후 매년 '건설감정인 실무연수회'가 열렸고 2004년부터 강재철 부장판사가 주관한 기간에는 실무상 쟁점에 대한 연구 성과가 담긴 '건설재판실무논단'이 발간되기도 한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감정인 세미나는 건설감정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이때 김영수 회장이 강재철 부장판사를 도와 '건설감정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감정의 체계를 잡았다. 이후 서울건축사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현명효 감정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 '건축물의 조사감정서 작성요령'이란 지침서를 내놓고 아예 대대적인 감정교육까지 실시하였다. 이미 그때 전문영역으로서 감정을 인식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하자사건이 늘어나면서 심화된 감정기준 연구의



감정의 의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마침 전문적인 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건축사회의 활동을 접하고 감정기준의 공동연구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그때가 2011년 3월이었다.

당시 서울시건축사회 감정위원장이었던 현명효 건축사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소속 '감정위원'들과 일부 기술사들도 참여시켜 감정TF을 구성하게 된다. 이후 6개월 동안 열띤 토론과 세미나를 거쳐 '건설감정실무'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무려 16차에 걸친 회의와 5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바로 그 회의 장소가 건축사회관 7층 서울시건축사회 회의실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소송실무연구회장(고충정 부장판사)이 직접 서울시건축사회를 방문하여 강석후 회장과 현명효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정말 난상토론이었지만 현명효 감정인TF위원장의 탁월한 진행으로 논쟁은 가다듬어지고 마침내 일치된 감정기준과 표준 서식이 결정되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있다. 감정기준을 연구한 것은 감정TF였지만 이를 검토하고 보완한 것은 당시 법원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시던 김인하, 민정민 건축사였다. 조정을 마치고도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밤늦도록 감정기준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진단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1년 9월 이처럼 많은 건축사들이 모여 각고의 노력 끝에 마련된 감정기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세미나」를 통해 발표하게 된다. 당시 세미나에는 300여명의 감정인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발표된 자료는 '건설감정

건설감정 전 분야는 건축사가 전적으로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무라는 것이다.  
 역지가 아니다.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전문 감정업체를 살펴보면 심중팔구는 건축사사무소다.  
 감정내역을 전문으로 서비스하는 건축사사무소도 있고  
 전문 감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카페도 대부분 건축사사무소가 운영하고 있다. 확인해 보시라.

정 기준'과 '감정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감정의 편차를 해소하고 객관화, 과학화, 표준화를 도모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바로 '건설감정실무'가 그것이다.

2013년 6월에는 건설감정실무에 참여했던 건축사들이 두툼한 건설감정 전문서도 내놓았다. '건설감정실무'가 건설감정의 기준을 정립한 지침이었다면 '건설감정(하자편)'은 건축물의 하자를 심도 있게 다룬 참고서라고 할 수 있다. 무려 10만 건의 하자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기술이론부터 창호나 가구의 세세한 부위의 하자까지 감정 전반을 두루 풀이하고 있다. 내용 또한 체계적이고 농도가 짙다. 건축하자를 다룬 감정분야 최초의 책이기도 하다.

그동안 건설 분야의 감정실무에 대한 해설과 심화된 정보를 요청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참고로 할 서적도 드물고, 관련 논문의 양이 빈약했다. 업무를 새로이 다잡아야 하는 감정인들에게는 참고서로, 감정에 입문하고자하는 건축사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다.

이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감정실무는 건축사회관에서, 건축사들이 주도하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바라보는 건축사의 위상과 신뢰는 더욱 높아졌다. 자부심을 느껴도 무방할 것이다.

'건설감정'에 관한 긍정적인 신호가 몇 가지 더 있다. 건설감정은 건축물의 하자, 건축물의 손상·피해, 공사대금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는 감정이 중복되어 신청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설계분야와 유익비

에 대한 감정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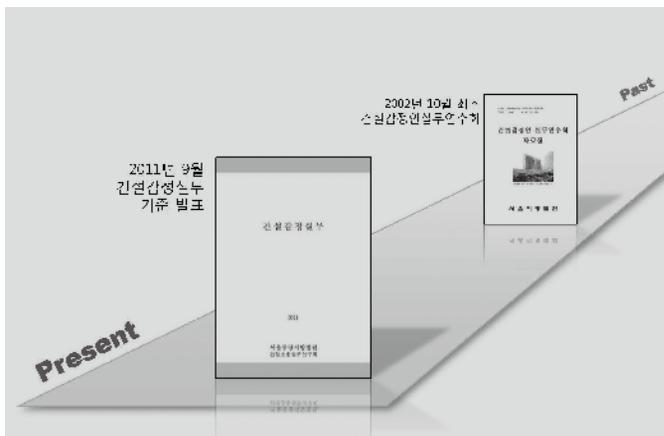
하자감정은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하자의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감정이다. 건축물의 하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설계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 설계상 하자, 건축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 시공상 하자, 감리과정에서 발생한 감리상 하자, 건축물을 인도받은 후 도급인 등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관리상 하자로 나뉜다. 그런데 말했잖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감정실무'를 건축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고. 건설감정실무의 주 내용은 건축물의 하자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공동연구에 참여했던 건축사들을 중심으로 아주 충실한 감정교육이 가능하다.

건축물의 손상에 대한 원인 또는 상태의 감정은 주로 토지굴착으로 인한 인접지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감정이다. 만약 건물의 침하나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가 가능하다면 하자보수비 상당액이,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당시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가 된다. 하지만 훼손된 건물의 보수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하자보수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 역시 하자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 문제가 없다.

공사비 감정은 공사가 중단된 경우의 기성고 비율의 산정과 추가공사비산정을 위한 감정이다. 건축공사에 여러 시공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공정 중에서 기성고 비율을 구하는 시공자가 시공한 공사부분을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고, 다툼 있는 부분을 명시하여 각 부분별로 감정해야 한다. 판결 시에 각 부분의 공사비 구분이 가능해야하기 때문이다. 추가공사의 경우 그 공사 당시 소요된 비용, 변경공사의 경우 변경 공사에 소요된 당시의 공사비용과 도급계약에 정한 변경 전 공사비용의 차액이 감정사항이 될 것이다. 이른바 적산 감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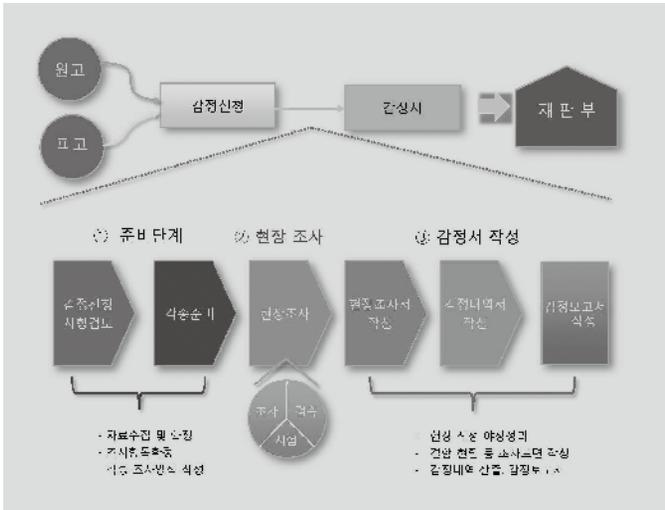
적산자료, 내역서는 바로 설계자가 작성하는 것 아닌가. 즉 설계서의 한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적산업체 거의 대부분이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에서 건축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공사대금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설계감정은 그야 말로 우리 분야 아닌가? 건축사가 아니면 수행이 불가능하다. 건축주는 필연적으로 건축사와 만나서 설계를 의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계했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

건설시장은 불황인 반면, 법률시장은 호황인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고도로 복잡한 업무지만 그만큼 성장성이 있어 건축사에게 가장 적합한 업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감정을 부수적 업무로만 여겼다면  
 전문 분야로서 진지하게 인식하는 전환적 시각이 필요하다.



감정의 흐름

을 경우나 적법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및 설계의 유효성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한다. 설계의 결과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나 설명책임을 다했는지가 문제시 될 때도 있다.

최근에는 설계자에 대하여 '전문가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하므로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설계비 보수청구권에 관한 다툼이 많다. 설계용역비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경우, 용역비는 확정됐지만 나중에 계약이 해지됐을 때 설계를 하고서도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설계는 예술적인 감각, 표현에다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서비스로 설계비의 책정은 공사비와 같이 기계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다. 이 같은 설계용역비 감정 시에는 당초 당사자 간의 계약체결 방법 및 계약의 중도 해지 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설계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유익비감정에서는 필요비와 유익비를 구분해야 한다. 필요비가 임차물건을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유익비는 임차물건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데 투입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어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필요하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공사비감정과 유사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건설감정 전 분야는 건축사가 전적으로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무라는 것이다. 역지가 아니다.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전문 감정업체를 살펴보면 십중팔구는 건축사사무소다. 감정내역을 전문으로 서비스하는 건축사사무소도 있고, 전문 감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카페도 대부분 건축사사무소가 운영하고 있다. 확인해 보시라.

여기에 건축사가 감정 전문가로 자리 잡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수많은 설계를 하면서도 고질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분명 설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자는 계속된다. 1980년대 하자에 관한 논문에 나오는 균열, 결로, 누수, 백화와 같은 하자가 2013년 현재의 건축물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교훈은 없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건축사에 의한 감정이 될 수 있다. 건축프로세스의 처음(설계)과 마지막(감정)을 건축사가 주도할 수 있게 되면 아주 효과적인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런 피드백으로 설계상의 문제점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질 좋은 설계의 도출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된다. 나아가 선진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건축문화 창달이라는 일석 삼사조의 효과를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내 건설산업은 2010년을 정점으로 성장기를 넘어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건설업과 설계업은 동시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때문에 많은 건축사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다. 고민에 쌓여있지만 활로를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건설감정은 성장추세에 놓여있는 법률시장의 필수적 분야라고 할 수 있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분쟁이 늘어날수록 건설감정은 건설 소송에서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건설시장은 불황인 반면, 법률시장은 호황인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고도로 복잡한 업무지만 그만큼 성장성이 있어 건축사에게 가장 적합한 업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감정을 부수적 업무로만 여겼다면 전문 분야로서 진지하게 인식하는 전환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라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내친 김에 건축사교육원에서 정식 교육종목으로 채택하여 감정인 교육을 심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

# 한국 근·현대 건축기술사연표(2/3)

Modern Korean Architectural Technology Chronological Table

한동수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정송이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부 석사과정

## 건설사의 창립 및 변화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인에 의한 건설사는 현 대립건설의 모태가 되는 부림상회 이외에는 이렇다할만한 것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건설 관련 공사는 현재도 일본의 대표적인 건설사인 죽중공무점(竹中工務店), 대성건설(大成建設)과 같은 일본인 업체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 이들이 떠나간 자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인이 세운 건설사로 대체되었는데 1945년에 공영토건사와 충남토건사를 필두로 1960년대를 전후하여 다수의 건설사가 창립되었다. 그리고 삼성건설이 창립된 1974년을 전후로 또 한 차례의 건설사의 창립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해외건설 및 국내 건축경기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건설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공급을 위해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사이에 20여개의 대학에서 건축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각종 학회의 창립이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건축기술관련 학회들은 198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창립되고 있다.

## 건설 및 건축 재료의 국산화와 개발

건설 및 건축 재료의 개발과 국산화는 건축물의 외피는 물론 구조, 공법, 설비, 형태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 현대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의 자급자족 이상의 충분한 물량 공급은 우리나라 건축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건설 및 건축 재료의 개발과 국산화는 1970년대와 1990년대 전후 두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그 가운데 1970년대의 대표적인 것을 들면 1970년에 단열복층유리의 개발과 생산, 1974년 석고보드의 국내 생산, 1979년 알루미늄의 국내 생산 등이 있으며 1990년대 전후의 경우에는 1987년 조립식 온돌패널 기술개발, 1989년 건식하드보드 생산, 1995년 방음콘크리트 개발, 1999년 불연

바닥재 개발 등이 있다. 이러한 것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건설 및 건축 재료를 개발하고 생산하여 공급하는 다양한 전문 업체들이 창립되었다.

## 건설장비의 도입

해방 직후 미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많았고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건설현장에서 새로운 장비를 접하게 되었으며 기술 및 운영능력을 습득하게 되었다. 특히 1950년대의 건설공사는 대부분 작은 공구와 인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때 사용된 건설장비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USOM(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미국 대외 원조 기관)의 건설현장을 빈넬(Vinnel) 회사가 맡아 진행 하면서 배치 플랜트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등 다양한 장비가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건설산업이 활발해지면서 건설장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최초의 기계화된 건설시공은 울산공업단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건설장비들은 1970년대에 들어서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책이 힘입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외국 유명건설장비 생산회사와 공동으로 굴삭기, 지게차 등의 건설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가 속속 설립되었다. 특히 1975년에 준공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착공 직전에는 국내 건설 중장비의 보유상황에 대한 일제 조사가 이루어져 건설장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1974년 설립된 삼성중공업이 1979년부터 최신 건설장비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한 일이다. 1980년대는 건설장비의 성장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과의 기술제휴로 생산하던 일부 장비를 자체모델로 대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건설장비의 국산화는 중동지역을 비롯한 해외건설현장, 국내의 대형 국책 토목건축사업을 가능하게 했으며 주요 수출품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 건설 및 건축 재료의 국산화와 개발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연구 기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38 조선수리조합협회 (현 농기계조합협회)</li> <li>1941 조선주택업단 (현 대한주택공사)</li> <li>1945 조선건축기술단 설립(현 대한건축협회)</li> <li>1945 조선건축사회 설립(현 대한건축사협회 건신)</li> <li>1945 조선토건협회(현 대한건설협회)</li> <li>1949 대한미술품회 건축부 신설</li> <li>1951 대한토목학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57 한국건축기술협회</li> <li>1962 대한주택공사</li> <li>1959 대한국토도시계획회의 설립</li> <li>1963 건설경제조합</li> <li>1963 국제산업기술(주) (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li> <li>1963 한국영화공업협회 (현 한국시멘트협회)</li> <li>1966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56 문경시멘트공장 준공</li> <li>1956 인천합성화학공장 준공</li> <li>1957 금강유래트윈주식회사</li> <li>1957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li> <li>1957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li> <li>1961 한일세멘트공업주식회사 (현 동양세멘트)</li> <li>1962 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현 평양화학)</li> <li>1963 송강기계제련공장 준공 (한국승강기제리스)</li> <li>1964 평양시멘트 유원화학공장</li> <li>1964 한일시멘트 단양공장</li> <li>1964 한일시멘트 단양공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1 한성프라스틱주식회사 -대한수택공사 51%, 일본대성건설 49% 출자</li> <li>1966 동양세멘트(주)</li> <li>1966 아세시멘트 제철공장</li> <li>1968 한일시멘트 동해공장</li> <li>1969 동성주유회사</li> <li>1969 동성시멘트(주)</li> <li>1962 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현 평양화학)</li> <li>1963 송강기계제련공장 준공 (한국승강기제리스)</li> <li>1964 평양시멘트 유원화학공장</li> <li>1964 한일시멘트 단양공장</li> <li>1964 한일시멘트 단양공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8 한국시멘트(주) (현 한국시멘트)</li> <li>1978 종합건축자재 생산 착수 및 조립식주택사업 진출 기업</li> <li>1978 한일시멘트, 한국세라믹공업, 한일건축, 국동건설, 대일산업, 동아건설, 한일건축, 미통건설, 신도종합개발, 동아종합개발, 성환기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0 한국복용유리(주)</li> <li>1978 삼성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4 한국유리기술연구소</li> <li>1985 한국유리연방공사</li> <li>1988 건설기술연구원</li> <li>1988 건설진흥연구소</li> <li>1988 건설진흥연구소</li> <li>1988 최초 민간건설업체</li> <li>1989 한국콘크리트학회</li> <li>1989 한국건축구조학회</li> <li>1989 한국주거학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9 한국건설관리학회</li> <li>2000 한국건설경영학회</li> <li>2000 한국도시계획학회</li> <li>2001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7 한국친환경건축설비학회</li> <li>2010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li> <li>2010 한국환경공단</li> </ul>
건축사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8 서울승강기공업사</li> <li>1948 한국승강기제리스로 개칭</li> <li>1963 송강기계제련공장 건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2 상천시멘트공장 준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8 서울승강기공업사</li> <li>1948 한국승강기제리스로 개칭</li> <li>1963 송강기계제련공장 건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3 최초 단면 거푸집 적용 (현동성문방)</li> <li>1964 국내 최초 포장시멘트 수거 (현용양회)</li> <li>1966 최초 사면 거푸집 적용 (보흥은행본관)</li> <li>1966 경방콘크리트무판재 자체 개발 (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0 국내 최초 단면복용유리(베아글라스) 개발 (국영유리)</li> <li>1970 일제 최초 시멘트 용해 (한일시멘트)</li> <li>1971 국내 최초 건조시멘트 도르타르 역밀말' 출시</li> <li>1972 국내 최초 건축용수계 원료인 에폭시수지 생산 (국도화학)</li> <li>1974 석고보드 국내 최초 생산 (백안건설)</li> <li>1974 Apha Glass 사용 (의원병원 본관 계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6 합성방수제 국내 최초 개발 (중앙방수)</li> <li>1977 평정토사의 플루트공법(마우라제코) 도입 (한글라스)</li> <li>1966 최초 사면 거푸집 적용 (보흥은행본관)</li> <li>1966 경방콘크리트무판재 자체 개발 (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9 한국산 강재 사용</li> <li>1989 국내 최초 고강도 용나소아블면 특강 개발 (새호건설)</li> <li>1989 국내 최초 건축용콘크리트용량 준공 (영남물산)</li> <li>1987 국내 최초 초관식 중용판설 기술 개발 (대리엔지니어링)</li> <li>1988 국내 최초 불포상 플라스틱 건축자재 하이브리드 생산 (주식회사 럭키)</li> <li>1988 강화플라스틱 자체 생산 (신진기술개발)</li> <li>1991 국내 최초 불포상 플라스틱 건축자재 하이브리드 생산 (경주종합리조트)</li> <li>1991 세계 최초 민유업을 이용한 건축 내외장재 개발 (신영자재)</li> <li>1991 첨단열 코팅식벽체 개발 및 공급 (대원기술산업)</li> <li>1994 수중불포상 콘크리트 개발 (그라신엔지니어링)</li> <li>1994 국내 최초 특수시멘트 개발 (동양시멘트)</li> <li>1994 거푸집용수계열제 콘크리트 개발 (현용양회)</li> <li>1995 자발적 고강도 콘크리트 개발 (그라신엔지니어링)</li> <li>1995 도관용 콘크리트 개발 (중앙시멘트)</li> <li>1995 방음콘크리트 개발 (현용양회)</li> <li>1996 국내 최초 방음콘크리트 개발 (금강)</li> <li>1996 온돌 마감플라 콘화재 개발 (유안석회소, 고영화학)</li> <li>1997 일제 최초 역밀말 25kg 출시 (한일시멘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 최초 원천도출이 낮은 크립톤가스를 주입한 상용유리 생산 (LG화학)</li> <li>2009 디어영물리 글라스 생산 (한글라스)</li> </ul>	
건축사 장비									

건설 및 건축 재료의 국산화와 개발

# 건설장비의 도입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건설사 창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39 부림생회 (현 대림산업(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5 공영토건사 (현 광화건설(주))</li> <li>1945 흥상토건사 (현 동아건설산업(주))</li> <li>1946 삼환기업공사 (현 삼환기업주식회사)</li> <li>1945 동산건설사 (현 대아건설주식회사)</li> <li>1947 현대토건사 (현 현대건설(주))</li> <li>1947 대영건설사 (현 대영건설(주))</li> <li>1947 남영토건사 설립 (현 남영토건(주))</li> <li>1938 조선수리조합협회 설립 (현 농지개발조합연합회)</li> <li>1948 영남토건사 (현 삼부토건(주))</li> <li>1951 경남토건(주) 설립</li> <li>1952 평화건설사 (현 북대건설(주))</li> <li>1952 삼성건설(주) 설립 (현 신우건설(주))</li> <li>1953 대한중공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2 민간중공업주식회사로 개칭</li> <li>-1978 현대그룹 편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57 대진토건(주)</li> <li>1957 한국유리공업(주)</li> <li>1958 한국세라믹공업 (현 북산세라믹(주))</li> <li>1958 (주)신일기업공사</li> <li>1959 대한건설(주)</li> <li>1959 대동건설(주)</li> <li>1959 전영건설(주)</li> <li>1960 두산건설 (현 두산건설(주))</li> <li>1962 현대영풍(주) (현 두산중공업)</li> <li>1962 한양공업(주) (1975년 포스트그룹 계열사로 합병)</li> <li>1963 한국기계공업(주) 재합속 (두산중공업의 전신)</li> <li>1965 고려산업개발 (현 대림산업 지회사)</li> <li>1969 박희개발주식회사 (현 GS건설(주))</li> <li>1973 현대조선중공업(주) 설립 (현 현대중공업)</li> <li>1974 영성중공업주식회사 설립</li> <li>1975 대한양회 특수합병 (영성양회)</li> <li>1962 경흥시멘트 동해공장</li> <li>1956 인천반유리공업 공장</li> <li>1957 공강출력트램주식회사</li> <li>1957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li> <li>1961 한일세멘트공업(주)</li> <li>1962 평동양회공업주식회사 (현 평동양회)</li> <li>1963 송강기계력 전용공장 준공 (한국송강기계력사)</li> <li>1964 평동시멘트 영월공장</li> <li>1964 한일시멘트 단양공장</li> <li>1964 현대시멘트 단양공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2 USOM 건설철강, 새치롤먼트 최초 도입 (Vinnel Corporation)</li> <li>1965 레이몬트릭 최초 도입 (영동화학공업(주), 서빙고공장)</li> <li>1966 레이몬트릭 최초 생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2 트렉크레인 국내 생산 (현대양행)</li> <li>1974 풀사기 최초 생산 (한국중공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8 한국고시멘트제조 (현 한국씨멘티)</li> <li>1978 종합건축기계 생산 자수 및 조합식주철사업 진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일시멘트, 한국세라믹공업, 영일유리, 국동건설, 대영산업, 동아건설, 한일기계, 마흥건설, 삼도종합기업, 동아종합개발, 삼환기업 등</li> </ul> </li> <li>1989 국내 최초 콘크리트도움공정 준공 (현대물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3 삼성중공업, 삼성조선, 대성중공업 합</li> <li>1980 한국복용유리(주)</li> <li>1978 한국고시멘트제조 (현 한국씨멘티)</li> <li>1978 종합건축기계 생산 자수 및 조합식주철사업 진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일시멘트, 한국세라믹공업, 영일유리, 국동건설, 대영산업, 동아건설, 한일기계, 마흥건설, 삼도종합기업, 동아종합개발, 삼환기업 등</li> </ul> </li> <li>1989 국내 최초 콘크리트도움공정 준공 (현대물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2 포스코개발주식회사 (현 (주)포스코건설)</li> <li>1986 현대산업개발(주) 설립</li> <li>1988 동원산업, 한국시프로텍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5 임프리트리 최초 생산, 현대자동차</li> <li>1989 스칼라블도저, 수임 (일본 미쓰비시사 -&gt; 현대중공업)</li> <li>1985 울라움착기 개발 (대우중공업)</li> <li>1992 도시형 굴착기 최초 생산 (대우중공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2 포스코개발주식회사 (현 (주)포스코건설)</li> </ul>
건설 관련 회사 창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2 상철시멘트공장 준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8 서울중공업건설사</li> <li>-1948 한국중공업기계연구소 개칭</li> <li>-1963 송강기계력 전용공장 건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55 북도계 기중 (송과리 단양 풀터 공장 -&gt; 한국수리조합연합회)</li> <li>1955 동강시멘트공장 건설현장, 외부부 순수제 황해로우 최초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2 USOM 건설철강, 새치롤먼트 최초 도입 (Vinnel Corporation)</li> <li>1965 레이몬트릭 최초 도입 (영동화학공업(주), 서빙고공장)</li> <li>1966 레이몬트릭 최초 생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2 트렉크레인 국내 생산 (현대양행)</li> <li>1974 풀사기 최초 생산 (한국중공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3 삼성중공업, 삼성조선, 대성중공업 합</li> <li>1980 한국복용유리(주)</li> <li>1978 한국고시멘트제조 (현 한국씨멘티)</li> <li>1978 종합건축기계 생산 자수 및 조합식주철사업 진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일시멘트, 한국세라믹공업, 영일유리, 국동건설, 대영산업, 동아건설, 한일기계, 마흥건설, 삼도종합기업, 동아종합개발, 삼환기업 등</li> </ul> </li> <li>1989 국내 최초 콘크리트도움공정 준공 (현대물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2 포스코개발주식회사 (현 (주)포스코건설)</li> <li>1986 현대산업개발(주) 설립</li> <li>1988 동원산업, 한국시프로텍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5 임프리트리 최초 생산, 현대자동차</li> <li>1989 스칼라블도저, 수임 (일본 미쓰비시사 -&gt; 현대중공업)</li> <li>1985 울라움착기 개발 (대우중공업)</li> <li>1992 도시형 굴착기 최초 생산 (대우중공업)</li> </ul>	
건설사 창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2 USOM 건설철강, 새치롤먼트 최초 도입 (Vinnel Corporation)</li> <li>1965 레이몬트릭 최초 도입 (영동화학공업(주), 서빙고공장)</li> <li>1966 레이몬트릭 최초 생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8 조선수리 건설철강, 타워크레인 최초 도입 (상화기업, 현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78 한국고시멘트제조 (현 한국씨멘티)</li> <li>1978 종합건축기계 생산 자수 및 조합식주철사업 진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일시멘트, 한국세라믹공업, 영일유리, 국동건설, 대영산업, 동아건설, 한일기계, 마흥건설, 삼도종합기업, 동아종합개발, 삼환기업 등</li> </ul> </li> <li>1989 국내 최초 콘크리트도움공정 준공 (현대물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2 포스코개발주식회사 (현 (주)포스코건설)</li> <li>1986 현대산업개발(주) 설립</li> <li>1988 동원산업, 한국시프로텍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5 임프리트리 최초 생산, 현대자동차</li> <li>1989 스칼라블도저, 수임 (일본 미쓰비시사 -&gt; 현대중공업)</li> <li>1985 울라움착기 개발 (대우중공업)</li> <li>1992 도시형 굴착기 최초 생산 (대우중공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2 포스코개발주식회사 (현 (주)포스코건설)</li> </ul>	

건설장비의 도입

# 2013년도 미국건축사협회 전국대회 참관기

AIA 2013 National Convention and Design Exposition

강승우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1. 개요.

- 1) 명칭 : 2013년도 미국건축사협회(AIA) 전국대회 및 디자인 엑스포
- 2) 기간 : 6월20일부터 6월22일
- 3) 장소 : Denver Convention Center, Denver, Colorado
- 4) 주제 : “Building Leaders” - Leadership for Architecture; Leadership Beyond Architecture  
지도자 구축 또는 은유적으로 건축 지도자들 - 건축을 위한 지도력; 건축이상의 지도력
  - 보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비전적인 지도자로서의 건축사의 중요한 역할과 건축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 주제로 선택.
- 5) 한국참가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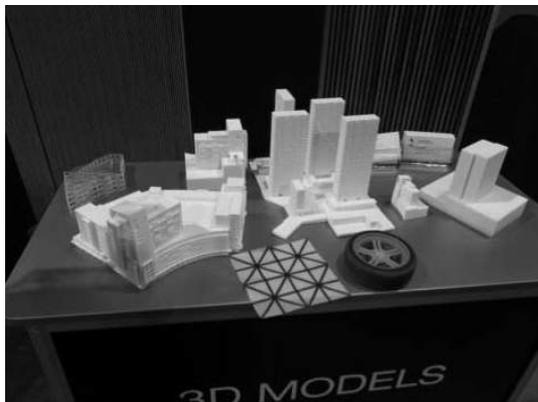
- 대한건축사협회 : 김영수 회장, 강성익 고문, 강승우 국제위원
- 한국건축가협회 : 한종률 부회장, 한영근 국제위원회 위원장

## 2. 미국건축사협회 전국대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미국건축사협회 총회 - 차기회장단 선거, 임원회의, 정관 변경, 사업 논의 등 협회 내부 회의 및 선거
- 2) 주최 주인 콜로라도 주 지회가 주관하는 파티, 건축투어, 강의, 전시
- 3)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 필수교육 - 각 주 건축사 자격증 유지에 필요한 교육시간과 미국건축사협회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들
  - 전국대회교육 - 기초연설, 사전워크숍, 공공건축가 워크숍,



자재전시 엑스포



자재전시 엑스포



2013 골드메달 - 톰 메인

세미나, 교육투어, 엑스포전시장 현장 교육

- 4) 이벤트와 투어 - 전임 회장들 만찬, 전임 회장부인들 만찬, 국제 단체장들 오찬등 여러 레벨의 교류, 사교 그리고 네트워킹을 위한 행사들로 외국대표단들이 주로 참석하는 이벤트
- 5) 자재전시 엑스포 - 각종 자재 및 기술들을 지속가능 에너지 전시관, 조명 전시관, 석재와 타일전시관, 미디어 전시관, 콘크리트 전시관, 금속 전시관, 목재 전시관, 소프트웨어 및 기술 전시관 등으로 분류하여 전시
- 6) 각종 수여식 : 2013 골드메달-톰 메인, 2013 건축사사무소상-토트 윌리엄스 빌리 치엔, 25주년 건축상-메닐 컬렉션, 렌조 피아노, 교육자상 토포즈 상-로버트 그린스트리트, 휘트니영상-하비 겐트

이외에도 건축분야별 상, 인테리어 상, 도시계획상, 공공건축상(공무원, 공공건축설계 등) 신진건축사상, 주택보급국상, 도서관상, 준회원상, FAIA 수여식 등 여러 부문 상들을 여러 이벤트와 같이 진행.

### 3. 행사참석

#### 1) AIA 프레지덴셜 메달 수여식 (AIA 이사회 중 점심시간 이용) 과 오찬

본협 강성의 고문, 탄 페이 잉 아시아건축사협회 회장, 쉘슈지안 중국건축학회 회장, 폴 버크마이어 호주건축사협회 회장, 마리아넬라 캘드론 코스타리카건축사협회 회장, 길레모 루이즈 멕시코 건축사협회 회장, 폴 프랭크 캐나다건축사협회 회장 등이 수상하였다. AIA 임원들과 수상자들 그리고 동반자와 함께 기념오찬을 하였으며 특이한 점은 중국대표단은 일곱 명 정도로 수상식에는 많이 참석하고 그 후 모든 일정에 불참.

#### 2) UIA 임원과 프레지덴셜 메달 수상자 만찬

셀리반이라는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에서 UIA 알베르 듀블러 회장, 루이스 콕스 전임회장 등과 각국 협회장 그리고 김영수 회장, 강성의 고문, 강승우 국제위원 등이 참석하여 식사하면서 환담을 나누었다. 주로 화제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는 UIA 세계건축대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주로 대화내용이었으나 알베르 회장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7 UIA 세계건축대회에 대한 홍보를 더반 대회 폐회 후까지 좀 자제해달라는 요구함. 아마도 서

울 대회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차기 주제 대회의 성과를 격정한 듯 한 인상을 받았다.

#### 3) AIA 국제위원회 리셉션

AIA 국제위원장인 크리스틴 브루크너, Ph D., FAIA 주제의 스탠딩 파티 형식의 환영식. 이 자리에서 뉴욕주 지부장인 질 러너, FAIA 와 크리스틴 국제위원장은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서울, 도쿄,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상하이의 도시를 탐구하여 뉴욕에 새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여 본 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에서 협조하겠다고 협의 함.

#### 4) 국제단체장 포럼 과 헬렌 드리어링 차기회장 주최 오찬

AIA 미키 제이콥스 회장, 헬렌 드리어링 차기회장, 국제위원회 임원들과 본협 강성의 고문, 탄 페이 잉 아시아건축사협회의 회장, UIA 알베르 듀블러 회장, 타로 아시하라 일본건축사협회 회장, 폴 버크마이어 호주건축사협회 회장, 마리아넬라 캘드론 코스타리카 건축사협회 회장, 길레모 루이즈 멕시코건축사협회 회장, 폴 프랭크 캐나다건축사협회 회장 등이 첫째로 귀 단체와 회원들은 리더십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둘째로 건축사와 건축의 중요성을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인식을 높일수 있는가? 셋째로 앞으로 10년간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건축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약 개인 5~7 분으로 주제를 발표하였다. 강성의 고문은 협회가 학생 교육 참여 등을 통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대부분의 발표자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치가 미국에서 만큼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나라의 건축사협회도 건축사의 위상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사의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함. 일본의 유명건축사이며 프리즈커상 수상자인 토요이토도 재능 기부를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전함.

이어진 차기회장 주최 오찬에서는 김영수 회장께서 차기회장에게 한국방문에 초대하여 이에 내년 초에 방문하겠다고 화답하였으며 여러 AIA 임원, 전임 회장들, UIA 회장 및 임원들, 각국 건축사협회 임원들과 환담하였음. 많은 사람들이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에 관심과 애정을 표현함.



2013 건축사사무소상 - 토트 윌리엄스, 빌리 치엔



25주년 건축상 - 메닐 컬렉션, 렌조 피아노  
교육자상 토포즈 상 - 로버트 그린스트리트, 휘트니영상 - 하비 겐트



아시아건축사협회 회장 탄 페이 잉과 함께

### 5) FAIA 수여식

엘리 코킨스 오페라하우스라는 완전히 내부가 리모델링 된 유서 깊은 건물에서 122명의 새로운 명예 건축사들과 7명의 해외 명예 건축사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뜻 깊은 자리에 참석. AIA의 전임 회장단이나 명예 건축사 원로들이 새 명예건축사들을 직접 일일이 안내하여 수여식 진행.

### 6) AIA 회장 주최 리셉션과 명예건축사들을 위한 만찬

명예건축사들을 위한 만찬 전에 미키 제이콥스 회장 주최로 2013 프레지덴셜 메달 수상자들을 위한 리셉션에서 김영수 회장은 미키 회장에게 초대에 감사하며 본협과 미국건축사협회의 상호교류에 더 노력하자고 하였으며 미키 회장과 부인에게 본협에서 준비한 자개보석함을 주니 미키회장이 자기 집사람은 보석함을 채우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하여 모두들 웃음. 일본건축사협회는 미키 회장과 전임 코터 회장에게 명예일본건축사 메달을 공식적으로 수여하여 관심을 받음.

만찬에서 명예건축사 원로들, 전임 회장들, 프레지덴셜 메달리스트들을 소개하고 새로운 명예건축사들을 일일이 소개하는 자리를 갖으면서 식사와 음악, 그리고 늦게 댄스파티까지 이어졌다.

## 4. 2013년도 미국건축사협회 전국대회 주제가 주는 메시지

### 1) 기조연설 1 : 양심있는 자본주의와 미래의 비즈니스

- 블레이크 마이코프스키(탐스 창업자)

‘하나에 하나’ (신발 하나를 약 40-50불에 사면 후진국에 있는 신발 없이 사는 어린이들에게 신발 하나를 주는 의미)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유명한 탐스 창업자의 창업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우연히 여행간 아르헨티나에서 현 신발을 낙후지역에 나누어주는 봉사단체에 일하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 내어 신발을 팔아 좋은 일을 하게 되니 사업도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기부활동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사업도 번창하고 또한 우수한 인재들도 몰려드는 선순환의 생태체계를 이루게 되었으며 지금은 세계 일류 기업들과 같이 여러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회에도 기여하고 돈도 벌고 하는 아주 강한 회사이자 재단으로 발전시켰다.

### 2) 기조연설 2 : 당신이 아끼는 것처럼 디자인 또는 당신이 소중하게 하는 디자인

- 카메론 싱크레어(창립자, '인도적인 건축' 회사)

우리가 아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세계각지에 뜻을 같이하는 건축사들과 연계하여 한 프로젝트 한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있다. 런던대학 건축학과 졸업 후 논문으로 뉴욕에 있는 홈리스들에게 지속가능하고 변하는 쉼터를 연구하며 사회적이며 문화적이며 인도주의적인 설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2006년 케이트 스톨즈와 같이 책을 쓰면서 현재 '인도적인 건축'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전세계에 재난이 난 곳이나 환경이 열악한 곳에 창조적이며 지속가능한 작은 설계를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큰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2006년 TED 상을 받은 후로 전세계에 열린 건축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세계 최초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 열린 자원 커뮤니티를 시작하였다. 전세계 건축사들의 시간 기부로 많은 일을 진행하며 이제는 토요일도 같은 유명 건축사들도 동참하여 재난 극복, 환경개선 등을 하고 있으며 이로 하여 세상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단순히 재능기부만 모으는 사무실이 아니라 이를 자금조성, 기부금 조성, 자재 기부 등 이러한 열정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자금 조성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회사이다.

### 3) 기조연설 3 : 책임지는 리더십

- 콜린 파월 장군(전 미 국무장관)

키가 155센치 밖에 안되는 자메이카 이민부모의 아들로 굉장히 훌륭하게 성공한 이민자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면서 리더십은 큰 데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부터 있는 것이라고 연설하였다. 어린 시절 많은 사촌들과 함께 할렘의 어두운 동네에서 자랄 때 가까운 친척끼리 서로 돌봐주며 이끌어 주었던 일들이 자기의 현재를 만들었다며 가족간의 사랑과 지도가 없었다면 미국을 이끄는 미국 국무장관도 없다고 호소력 있는 메시지로 관객을 감동시켰다. 이러한 가족의 사랑으로 배운 여러 리더십과 배려는 훗날 레이건 정부에서 국가안전기획고문, 부시 정부와 클린턴 정부에서 미 합참의장, 그리고 부시 정부에서 국무장관 등을 역임하며 세계



미국건축사협회 헬렌 드리이닝 차기회장과 김영수 회장



아시아건축사협회의 사티 룯 누이 탄다난드 펠로우 십 의장 및 단페이 잉 회장과 함께



FAIA 수여식

각지의 분쟁을 해소하고 여러 갈등지역의 이슈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오랜 시절 해왔다.

#### 4) 2013년도 미국건축사협회 전국대회 준비위원회 환영의 글 및 미키 제이콥스 회장의 환영사 요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킨다. 디자인은 인간의 필수요건을 충족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과 미래세대에게 남겨두는 역사를 정하는 것이다. 디자인은 모든 미국국민이 삶의 질과 지구의 생태를 위해 나누는 포럼이며 이 포럼을 바로 우리, 건축사가 우리와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리드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살 맛나고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시민 건축사’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덴버는 한 동안 무질서한 계획으로 어지러운 환경이었지만 건축사들과 뜻있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200여개의 공원을 만들고 사람들을 위한 도시로 다시 탄생하였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며 세상의 리더로서 우리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덴버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꿈, 신념, 이상과 통하며 이번 컨벤션을 통하여 강의, 투어, 세미나 등을 통하여 확인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전국대회에서 소규모 사무실부터 큰 사무실까지 창조적인 생각을 나누고 보다 뛰어난 생각들을 배우고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며 다시 우리 사무실, 고객들 그리고 커뮤니티에 알리고 같이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가 됩시다.」

미키 제이콥스 회장은 건축사가 하는 일들의 가치를 일반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영방송에 건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더 추진하며 또한 정치적으로도 국회나 여러 경로로 건축에 대한 인식 고양에 힘쓰고 있다고 침언하였다. 또한 협회 내 정치관련 단체(Archi-Pac)에 많은 기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협회는 현재 AIA repositioning 이라는 협회의 나아갈 길과 전략을 다시 모색하는 컨설팅을 미국 내 우수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여러 분야의 소위원회와 또한 회원들의 인풋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회원들과 대화를 통해 협회의 중대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였다.

폐회식때, 2013년도 선거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두 명의 여성끼

리 결선 투표 끝에 차차기 회장이자 내년도 수석부회장에 엘리자베스 추 릭터, FAIA 가 당선되어 임원진들과 소개받았고 차기회장인 헬렌 드라이링, FAIA 가 내년도 대회장소인 시카고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선투표도 두 여성건축사들이 하고 내년부터 2년 연속 여성 건축사가 회장을 하는 등 여성 건축사의 위상이 고양되었다.

#### 5.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 1) 공정한 사회 - 흑인, 여성, 이민자 등 여러 소수 약자들이 수상, 회장당선, 명예건축사 추대 등 완벽하지 않지만 대부분 긍정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 2) 합리적인 협회 - 모든 행사는 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하고 모든 계획 미리 준비.
- 3) 재미와 참여 - 골프대회, 리셉션, 스탠딩 파티, 밴드 동원한 활기찬 대회장
- 4) 건축교육, 도시설계, 인테리어, 건설 연관 분야와 연계 - 다른 분야의 공헌자들에 대한 배려로 건축사협회의 포용력을 보여줌
- 5) 개최도시와 연계 - 개최도시와 주의 홍보에 많은 할애.
- 6) 자원봉사
- 7) 확실한 네트워킹 - 여러 레벨의 리셉션, 초대, 파티, 만찬, 투어
- 8) 재원확보 - 계속교육비, 엑스포 참가비, 기업후원, 협회 서점 등 부가 가치사업
- 9) 신구세대의 조화, 선배들에 대한 존경과 후배들에 대한 배려.
- 10) 건축사에 대한 존경과 건축사 자신의 자긍심

이번 참관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감동 받았지만 거대한 미국건축사협회의 규모와 역사를 따라할 수는 없고 우리만의 색깔을 갖고 이번 경험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이 있지만 장기 마스터 플랜을 갖고 하나씩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선배들의 지혜와 후배들의 열정을 합쳐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많은 편견과 난관을 이기고 건축사의 제대로 된 위상정립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야 할 때이다. ▣



기조연설 1 - 블레이크 마이크로프스키



기조연설 3 - 콜린 파월



폐회식 공연

## 협회소식

### 제6회 이사회

2013년도 제6회 이사회가 지난 6월 26일 오후 2시에 세종필드골프클럽 2층 대식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태블릿 PC 구입의 건과 부의안건으로 건설기술자경력관리 및 수수료 부과·수납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의 건, 건축사실무교육 운영규정 제정의 건,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칙개정 승인의 건, 친환경건축연구원 운영규정 개정의 건, 준회원 입회 승인의 건, 경기도건축사회 제명회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2013 건축의 날」 포상자 추천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 원안대로 집행하기로 함.
- 제2호 : 태블릿 PC 구입의 건
  - 보류함.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설기술자경력관리 및 수수료 부과·수납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건축사실무교육 운영규정 제정의 건
  - 사이버수강료를 조정(13,000원 → 10,000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칙개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친환경건축연구원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다만, 친환경건축연구원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하기로 함.
- 제5호의안 : 준회원 입회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2명 : 강호원, Lee Jennifer Kim)

- 제6호의안 : 경기도건축사회 제명회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결손처분 대상 1명, 결손처분액 : 1,530,000원)
- 제7호의안 : 「2013 건축의 날」 포상자 추천의 건
  -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자를 추천토록 회장에게 위임함.

### 위원회 개최 현황

#### ■ 제2회 녹색건축위원회

제2회 녹색건축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가칭)녹색건축전문가 관련 연구용역 필요성 및 방향의 건
  - 위원장이 관련 연구진행상황 및 협회 참여가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여 차기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함.
- 제2호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의 건
  - 위원 또는 자문위원회 녹색건축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건축사신문에 4회 연재하기로 하며 원고자 선정 및 자세한 일정은 위원장이 건축사신문 담당자 및 각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추후 건축사지에 시리즈로 연재하기로 함.
- 제3호 : 기타의 건
  - ① 유지관리점검 교육자료 관련
    - 유지관리 점검 교육자료(안)에 대한 보완의견이 있는 위원은 사무처로 송부하기로 하며, 이를 위원장 및 조병섭 부위원장이 검토한 후 최종 정리하기로 함.
  - ② 리모델링 설계대가 관련
    - 회원의 주 업무가 신축 설계에서 리모델링 설계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리모델링시 설계 및 대가에 관한 개선(안)을 리모델링팀(박세희 부위원장 등)에서 협의하여 협회(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 제1회 녹색건축소위원회(녹색건축팀)

제1회 녹색건축소위원회(녹색건축팀) 회의가 지난 6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에너지평가사 시험 관련 정보자료 작성 계획의 건
  - 회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자료집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 제4회 국제위원회

제4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제16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의 건
  - 대표단 및 담당위원 선정
    - ▷ 대표단 : 회장, 심재호 부회장, 조인숙 국제위원장, 김성민, 심형섭, 오동희 위원, 관계자 1인, 사무국 1인 (총 8인)
    - ▷ 담당위원 :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실무핸드북(김성민 위원), APEC건축사제도(APEC위원회/조인숙 위원장), JFABEA 제안(국제위원회 입장에서 정리), 건설시장 감리(심재호 부회장), 회장단 회의(회장), Community Architect Forum(오동희 위원), 국제적인 관광 섬 건설(심형섭 위원), 건설에서의 자연재해 방지와 완화(국토교통부), 차기회의 개최지 발표(인천건축사회)
- 제2호 : 제34차 이사회 및 제17차 ARCASIA 포럼 참가의 건
  - 대표단 구성 및 참가계획
    - ▷ 공식대표(2인) : 회장, 조인숙 위원장
    - ▷ 일반대표(2인) : 위원 2인
    - ▷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친환경위원회는 녹색건축위원회에서 참석을 제안하도록 함(참석 시, 별도예산 사용)
    - ▷ 심재호 부회장은 건축사등록원 예산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타진
    - ▷ 사전 일정은 모든 인원이 소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생기기므로, 전 일정을 소화하는 참석자와 후반 일정을 소화하는 참석자로 나눠 참석할 예정임
    - ▷ Fellowship 회원들에게는 별도의 공지를 통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함
  - 대표단 업무 분장 ('13. 7월 중 확정)
    - ▷ 이사회 : 공식대표(회장, 1인)
    - ▷ 건축교육위원회
    - ▷ 건축실무위원회
    - ▷ 친환경위원회
    - ▷ 사회책임위원회
    - ▷ Fellowship 미팅
- 기타사항
  - 가. ARCASIA 임원회의 및 C지역 단체장회의 참가
    - 중국건축학회와 교류방안을 구체적으로 논하며, Working Plan 체결을 위한 협회가 필요함.
    - 늦어도 '13. 7. 8(월)까지 교류방안 확대논의에 대한 서신을 ASC측에 송부
  - 나. 2013년도 일본건축가협회(JIA) 전국대회 참가
    - 참가여부 및 대표단 구성 결정은 회장께 일임
  - 다. 제56회 일본건축사연합회(JFABEA) 전국대회 참가

- 대표단 구성 결정은 회장께 일임

## ■ 제2회 회장직선제 TF

제2회 회장직선제 TF 회의가 지난 6월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회장 직선제 선거방법의 건
  - 인터넷을 통한 직접선거방식에 건축사대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접목하여 선거제도를 마련키로 함.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T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과 모바일) 투표 서비스를 활용

## ■ 제2회 위원장 합동회의

제2회 위원장 합동회의가 지난 7월 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도 위원회 운영 기본방향에 대한 협의
  - 2013년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향(위원회 구성, 위원 추천, 회의개최, 회의운영 등), 협회활동, 협회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함.
  - 위원회 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해 홍보될 수 있도록 활동사항을 편집위원회에 전달하여 건축문화신문이나 건축사지에 게재토록 함.
  - 해외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일반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사업비예산에 반영하도록 함.
  - 협회 업무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한 위원회에서 추진하기 보다 연관 위원회 간에 조정,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함.
  - 법제도 추진에 협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①부회장과 법제담당이사,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②기존 법제위원회, ③법제도개선위원회 추가 구성 등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위원회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위원장합동회의를 분기별 한번씩 개최하기로 함.
  - 건축사실무교육 내용에 자재부문에 대한 설정을 위해 교육위원회, 녹색건축위원회, 사업위원회의 담당이사와 위원장이 협의하기로 함.

## ■ 제1회 건축문화재단설립위원회

제1회 건축문화재단설립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문화재단 설립 추진의 건
  - 한국건축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회와 재단과의 협력관계를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기로 함.
  - 설립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고문들에게 기증의향을 타진하고 건축문화신문 등에 홍보토록 건의함.

#### ■ 제2회 주거복지위원회

제2회 주거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세미나 주제선정 및 개최계획의 건
  - 세미나주제 : 취약계층을 위한 기능적 저비용 주택개선의 방안
  - 현재 지원 가능한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팽이부리마을 Sampling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결정
  - 본 사업의 진행기간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진행상황에 따라 세미나 방법을 구상하기로 함.
  - 팽이부리마을 답사 및 사례조사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 제2회 건축영화제 TF

제2회 건축영화제 TF 회의가 지난 7월 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영화제 목표설정의 건
  - 올해 영화제 목표 및 성공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함.
  - 올해 영화제 목표 및 성공기준
    - ▷ 점유율 80%(작년 63%), 관객수(2관) 4,000~4,500명 (작년 1관: 1,750명), 건축사 이미지 제고에 맞춘 언론 홍보 확대(작년 언론노출 95회)
- 제2호 : 후원단체 선정의 건
  - 과년도와 같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영화진흥위원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이화여자대학교를 후원단체로 선정함.
- 제3호 : 아트하우스 모모 대관계약의 건
  - 다음과 같은 주요 대관계약 내용으로 계약하기로 함.
  - 주요 대관계약 내용
    - ▷ 대관일시 : 10월 31일(목)~11월 5일(화) 총 6일간
    - ▷ 러닝개런티(별도의 대관료 없음)
    - ▷ 수익분배율 7(백두대간) : 3(대한건축사협회)
    - ▷ 상영관 2개관 사용
    - ▷ 초대권 400장
- 제4호 : 웹사이트 리뉴얼의 건

- 김성호, 박혜은 위원이 7월 4일까지 외국영화제 웹사이트 사례를 조사하여 건축적으로 특성화된 세련된 느낌으로 리뉴얼을 진행하기로 함.

##### • 제5호 : 조직위원회 구성의 건

- 각 위원별로 건축영화제를 대표할 만한 유력인사를 추천해 차기 위원회에서 선정하기로 함.

##### • 제6호 : 홍보전략 방안 및 협찬의 건

-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제신문 공동포럼 개최 등의 부대행사 추진 및 학생기자를 활용하기로 하며, 진행중인 협찬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함.
  - ▷ 추진진행중인 협찬건(AK백화점, 아시아나항공)
  - ▷ 추진예정 협찬건(학생주호 타겟층 '에너지음료'기업의 현물협찬, 기업은행)

##### • 제7호 : 홍보대사(Festival Architect) 선정의 건

- 건축, 건축사 및 건축영화제에 어울릴 수 있는 인사를 고민해 차기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 논의된 인사(수지\_배우, 류승룡\_배우, 김병만\_코미디언, 고준희\_배우, 유연석\_배우)

##### • 제8호 : 영화제 주제 선정의 건

- 올해 영화제 주제는 'House'(추후 변경가능)이며 프로그래머와 상의하여 수급영화의 내용에 따라 상이한 소테마를 설정하기로 함.
  - ▷ 7월말에 프로그래머와 후보상영작 영화를 선정하여 1차 주제, 영화선정을 하기로 함.

#### ■ 제5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제5회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교육원 예산검토 및 관련의 건
  - 임의로 5개년도 교육원의 총세입·세출을 산출하여 검토한 결과 사이버강의 수강료는 정회원 13,000원, 비회원 26,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제작된 4편의 사이버강좌는 7월 1일부터 개설하기로 함.
  - 차기년도 교육비는 2014년도 교육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시 철저한 수익분석을 토대로 추후 재검토하기로 함.
- 제2호 : 사이버강의 추가 제작계획의 건
  - 「전자입찰 실무교육 입문과정」의 사이버강좌 제작은 7월중으로 시행하기로 하되 제작완성 후 위원들이 사전 검토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실무교육의 건설기술자 교육 인정의 건
  - 건축사실무교육의 건설기술자 교육 인정 여부는 건축사등록원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며, 건축사의 편의를 고려할 때 건설기술자 교육으로 인정해야 함이 타당함.
  - 단, 건축사실무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의 성격이 다를 경우 안할 때 건설기술자 교육은 상호인정은 불가함.

• 제4호 : 기타사항

- 8월23일부터 8월24일까지 2일간 실시예정인 「한옥 전문인력 양성 지방인력교육」에 건축사들이 참여할 경우 각 1시간씩 자기계발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축사등록원에 인정신청하기로 함.
-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각 시도건축사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이 취합 완료되는 8월중 각 시도건축사회 교육위원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되 날짜는 추후 확정하기로 함.
- 철강협회에서 요청한 한국스틸건축학교 관련 교육과정 구성 및 강사섭외는 어려우며, 철강협회에서 교육과정 등을 구성하여 검토 의뢰시 김운 위원장이 담당하여 검토하기로 함.

■ 제1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

제1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한옥설계전문인력 양성과정 합격자 선정의 건
  -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원자에 대한 심사는 2013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별첨1] “교육생 선발 세부기준표”에 의거 합격자 48명 및 예비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하되, 예비합격자는 고령자 및 경력·자격증이 없는 자를 맨 하위에 두기로 함.
  -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합격자 발표는 예정대로 6월 26일(수)에 공고하기로 함.
- 제2호 :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의 건
  - 교육운영에 필요한 학사관리세칙 및 예산운영(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함.
- 제3호 : 기타사항
  -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교육생 입교식은 7월 2일(화)에 시행하고 세부운영사항은 2012년도에 준해 위원장이 결정하기로 함.
  - 7월 4일부터 7월 5일에 개최할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관 「한옥워크숍」 행사에는 조인숙 위원장과 한동수 위원이 참석하기로 함.
  - 한옥 교육과정중 “한옥설계작품전시회”를 아우리 “한옥공모전” 일정에 맞추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고, 해외답사에 관해서는 장소섭외 및 일정, 교육생 홍보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기로 함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  
미국건축사협회(AIA) 컨벤션 참가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덴버 콜로라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2013년 미국건축사협회(AIA) 컨벤션에 참석했다.



이번 방미에는 강성의 고문, 강승우 국제위원회 위원이 동행했으며, 강성의 고문은 AIA프레지덴셜 메달과 Honorary Membership을 수여받았다. 김영수 회장은 해외단체장 포럼 및 오찬, AIA프레지덴셜 메달수여식, AIA국제위원회 리셉션, 수여식 만찬 등 네트워킹 및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했다.

우리협회, 제6회 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6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세종시 일대에서 제6회 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을 비롯한

이사 및 감사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임원들은 이사회 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방문, 행정도시건설청 관계자들로부터 건설현장을 브리핑을 받았으며, 세종호수공원과 홍보관 등을 견학했다. 이튿날인 27일에는 계룡산을 찾아 동학사와 관음봉 고개를 오르는 등 등산을 통해 임원 간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김영수 회장, FIKA 대표회장 취임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7월 1일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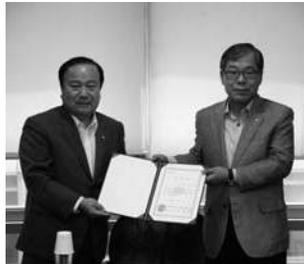


7월 4일 FIKA회장단회의에서 인계인수식을 갖고 대표회장에 취임한 김영수 회장은 앞으로 FIKA 주최의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준비와 함께 오는 9월 26일 개최되는 2013 건축의 날, 9월 28일 진행되는 건축인 걷기한마당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 및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종 건축계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건축단체연합을 대표해서 대처하게 된다.

건축문화재단설립추진위 위원장에  
강성의 전 협회장 위촉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7월 3일 건축사회관 8층 회의실에서 강성의 전 협회장에 건축문화재단설립추진위원장 위촉장을 전달했다.

건축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 2월 27일 제42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와 건축사의 위상제고 및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이 의결되었다.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설립될 예정이며, 재단의 성격은 공익 재단법인이다. 재단의 주요사업은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건축분야 유공자를 위한 시상사업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연구조사 지원사업 ▲일반국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건축문화 지원사업 ▲기타 이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일정은 세부추진 계획 마련, 재단설립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2월 중에 설립 예정이다.



이번 건축문화재단설립추진위에 위촉된 위원은 김영수(주.건축국종합건축사사무소), 이각표(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유림(주.발해 건축사사무소), 이철호(주.승창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정명옥(펜타그램 건축사사무소), 조재용(주.종합그룹환경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이다.

### 서울시건축사회, '함께가는 장애학생 봄 소풍'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조충기)는 지난 6월 5일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관악·동작구 관내 장애학생들과 봄 소풍을 다녀왔다. 지난해 동물원 봄 소풍에 이어 개최된 이번 행사는 장애학생 34명과 서울건축사 봉사단원 및 학부모 등 총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양평에 있는 외갓집체험마을에서 개최했다.

이날 장애학생과 건축사 봉사단원은 1대1로 짝을 지어 인절미 떡메치기, 트랙터 마차타기, 야채전 만들어 먹기, 딸기 따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 행사와 냇가에서 물 미끄럼 타기와 뗏목타기 및 송어 잡기 등을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 충청남도건축사회, '2013 협회발전워크숍' 개최

충청남도건축사회(회장 최종옥)는 지난 6월 19일 공주에 위치한 공



주교육대학교에서 '2013 협회발전워크숍 및 윤리교육'을 가졌다. 이날 최종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소 협회발전에 힘써주시는 회원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앞으로 충남건축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행사를 계획했다"며 워크숍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충남건축사회 정회원 231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별 사업계획보고는 △1주제<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건축사 업무활성화 방안> △2주제<소규모건축물의 감리업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문제점과 개선방안> △3주제<기획설계 계약을 통한 건축사 업무개선 방안>로 분임별로 진행됐다. 이번 분임별 토의 내용은 충남 16개 지역회 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 강동·송파지역건축사회, '춘계 고적답사' 개최



서울 강동·송파지역건축사회는 지난 5월 24,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영주 부석사, 소수서원을 비롯해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 등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일컫는 영남권 고적답사를 가졌다.

이번 답사에는 강동·송파 동부권역 약 70여명의 건축사회원이 참석했다.

### 하남지역건축사회, 창립기념 이웃돕기 성금 기탁

하남지역건축사회는 지난 6월 11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창립 개소식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200만원과 백미(20kg) 10포 등을 하남시에 기탁했다.



초대 회장에 선임된 김형곤 하남지역건축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하남지역건축사회는 앞으로 지역 일꾼으로 하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지역건축사회는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의 승인을 받아 창립했으며, 신장동 하남리 빙텔에 사무실을 열었다. 창립에 참여한 회원은 20명이다.

### 합천지역건축사회, 합천군에 교육발전기금 전달

합천지역건축사회는 지난 6월 19일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를 방문해 교육발전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세환 회장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뜻을 모으고 첫 사업으로 지역 꿈나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기금을 맡기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천안지역건축사회, 천안시와 업무협약 체결

천안지역건축사회(회장 박정준)와 천안시는 지난 6월 25일 지역 내 건축사가 무상으로 전문기술을 지원하는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축신고 수리 시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천안지역건축사회에 통보해 지원 건축사를 지정하고, 설계대상 건축물은 별도의 지정 없이 설계참여 건축사가 원칙적으로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 공정현장 검측 및 상담 등 기술지원과 기초공사, 지붕공사 등 철근배근 공정 시 현장검측 2회 등 건축주 요청 시 수시로 건축공사 상담 및 기술지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 포항지역건축사회, 어려운 지역주민 위한 집수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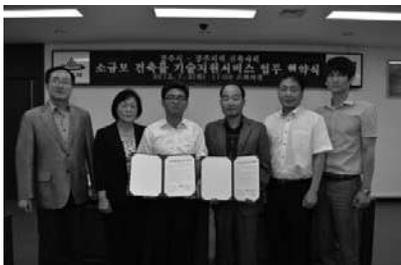
포항지역건축사회 대외협력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포항시 주민을 위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포항지역건축사회 방재원 회장과 권상기 대외협력위원장을 비롯한 참여 건축사들은 포항시 희망복지단으로부터 한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듣고 도배, 장판 및 가스레인지 교체, 보일러 수리, 외부 도색, 생필품 지원 등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 공주지역건축사회, 공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공주지역건축사회(회장 이명주)는 지난 7월 2일 공주시와 '소규모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던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공주지역건축사회는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로 농촌지역 건축디자인 자문, 건축공사의 주요공정인 기초공사와 지붕공사 등 철근배근 공정 시 현장 검측(2회), 건축주 요청 시 건축공사 상담 및 기술지도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 대한건축사등산동호회, '2013년도 상반기 등반대회' 개최

대한건축사등산동호회는 지난 6월 8일 전북 무주 덕유산에서 '2013년도 상반기 등반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건축사 회원 325명과 가족 95명 등 총 420명이 참석했으며,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을 비롯해 김의중 부회장, 김득수 감사, 김상부 감사, 정종태 이사 등이 산행에 동행했다.

이번 덕유산 등반대회는 무주리조트에서 출발하여 향적봉 정상을 거쳐, 삼공리 매표소까지 A코스와 B코스로 구분하여 참가자 전원이 완주하였으며, 행사 시작 전 협회 홍보를 위해 등반로 입구에서 일반 등반객에게 홍보기념품을 나눠주는 행사도 병행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등반대회는 오는 11월 9일 충북 영동 천태산에서 열린다.

· 문의 : 각 지역 등산동호회 또는 대한건축사등산동호회 사무총장 김경복 건축사(주.종합건축 다우/010-3697-6645)

## 건축계소식

### 제8회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13) 개최 10/23(수)-10/26(토), 4일간 COEX서 개최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주거환경의 안전은 물론 건축컨텐츠산업과 건축자재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건축문화의 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대통합축제 한마당인 제8회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13)을 10월 23일(수)부터 26일(토)까지 4일간 코엑스 1층에서 개최한다.

KAFF 2013은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 GREEN FESTIVAL'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녹색건축한마당'과 '녹색건축대전'이 동시개최하며, 건축사교육 및 각종 세미나와 신제품설명회, 그린리모델링 공모전 등이 함께 열린다.

또 녹색건축박람회와 밸브파이프프기술산업전이 함께 개최되어 동기간 내에 많은 건축건설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방문과 네트워킹이 예상된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뜻을 모으고 첫 사업으로 지역 꿈나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기금을 맡기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천안지역건축사회, 천안시와 업무협약 체결

천안지역건축사회(회장 박정준)와 천안시는 지난 6월 25일 지역 내 건축사가 무상으로 전문기술을 지원하는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축신고 수리 시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천안지역건축사회에 통보해 지원 건축사를 지정하고, 설계대상 건축물은 별도의 지정 없이 설계참여 건축사가 원칙적으로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 공정현장 검측 및 상담 등 기술지원과 기초공사, 지붕공사 등 철근배근 공정 시 현장검측 2회 등 건축주 요청 시 수시로 건축공사 상담 및 기술지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 포항지역건축사회, 어려운 지역주민 위한 집수리 지원



포항지역건축사회 대외협력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포항시 주민을 위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포항지역건축사회 방재원 회장과 권상기 대외협력위원장을 비롯한 참여 건축사들은 포항시 희망복지단으로부터 한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듣고 도배, 장판 및 가스레인지 교체, 보일러 수리, 외부 도색, 생필품 지원 등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 공주지역건축사회, 공주시와 업무협약 체결

공주지역건축사회(회장 이명주)는 지난 7월 2일 공주시와 '소규모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던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공주지역건축사회는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로 농촌지역 건축디자인 자문, 건축공사의 주요공정인 기초공사와 지붕공사 등 철근배근 공정 시 현장 검측(2회), 건축주 요청 시 건축공사 상담 및 기술지도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 대한건축사등산동호회, '2013년도 상반기 등반대회' 개최

대한건축사등산동호회는 지난 6월 8일 전북 무주 덕유산에서 '2013년도 상반기 등반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건축사 회원 325명과 가족 95명 등 총 420명이 참석했으며,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을 비롯해 김의중 부회장, 김득수 감사, 김상부 감사, 정종태 이사 등이 산행에 동행했다.

이번 덕유산 등반대회는 무주리조트에서 출발하여 향적봉 정상을 거쳐, 삼공리 매표소까지 A코스와 B코스로 구분하여 참가자 전원이 완주하였으며, 행사 시작 전 협회 홍보를 위해 등반로 입구에서 일반 등반객에게 홍보기념품을 나눠주는 행사도 병행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등반대회는 오는 11월 9일 충북 영동 천태산에서 열린다.

· 문의 : 각 지역 등산동호회 또는 대한건축사등산동호회 사무총장 김경복 건축사(주.종합건축 다우/010-3697-6645)

## 건축계소식

### 제8회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13) 개최 10/23(수)-10/26(토), 4일간 COEX서 개최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주거환경의 안전은 물론 건축컨텐츠산업과 건축자재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건축문화의 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대통합축제 한마당인 제8회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13)을 10월 23일(수)부터 26일(토)까지 4일간 코엑스 1층에서 개최한다.

KAFF 2013은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 GREEN FESTIVAL'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녹색건축한마당'과 '녹색건축대전'이 동시개최하며, 건축사교육 및 각종 세미나와 신제품설명회, 그린리모델링 공모전 등이 함께 열린다.

또 녹색건축박람회와 밸브파이프프기술산업전이 함께 개최되어 동기간 내에 많은 건축건설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방문과 네트워킹이 예상된다.

특히 건축의 미래트렌드를 제시하며 우수한 건축자재를 발굴하여 추천하는 '우수건축자재추천제'를 전시기간 내에 진행하여 건축사와 참가업체가 적극적으로 B2B마케팅 할 수 있는 유일한 건축전문전 시회이다.

KAFF 2013은 오는 8월 30일까지 참가신청을 접수받는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사업팀 02-3415-6866, 6867 / www.kaff.biz

## 한옥문화원, '14기 한옥건축전문인과정' 모집

사단법인 한옥문화원(원장 장명희)에서 14기 한옥건축전문인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한옥문화원은 한옥 건축 현장에서 건축의 계획에서부터 시공 전반에 이르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사 진행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할 수 있는 한옥건축관리사 양성을 교육목표로 2000년부터 한옥건축전문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과정은 크게 입문학기, 심화학기, 전문학기로 이루어져 있고, 총 이수기간은 1년이다. 입문학기는 한옥건축의 원리를 익히는 과정으로 기본 용어에서부터 구조, 시공과정, 건축재료 그리고 모형제작실습을 통한 한옥의 구조와 기법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화학기와 전문과정은 입문과정을 수료했거나, 한옥문화원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구조, 시공, 재료, 건축계획, 시공관리 등 한옥건축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획득하기 위한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과정은 9월 10일(화) 개강할 예정으로 수강을 원하는 사람들은 한옥문화원 홈페이지(www.hanok.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8월 28일(수)까지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사단법인 한옥문화원 02-741-7441

## 신간안내

### '2013 KAFF CATALOG' 무료배부 안내



'2013년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CATALOG'가 발행돼 우리협회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됐다.

'2013년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CATALOG'는 2013년 우수건축자재추천업체와 2012년 한국건축산업대전 참가업체 총람집으로 건축관련 종사자에게 건축자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축설계, 시공, 감리업무의 효율증대 및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 우리협회에서 제작했다.

각 시·도지역건축사회를 통하여 7월 10일부터 회원에게 무료배

부 됐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건축사회를 문의하면 된다.

※수령처 : 각 시·도지역건축사회

※문 의 : 본협회 전시사업팀 T.02-3415-6866~6867

(서울)02-581-5715 (부산)051-633-6677 (대구)053-753-8980 (인천)032-437-3381 (광주)062-521-0025 (대전)042-485-2813 (울산)052-274-8836 (경기도)031-247-6129 (강원도)033-254-2442 (충북)043-223-3084 (충남)042-252-4088 (전북)063-251-6040 (전남)061-285-7563 (경북)053-744-7800 (경남)055-246-4530 (제주도)064-752-3248

## 설계사무소 CEO가 알아야 할 11가지

Frank A. stasiowski 저 · 강인수, 이희원, 장태완, 비퍼플 역 | 398쪽 | 기문당



이 책에는 건축관련 기업 경영 컨설팅 기업인 PSMJ의 설립자이자 CEO로서, 건축사사무소를 하나의 기업으로 그리고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를 그 기업의 CEO로 보고 건축사사무소CEO가 알아야 할 것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이 책의 원제목은 "Staying small successfully"로서 "소규모 설계사무소의 성공 전략"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은 단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대규모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들도 반드시 알고 실제 회사 경영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 BIM: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김인한, 박정대, 박철수, 정종현, 추승연 공저 | 380쪽 | 빌딩스마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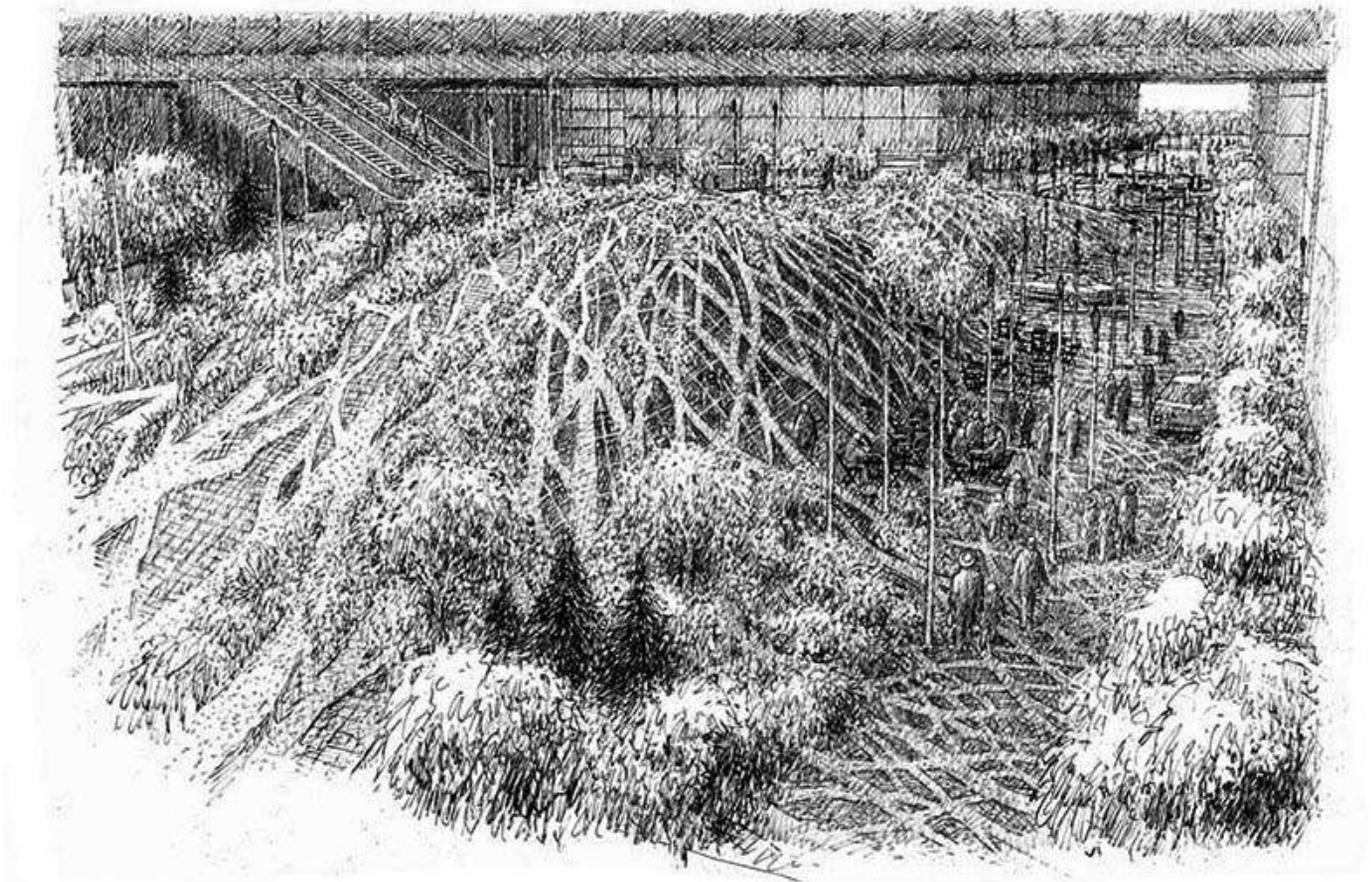
빌딩스마트협회 연구발간위원회는 BIM의 최신 이론 및 분야별 실무 적용서 발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BIM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총서를 기획했다. BIM 총서는 BIM 원론서를 비롯하여 설계 및 엔지니어링·시공·CM 및 유지관리·요소 기술·토목 등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발간될 예정이다.

이 책은 이 중에서 제2권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 해당한다. 구성은 크게 1부 BIM의 정의(1~2장), 2부 설계 분야의 BIM(3~5장), 3부 엔지니어링 분야의 BIM(6~9장), 4부 BIM의 미래(10장)로 나뉜다. 또한 BIM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외 BIM 적용 사례와 BIM 소프트웨어 목록을 부록에 담았다.



# 손이 보여 주는 생각

The Mind in 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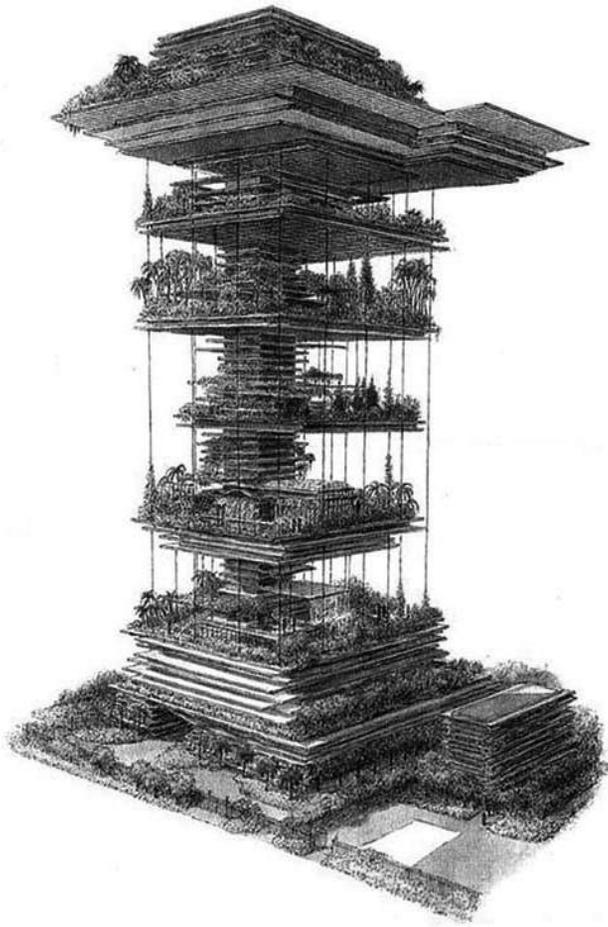
Beijing New World Plaza, 2008. James Wines

제임스 와인스의 드로잉들은 페이퍼 아키텍트와 손으로 그려 지거나 만들어진 스케치와 작업들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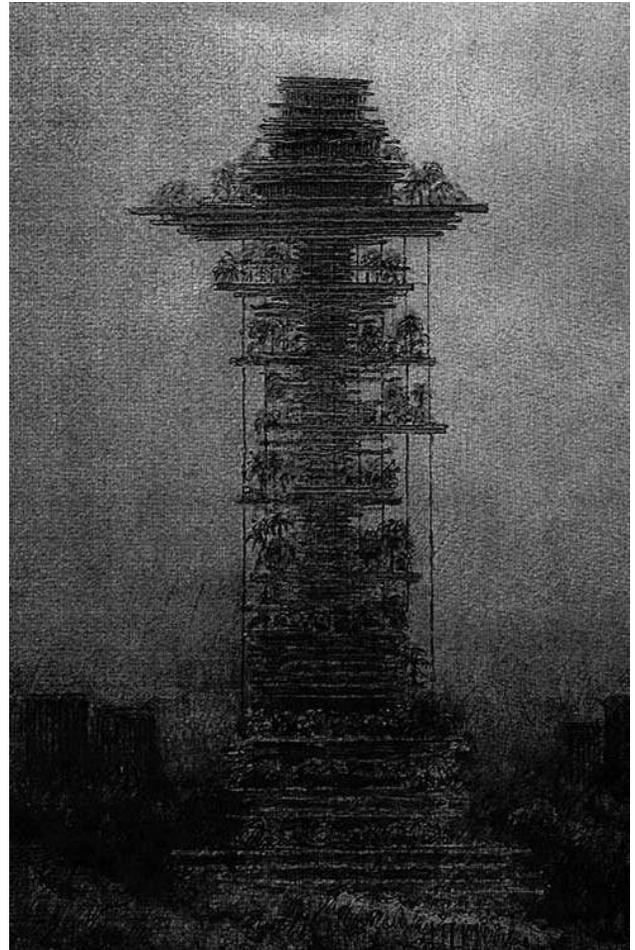
뉴욕지역 건축계는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 내에서 가장 다양하고, 독창적이며, 다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겨우 이해 할 수 있거나 특히 방문자들에게는 이해가 불가능 하도록 너무나 많은 구성 요소와 하위 그룹을 가지고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의 크기만큼, 소규모의 매우 창조적인 스튜디오와 사무실들이 많이 존재 하고, 남쪽으로는 프린스턴대학에서부

터 북쪽으로는 뉴헤이븐의 예일대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학과 기관들에 수준 높은 학자나 큐레이터들이 분포되어 있다. 사실, 이것으로 뉴욕은 세계 어디와도 비교 될 수 없는 최고의 건축 환경을 가졌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지난 30년 동안 보여진 이 도시의 특별한 강점 중 하나는 일인 사무실에서 그들의 아이디어와 건축적 비전, 가능성들을 표현한 강력한 이미지들을 종이 위에 쏟아내어 그려내는,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창조자 그룹의 존재이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면 면 들에는 ex-Archigrammer의 Michael Webb, 그리



ANTILIA TOWER, 2003.



고 후기 John Hejduk, Raimund Abraham, Lebbeus Woods, Laretta Vinciarelli들이 있고, 넓게는 맨하탄의 드라마틱한 형태를 강박적으로 그려 내어 그 만의 독특한 건축적 비전으로 표현한 이태리 건축사 알도 로시까지 있다. Hugh Ferriss와 같은 소위 “paper architect”라 불리는 이들 그룹은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주 해와 뉴욕에서 일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영향을 전파하고 있다.

뉴욕 기반의 주요 페이퍼 아키텍트 그룹들 중의 하나인 SITE studio의 설립자인 James Wines의 핸드 드로잉을 볼 수 있는 A Line Around an Idea 전시가 열렸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1970대부터 현재까지 그가 설계하여 실제 지어졌거나 또는 지어지지 않은 프로젝트들을 몽블랑 클래식 펜, 윈저앤 뉴튼 붓, 캔슨 페이퍼, 점차 사용이 줄어드는 내수성 잉크인 오스미로이드 잉크와 자연 목탄 등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그린 드로잉으로 얼마나 “손이 보여 주는 생각”이 중요하며 핸드 드로잉 테크닉을 지닌 이들이 어떻게 그 능력을 이용하여 집중하여 형태에 적용하는 지를 보여 준다. SITE Studio의 그림 같은

베스트 작품인 Peeling(Richmond, Virginia), Indeterminate Facade(Houston, Texas), Notch(Sacramento, California), and Tilt(Towson, Maryland) 등은 James Wines의 그의 상상을 펜과 잉크로 술술 표현해 내는 솜씨가 없이는 상상조차 불가능해 보인다.

이 전시는 실현화된 것과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 상태를 표시하고 하단에 핸드 드로잉으로 렌더한 이미지들을 실은 기다란 패널을 연대 별로 전시 하였다. 이 전시는 오랫동안 James Wine의 주요 랭귀지인 녹지 환경 또는 식생건물, 그리고 랜드스케이프의 건축에로의 흡수 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전시는 James Wine이 단지 페이퍼 아키텍트에 머물지 않고 멋진 Beijing New World Plaza Center와 같은 실제 건축물을 구현한 모습 또한 보여 주고 있다. 그의 “손이 보여 주는 생각”은 1970년대부터 2013년 지금 현재도 확실히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

윗 글은 architecture newspaper의 글의 일부를 발췌, 번역 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3년 6월말

구분 건축 사회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합 계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078	6,078	85	170	7	21	6,170	6,269	1,739	1,739	234	468	61	183	24	96	15	101	2,073	2,587	8,243	8,856
서울	948	948	21	42	0	0	969	990	883	883	124	248	248	126	12	48	10	60	1,071	1,365	2,040	2,355
부산	523	523	10	20	2	6	535	549	119	119	25	50	50	3	1	4	2	14	148	190	683	739
대구	519	519	20	40	4	12	543	571	71	71	14	28	28	12	2	8	0	0	91	119	634	690
인천	288	288	3	6	0	0	291	294	63	63	7	14	14	3	0	0	0	0	71	80	362	374
광주	220	220	0	0	0	0	220	220	42	42	6	12	12	9	2	8	0	0	53	71	273	291
대전	269	269	5	10	0	0	274	279	32	32	7	14	14	12	1	4	1	12	45	74	319	353
울산	195	195	4	8	0	0	199	203	21	21	3	6	6	0	0	0	0	0	24	27	223	230
경기	851	851	2	4	0	0	853	855	246	246	18	36	36	9	2	8	0	0	269	299	1,122	1,154
강원	204	204	2	4	0	0	206	208	23	23	2	4	4	0	1	4	0	0	26	31	232	239
충북	228	228	2	4	0	0	230	232	41	41	3	6	6	6	2	8	1	9	49	70	279	302
충남	296	296	1	2	0	0	297	298	56	56	7	14	14	0	1	4	0	0	64	74	361	372
전북	271	271	4	8	0	0	275	279	25	25	5	10	10	3	0	0	0	0	31	38	306	317
전남	223	223	0	0	0	0	223	223	25	25	2	4	4	0	0	0	1	6	28	35	251	258
경북	413	413	4	8	1	3	418	424	39	39	5	10	10	0	0	0	0	0	44	49	462	473
경남	492	492	6	12	0	0	498	504	37	37	4	8	8	0	0	0	0	0	41	45	539	549
제주	138	138	1	2	0	0	139	140	16	16	2	4	4	0	0	0	0	0	18	20	157	160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3년 7월중순

구 분 건축사회	회 원	
	건축사	비 율
합 계	8,856	100%
서울	2,355	27%
부산	739	8.4%
대구	690	7.7%
인천	374	4.2%
광주	291	3.3%
대전	353	4.0%
울산	230	2.6%
경기	1,154	13%
강원	239	2.7%
충북	302	3.4%
충남	372	4.2%
전북	317	3.6%
전남	258	2.9%
경북	473	5.3%
경남	549	6.2%
제주	160	1.8%

구 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1,732	1,848
서울	3,778	1,281
부산	749	66
대구	689	34
인천	374	6
광주	303	38
대전	345	32
울산	232	21
경기	1,415	67
강원	258	10
충북	318	54
충남	374	48
전북	328	18
전남	274	44
경북	483	17
경남	581	24
제주	165	21
기 타	1,066	67
비 고	회원 : 8,648 / 비회원 : 3,084	대학 : 1,680 / 대학원 : 168

###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 계	비 고
회원수	6,269	2,587	8,856	
비율	70.79%	29.21%	100%	
사무소수	6,170	2,073	8,243	
비율	74.85%	25.15%	100%	